

교육개발

1995

통권93호

특집

하그인의 도덕서, 그 진다과 처바
L N L 7 0, L N 0

김석준/이화수/서중석/김인희/조성숙/정범석/편광범/조난심

권두칼럼

교육혁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한종하

시론

교육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김원웅

누가 대학생이 되어야 하는가/이원영

직업기술교육의 세계화 전략/장석민

스승의 한마디/정채봉

학교탐방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영광 영산 성지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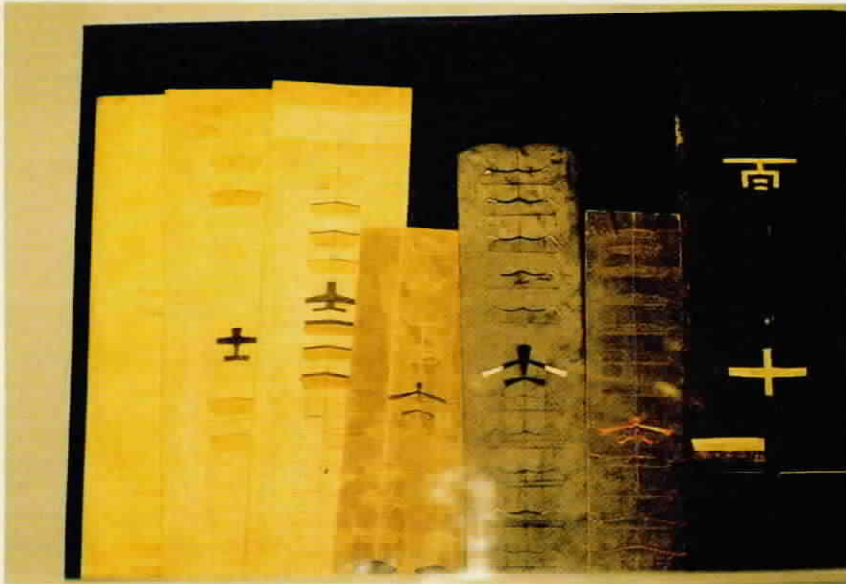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산(書算)



이 사진은 조선시대의 유생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경서(經書)나 책 등을 암기할 때, 접었다 폈다 하여 몇 번 읽었는지를 십진법(十進法)으로 세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자신의 아호(雅號)를 새겨 넣기도 하였으며, 이것을 지금의 책갈피처럼 책에 꽂아두기도 했다. 모양은 두꺼운 한지에 기름을 먹인 것이 대부분으로, 당시에는 종이 문화가 많이 발달했음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 자료제공 한밭교육박물관
- 사진 정태호
- 자료해설 손영주

교육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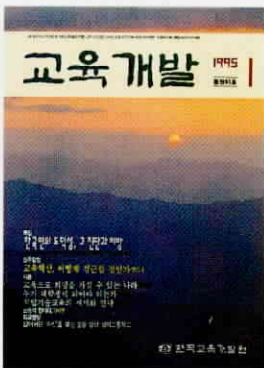
1995. 1

교육개발 1995. 1/통권 93호/1975년 8월 25등목
등록번호 바-574/1994년 11월 31일 발행/석필환
발행인·한중하/발행처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우편번호 137-791
대표전화 572-5021, 5121/인쇄처 국경로파서주식회사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유통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인/한중하
- 출판심의위원장/류삼태
- 출판심의위원/강중훈, 김주훈, 박영숙, 박인종
임선하, 정재걸, 정택희
- 편집특임부장/남미영
- 기자/손영주

● 표지



• 제자 : 모암 윤양희

1. 화제의 사진

조선시대의 서산(書算)

4. 권두칼럼

교육혁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한중하

6.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II

朱熹의 教科理論/박종덕

10. 시론

- 교육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김원웅
- 누가 대학생이 되어야 하는가/이원영
- 직업기술교육의 세계화 전략/장석민

21. 현장교육

교사와 어린이들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최재인

25. 특별기획

한국인의 도덕성, 그 진단과 처방

- 한국사회의 부패구조와 도덕성의 수준/김석준
- 한국정치의 낙후성과 인간상실의 교육/이화수
- 역사는 국민도덕의 거울/서중석
- 교육적 부패구조와 그 대안/김인회
- 도덕교육 밀어내는 가족이기주의/조성숙
- 도덕성 회복과 전통윤리적 처방/정범석
- 정신도덕부터 바로 되어야/편광범
- 교육의 위기와 학교 도덕교육/조난심

60. 알아봅시다

2·1체제 공고교육 운영의 과제/강기주

65. 학교탐방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영광 영산 성지고등학교/임선하

71. 문화광장

좋은 책 이야기/남미영



74. 연구보고

산업인력 수급체제 분석연구/정태화

78. 스승의 한마디III

소리없는 소리를 알아들어라/정채봉

80. 연구동향

- 교육과 미술치료/최재영
- 잠재적 교육과정의 평가방법/이영문
- 범패의 교수·학습방법/백일형
-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한계/김영인

102. 외국교육소개

독일의 유아교육/김현희
호주의 교육개혁 '미래의 학교'/이옥화

114. KEDI연구뉴스

116.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이달의 명상/김홍원

교육혁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 종 하

(본원 원장)

한 나라의 교육체제를 뜯어 고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좋은 교육개혁안을 발굴해 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혁은 기존체제를 버리고, 기존 이해집단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승복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수가 없다. 어쨌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교육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고등교육개혁의 좌절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도 속 시원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도 그런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첫째로 훌륭한 아이디어 발굴에 못지않게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기존 이해집단을 승복시키지 못한다면, 그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인 절차 특히 민주적 토론과정을 통해 개혁안이 기존 이해집단을 설득하여야만 한다.

민주적 절차에서 국민, 특히 이해집단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적인 증거 또는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일이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힘있는 판단 기준, 혹은 설득력 있는 논거는 바로 과학적인 연구에서 얻는 연구정보일 것이다. 연구정보는 우선 정확한 문제의 진단, 전문적인 문제 해석에서 출발하여 과학적인 결론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논거보다도 설득력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토론 과정에서 어느 개혁안이 설득력을 갖느냐는 바로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많은 객관적 증거를 가진 처방전(개혁안)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돋보이게 마련이다.

둘째는 과학적인 문제진단과 함께 중요한 사항은 문제를 보는 눈과 마음의 균형과 중립성이다.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본다는가, 전문적 지식 없이 문제의 성격을 豫斷한다는가 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돌팔이 의사가 환자를 망치듯이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문제를 잘못 이해하여 생기는 誤診은 반드시 잘못된 처방전을 내놓기 마련이다. 그 여파와 후유증은 거의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육 개혁에서는 유념해야 한다. 특히 교육개혁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은 오진에 따른 잘못된 처방책을 권위주의적인 힘이나 勢의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개혁 전략이다.

지난해 10월 영국 왕립 장학관팀이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다. 방문목적은 한국교육을 이해하고, 한국교육에서 무엇인가 배우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한국에 3주간 머물면서 여러 학교를 관찰한 후 그 결과를 금년초에 짙막한 보고서로 내 놓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우리 교육의 문제를 선입견이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한국인보다 더 우리 교육의 본질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평소에 늘 보아 왔던 문제이어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보아 넘겼던 문제들을 “국제적인”안목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다음은 국제적인 경쟁력은 결국 우리 민족의 창의력 유
 무여하에 달려 있고 그 창의력은 결국 교실에서 길러진
 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우리 교실에서 창의력이 살아 날
 수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교실 모습은
 비창의적이라는 뼈아픈 지적이다. 특히, 교육과정, 교
 원, 교실 모습(50명 이상 규모)의 틀은 너무 획일적이

고, 경직되어 있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찰은 우리 교육 개혁의 우선 순
 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이들처럼 우리 교육의 문제 성격을 간단 명료하게 볼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문제를
 너무 거창하게 그리고 일시에 너무 많은 것을 보려는 욕심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오히려 문제를 너무
 거창하게 그리고 총체적으로만 보려는 압박감에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자칫 矯角殺牛하는 실수도 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셋째는 교육개혁에서 염두해 두어야 할 일은 “오래된 고질병을 치유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
 는 漢方醫의 격언이다. 우리 교육에 오래된 병폐를 단칼에 치유하려한다면, 그 개혁은 자칫 실패하기
 쉽다. 지난 5共 때 自律化라는 명분 아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을 일제히 벗겨 버렸다. 교복의 전
 통은 학교 역사와 함께 오래 되었지만, 교복은 학교문화의 한부분으로 학부모에게는 색다른 의미를 가
 지고 있었다. 국민학교 어린이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는 실감은 바로 머리 크기보다 큰 중학교
 모자를 쓰고, 형의 옷을 얻어 입은 듯 커 보이는 교복을 입혀 놓았을 때이다. 그 어색한 모습을 바라보
 는 부모의 마음에는 대견스럽게 자라는 자식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교복문화가
 뿌리 깊은 것이다.

이런 우리의 문화적 토양을 무시하고 이것을 갑자기 벗기는 개혁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지금
 대다수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다시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것은 교육개혁이란 서둘러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일러주는 교훈이기도 하는 것이다. 실은
 교복 자율화 정책은 좀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토론을 충분히 거쳐, 기존 문화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여
 러 증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런지 모른다.

아마도 1995년은 교육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 “교육개혁위원회”
 가 결성될지도 한해가 되었고, 한국교육의 새로운 틀도 이미 상당부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하나 국민 앞에 제시되어 진지한 토론을 유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
 다. 그리고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시간적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문제진단과 처방이
 라는 과정을 통해, 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㉞



朱熹의 敎科理論

박 종 덕

■ 韓國敎育의 歷史는, 적어도 실용성을 중시하는 서양의 敎育사조가 그 성격을 왜곡하기 이전까지는 傳統儒學과 그것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한 性理學의 역사와 맞물려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敎育의 뿌리를 찾는 일은 성리학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으며, 특히 朱熹에

의하여 성리학이 비로소 체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이론을 해명하는 일은 여기에 필수적인 先決條件이 된다. 종래 주희의 성리학은 주로 哲學理論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그 점에 관한 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주희는 이전에 존재하는 일체의 知識을 敎科로

체계화하는 일을 하였다. 그 결과 그의 이론은 교과가 나타내는 삶의理想을 그 어떤 이론보다도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성리학은 철학이론보다는 敎科理論에 훨씬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2 주희의 성리학은 그 이전의 傳統儒學理論, 佛敎理論, 道家理論 등을 그 나뉠이로 재 해석하여 종합한 결과로 형성된 이론이다. 그 점에서 주희의 이론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제반논의가 그의 성리학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하겠지만, 대체로 말하여 그의 성리학은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現象과 實在의 관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실재를 대면하는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주희의 ‘理一分殊說’과 ‘格物致知說’은 앞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집약적으로 표현했다.

주희의 ‘이일분수설’은 ‘理一’과 ‘理分殊’라는 두 개념에 의하여 현상과 실재의 관련을 암시하고 있다. 주희에 의하면 만물의 이면에는, 그것의 궁극적 원인으로서의 理가 존재한다. 그것이 곧 ‘理一’ 또는 ‘一理’이다. 이 ‘이일’은 ‘천지만물이 갖추고 있는 理를 總稱하는 것’(總天地萬物之理, 「朱子語類」卷94)에 해당한다. 한편 만물의 氣를 매개로 하여 ‘이일’을 불완전한 모습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만물에 구현된 이가 바로 ‘理分殊’이다.

주희의 ‘月映萬川’ 비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如月在天 兄一而已 及散在江湖 則隨處而見 不可謂月已分也, 「朱子語類」, 卷94), ‘이분수’(‘강과 호수에 흩어져 있어 가는 곳마다 비치는 달’)는 ‘이일’(‘하늘에 있는

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일’과 다르지 않으며, ‘이일’은 ‘이분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원인에 해당한다. ‘이일’은 ‘인간이 당연히 따라야 할 법칙과 그 법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所當然之則所以然之故, 「大學或問」 券1)를 포괄하는 일체의 基準으로서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심경에 의하여 마음대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느 편인가 하면 ‘이일’은 개인이 그것에 복종하면서 그것에 대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

한편 주희의 格物致知說은 앞의 ‘理一分殊說’에 나타나 있는 實在의 존재양상을 마음과 관련하여 취급함으로써 개인이 실재를 內面化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주희에 있어서 마음은 개인의 경험을 조직하는 認識作用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자체는 경험을 초월한 것도 아니요 더구나 이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마음은 외부의 個別事物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이면에 있는 理를 받아들인 결과로 형성된다. 이렇게 볼 때 주희에 있어서 工夫라는 것은 곧 개인 바깥에 있는 客觀的 理를 마음 속에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종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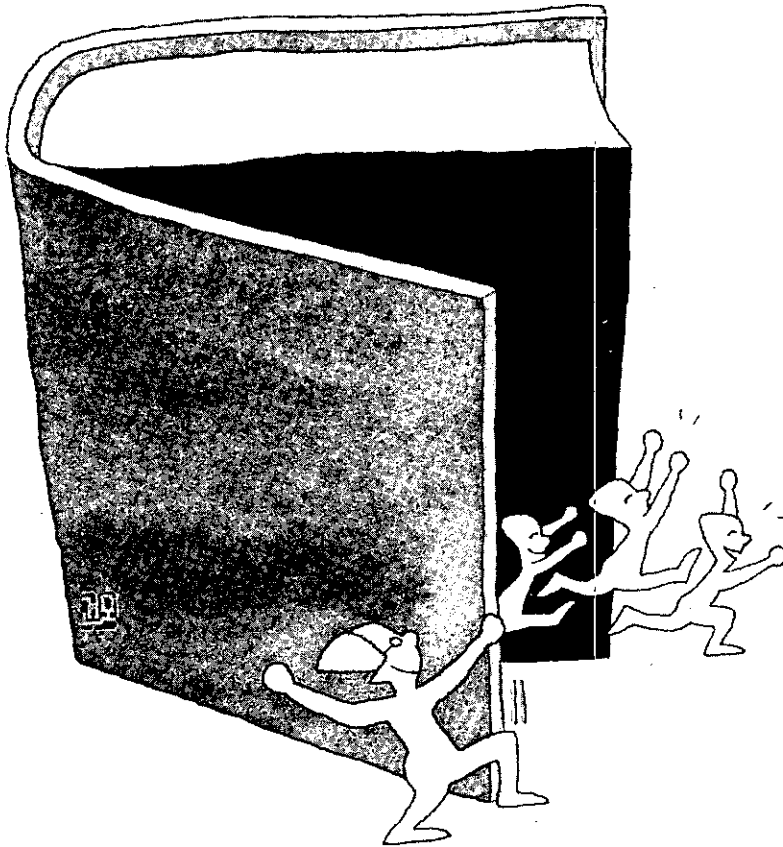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조교
- 『四端七情論詳의 敎育學的 含意』
- 『四端七情論詳과 敎育의 두 次元』

주희의 格物致知說은 사물의 理가 마음에 내면화되는 과정, 즉 工夫方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格物과 致知는 각각 공부하는 일의 客觀的 側面과 主觀的 側面을 가리킨다. 격물은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개념이며, 치지는 바깥에 있는 대상이 自己化되어 人格的 變化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특히 격물의 대상으로서의 ‘物’은 단순히 사물만을 가리키는 것에 한정된다기 보다는 ‘인간의 눈 앞에 펼쳐져 있는 배움의 대상 일체를 가리키며’(眼前凡所應接底 都是物, 「朱子語類」 卷 157), 이 점에서 위의 두 측면은 곧 사물이나 현상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教科工夫의 두 측면에 그대로 적용된다. 주희가 보기에 교과공부는 知識을 획득하는 것이요, 그와 동시에 그 裏面에 가정되어 있는 實在에 접하게 되는 수단이며, 그리하여 교과공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私慾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분명히 말하여 교과에 대한 주희의 견해는 우리의 傳統教育의 理論과 實際에 반영되어 있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귀한 傳統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 또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이전의 지식들이 자신의 바깥에 遺産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그리하여 개인은 개인의 자격으로서라기보다는 種族의 일원으로서 그것에 참여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개인은 유산으로 집적되어 있는 지식을 배우고 또 배우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 밖에 없지만 지식과 그 지식을 배우는 일은 世代間에 걸쳐서 永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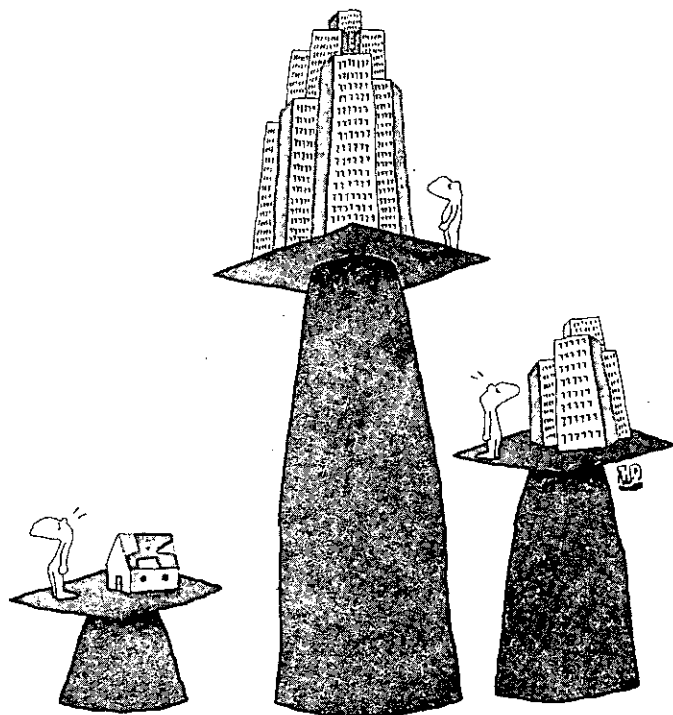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고귀한 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또한 그 전통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제어되지 않은 자연적 성향이 무분별하게 표출되는 것을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배적인 경향에 의해서이든, 아니면 實用性을 중시하는 서양의 교육사조에 의해서이든지 간에, 오늘날의 교과공부는 점점 개인을 초월해 있는 實在 보다는 개인의 의식 속에서 당장 그 가치가 확인되는 실용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취급하려고 한다. 교과공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치달았을 때, 교육은 이에 私慾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타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과에 대한 주희의 견해, 그리고 그것을 보다 발전시킨 우리 선조들의 견해는 그러한 사태에 대한 우려와 탄원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㉞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을 통하여 현장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김 원 응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현재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라도 이야기하듯이 21세기는 교육경쟁의 시대이다. 이에 대한 준비는 과학, 기술교육의 선진화에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 오면서 이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80년대까지가 공업화의 길로 국민들을 내몰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로 국민들을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무한경쟁의 길에서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다독거림이 없이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사회는 교육에 있어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존파 사건과 박한상군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교육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커다란 두 줄

기의 틈이 있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이 두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선진국들은 미래의 성패를 교육개혁에 두고 있다.

92년 4월 미국은 교육개혁안을 마련했고, 영국은 이미 대처 수상 시절에 국제 경쟁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각급학교의 필수로 채택했으며, 일본도 이제는 모방기술로만 안된다는 인식하에 교육대변혁을 서둘러 실천하고 있다.

이 엄청난 역사의식을 가지고 21세기를 전망할 때, 민족의 생존을 주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선진 과학과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앞당겨 소유하는 길 이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과학, 기술의 첨단 고지를 남에게 내어주는 한 국익경쟁에서 이기기는 어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중국 국립정치대학교 대학원 졸업
 · 국회의원
 · 「지방자치,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교육백서 I·II」의



럽다. 이 과정은 교육의 문제이다. 결국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교육의 대계에 걸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짧은 임기를 가진 정치지도자나 교육주무장관들은 웅대한 뜻을 펴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교육개혁안은 많은 나라의 경우 문서로만 남고 투자가 따르지 못해 사장된다. “교육은 장기적인 형태의 정치요, 정치는 단기적 형태의 교육”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어느 정치 지도자가 되든 교육개혁안을 작성,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면 그 청사진은 후임자에게 인계되고 국민은 그것을 지켜보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육은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담당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본질 훼손의 문제이다.

대학입학 선발기능이 조기에 점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고교3학년에서 일시에 이루어지는 병목현상으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입시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입시위주 교육은 학생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공동체의식의 와해, 단순암기교육으로 인한 창의, 개성, 자율성 신장 저해, 산업발전을 위한 인력자원 개발의 부적합성과 같은 폐단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의 입시위주 교육은 삶의 말살, 교육의 말살, 미래의 말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대학진학에 도전하는 80만명의 학생 중 60%에 해당되는 50만 명은 해마다 좌절의 경험을 안고 사회로 나간다. 이 막대한 청소년들은 입시교육만 받다가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와 각자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진로 개척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외면한 군상들이다.

둘째는 과학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의 낙후성의 문제이다.

한국 고등학생의 수학, 과학 실력은 국제학력평가에

서 중하위권으로 처지고 있다. 실험실습이 중심이 되어야 할 과학, 기술교육이 주입식 이론 교육에 치중하여 과학, 기술 교육의 핵심인 창의성과 기술개발의 기초를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내용도 외국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어서 우리 산업현장의 필요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다.

셋째는 빈한한 교육투자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선진국은 GNP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국방의 부담이 큰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년간 GNP의 8%선을 교육에 투자해 왔다. 한국은 공교육비의 투자가 지나치게 영세하다.

교육투자의 영세성은 한국 특유의 거대학교, 과밀학급, 추운 학교, 빈약한 실험 실습시설 등에서 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의 영세성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공교육비의 빈한은 음성적 사교육비의 비대를 가져온다. 최근 사교육비의 규모는 점차 가중됨으로써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6.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4.10.7 서울시교육청 국감시 이첩의원실 보도자료중에서) 사교육비의 증가는 계층간 교육의 격차를 증폭시켜 국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

넷째는 교육정책의 경직성과 교원의 교직 전문성 빈약의 문제이다.

교육을 엄격한 관료적 통제하에 두었던 일제 식민지 교육의 체질에 젖어, 교과서 발행, 입시관리, 각종 정책시행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규제로 획일화해 왔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전반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학교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94년 초 대학정책실로의 승격 때 이미 주장했었던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최근 정부 조직개편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의 축소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경직성의 여파로 공사립 학교간의 차이가

한강을 되살리려면, 먼저 셋강부터 되살려야 하듯이 교육을 되살리려면,
그늘지고 소외된 곳부터 살려야 한다. 눈에 잘 띄는 분야, 생색내기 좋은
분야에만 매달려서는 교육을 되살릴 수 없다.

없으며, 학교간의 특성이 살려지고 있지 못하고,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교직으로 유인하지 못한 것도 교직 전문성 약화의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는 재교육 및 처우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다섯째는 정도 있는 교육혁신 정책의 결여이다.

교육정책의 결실은 적어도 10~20년 후에야 나타나므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여 당대정권의 업적용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교육정책은 화급한 경제사회 문제에 밀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쉽다.

한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개혁정책들이 입안 시행되었지만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점진적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조령모개'로 자주 비판을 받아 온 것은, 과거의 정책들이 즉흥적, 근시안적 편법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입시문제, 교육재정 문제 등 어려운 문제일수록 장기 종합적 근접을 통해서 공론으로 형성된 정도를 기반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한번 출발한 정책은 도중에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로 궤도수정을 한 경우라도 설정된 지향점을 놓치지 않는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은 그 민족적 과제와 관련하여 교육적 과제를 분명히 설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거족적으로 이해를 성숙시키고 지속성 있게 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 제1과제는 친일잔재 청산을 통한 민족정통성 바로 세우기이다. 기간의 교과서에는 친일파에 대한 청산작업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반민특위의 해산과정에 대한 기술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

신문화대백과사전에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미화된 사건이라든지, 독립기념관에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해 전시되어 있다든지 하는 사건 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친일잔재의 뿌리가 깊숙히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정통성을 먼저 확고히 세우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 교육은 출발해야 한다.

둘째는 민족통일의 숙원을 이루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 전체의 이익을 대의로 삼고,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상충된 입장과 이해관계를 화해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민족적 연대의식의 고양에 필요하다.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통일 이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는 국가의 생존적 차원에서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오늘날 한 나라의 전반적 삶의 수준은 국가간 높은 상호의존성을 띠고 있어,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특히 경제 생활에서 의존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체적 생존을 가져오기 어렵다. 이점에서 국가간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는 데 중심이 되는 과학 기술의 첨단 고지 확보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교육과제를 생각했을 때 교육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열린교육을 향한 노력이 학교교육의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

열린교육이란 학습내용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내용을 고정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과 대안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교육이다. 따라서 기성의 관점을 답습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새로운 창의를 자극하고 계발하는데 초점을 둔 교육이다. 학생마다 똑같은 정답맞추기로 획일성을 부추기는 교육, 학교마다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정해진 명령체계에 따라 모든 교사가 똑같이 움직여야 하는 교육은 순응적, 답습적 인간을 조장하는, 한계가 있는 교육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돈이 없거나,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청소년들을 버려 왔다. 감싸안아 함께 가는 교육이 아니라, 속아내어 버리는 교육을 해왔다.

또한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교육답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오죽하면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전국 9백만의 아이들의 머리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 넣고 있어……」(서태지와 아이들, 교실이데아)라고 절규하는 노래가 청소년들을 열광시키고 있었는가?

한강을 되살리려면, 먼저 새강부터 되살려야 하듯이 교육을 되살리려면, 그늘지고 소외된 곳부터 살피야 한다. 눈에 잘 띄는 분야, 생색내기 좋은 분야에만 매달려서는 교육을 되살릴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인기는 없지만, 소중한 분야」에로 정책적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는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

학생마다 똑같은 정답맞추기로 획일성을 부추기는 교육, 학교마다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정해진 명령체계에 따라 모든 교사가 똑같이 움직여야 하는 교육은 순응적, 답습적 인간을 조장하는 한계가 있는 교육이다.

이데올로기가 물러난 국경에는 군인 대신에 과학기술이 보초를 서고 있다. 냉전시대에 우방국 사이에 너그러웠던 기술이전이 오늘날 보호주의의 장벽 속에서 차단되어 있음을 우리는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배출된 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육이 학부모의 교육열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에 도달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현재와 같은 교육체제로 다가오는 세기의 치열한 국가 경쟁을 이겨 나갈 수가 없다.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은 바로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은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할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 정부가 국민의 학습권을 꼭 보장해 주는 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아들 딸의 「교육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㉞

누가 대학생이 되어야 하는가

이 원 영



II

대학 선발의 기준은 각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사람만을 선택하는 과정일뿐인데도, 그 과정이 전인 교육에 영향을 끼치면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와같은 혼란은 미국식 교육제도의 영향이 기존 유교적 관습사회에 스며들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교육은 국가정치 경제적 차원의 욕구에 맞도록 교육 후 상황까지 고려하여 만들어진 국가경영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를 정치경제학자 Recih는 그의 저서 (The work of Nations, 1991)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1946년 미국에서는 교육법이 채택되는데 이 법에서는 이전의 완전고용 (full employment)이라는 용어가 최대한의 고용 (maximim employment)으로 바

뀌었다. 이러한 대규모 생산라인 체제는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저자는 미국의 고등학교 교육제도를 공장의 생산 체제와 비교하고 있다. 즉, 학교는 거대한 공장이며, 교사들은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짜여진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는 공장 노동자와 비교하고 있다. 학생들은 회전벨트 위에 놓여진 부품처럼 정해진 학습 과정을 따라 정해진 체크포인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하면 재정비라인으로 보내어진다. 여기에서 규율이나 질서는 어느 것보다 강조되며, 이러한 체제하에서 학교는 규모가 커야 좋은 것으로 인식, 작은 학교들이 큰 학교로 통합되고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 냈다. 이것은 대규모 생산체제를 위한 완벽한 준비과정이었다.

1957년 소련의 Sputnik호의 발사로 미국 교육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교육관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 졸업
(이학박사)
· 연세대학교 교수
· 「AIDS 바이러스 확인」, 「백혈병 원인균 발견」 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상위권 15%의 학생만이 4년제 대학을 거쳐 조합 관료주의에서도 상위권을 이루는, 이른바 Fast Track을 타게 될 뿐, 나머지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만을 졸업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임금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 대기업들이 정부와의 무언의 협상에 의한 의무 이행으로 중도 탈락자들에게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의 교육관이 국가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의 극대화만을 초점으로 했기 때문이다.

III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미국식 교육관념이 얼마나 응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이를 채택하였다면, 과연 우리도 미국이 노리는 효율만큼은 성공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일지라도 Fast track을 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교유의 사회관례에 의한 또 다른 선발과정에 합격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선발기준이란 학력이 아니고 학벌이 더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작용한다. 물론, 중도 탈락자에 대한 평등한 사회 인식과 대접이란 바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인식을 만든 사람들도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도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후의 삶의 궤도가 좌우되는 것이 학벌인 이상, 학벌 지상으로 치닫는 열기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온가족이 노심초사하는 나라는 없다. 그 의욕과 열성이 대학 교육 결과로 얻어지는 학문이 목적이 아니고, 어느 대학교에 갈 것이냐를 경쟁하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교육열과는 다르다. 사회 의식 구조의 문제가 주범을 이룬 고질적 병폐이다.

이런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의 잘못은 그 형성 역사와 병증이 길고 깊어서 이를 의식하는 이도 많지 않으나, 우리 모두는 주어진 현실을 비판하고 불평할 여유마저 없었다. 따라서 대학생 선발과정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하는 일들은 너무 많지만 우선은 삶의 기로가 결정되는 관문인 만큼 이를 위해서 정규 고등학교에서 자퇴하여 내신등급을 올린대거나,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시간도 최대한 시험을 위해 활용하고, 매해 바뀌는 선발 방법에 따라 재빠르게 적응하게 만들어 놓았다. 우리 모두가 공범으로 말이다.

이렇게 전공할 분야와는 상관없이 어떤 이름의 대학에 갈 것인가를 필사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도록 한 우리의 의식구조는, 주소 기재 습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를 소개하기 위하여는 우선 대한민국,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표현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서구사람들은 이름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소속부서, 소속대학, 그리고 나라 이름을 맨 뒤에 쓴다.

나는 대학원을 미국에서 마쳤다. 그리고 몇군데 나를 소개할 경우가 있었지만 제일 먼저 묻는 말은 —너 무얼 했으며, 무엇을 잘 할 수 있느냐?—이었다. 그 다음이 지도 교수가 누구였느냐 뿐이다. 어느 학교는 묻지 않는 이도 많았다. 가끔은 내 관습대로 학교를 밝혀주면 우선은 인사치레로 좋은 학교라고 하지만 내심은 그래서 어쩐다는 말이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공연히 학교이름으로 포장하여 무엇인가 숨겨야 하는 약점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달랐다. 나 자신도 최소한 처음에는 우리의 학벌위주 관습덕을 토틀히 누리었던 사람 중 하나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내부를 형성하는 제충구조는 철저히 세분되어 파벌주의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선별하는 제도 또한 이진법을 이용한 디지털

본인의 뇌리에 깊게 남는 곳이 하버드대학의 경우였다. 그 대학은 학생 평가기준으로 학력고사 성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상적인 것은 학생의 유머 감각(Sense of Humor)과 신체 적응능력(Physical fitness)가 학력고사와 동일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었다.

방식이다. 예를 들면 우선 남자냐, 여자냐로부터 가부가 결정나고 그 순서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주소 쓰는 법과 다르지 않다. 앞의 외가 조건이 모두 만족된 후에야 본인의 능력이 평가된다.

III

수년전에 KBS의 기획—노벨상에 도전한다.—라는 프로그램 편성팀의 일원으로 세계 우수 대학을 방문하여, 그 학교의 학생 선발과정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물론 각 대학은 특히 전공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독특한 선발 기준이 있었다. 우선 구미제국에서는 의학, 법학, 치의학 등 극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대학원 과정이므로 우리가 말하는 대학 선발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본인의 뇌리에 깊게 남는 곳이 하버드대학의 경우였다. 그 대학은 학생 평가기준으로 학력고사 성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상적인 것은 학생의 유머 감각(Sense of Humor)과 신체 적응능력(Physical fitness)가 학력고사와 동일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유머 감각과 체능을 갖춘 학생이 입학 자격 고사나 수능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유명한 과학자를 배출하고 있는 하버드에서 유머 감각(Sense of Humor)과 신체 적응 능력(Physical fitness)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이유가 세계적 석학을 많이 배출하는 그 학교의 Know how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의 대학생 생활이란 정말로 힘든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친 사람만 수용하는 대학원은 이에 비해 오히려 수월한 과정이다. 거의 매일 지도 교수와 논쟁

을 해야 하고 학생은 항상 창조적인 논제나 해석을 강요 당한다. 이미 교과서나 전문 학술지를 통해 모두에게 알려진 이론이나 발견은 대학생이면, 당연히 숙지해야 하는 기본 지식이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기본 지식 외에 본인의 창조적 의견이나 발상이 얼마나 부가시킬 수 있는나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생은 기존 지식을 평가 분석한 후 본인의 창조적 의견을 부가할 수 있는 소질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체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능력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낙오할 수밖에 없다.

가끔은 학력고사 성적은 신통치 않으면서 사물을 거꾸로 보며 인기를 모으는 학생이 있다. 이들 가운데 체육도 잘하고 사회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하버드대학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에서도 동아리를 형성하는 전통이 있어, 이에 끼게 되면 자랑스러워 한다. 세계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인이 많다는 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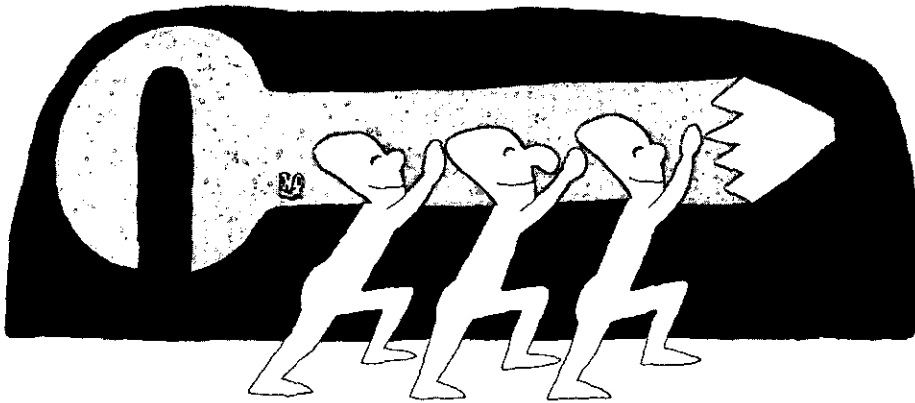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세계화를 해야 한다고 한다. 세계는 결국 아이디어 경쟁을 하고 있다. 각 분야에 기본지식도 갖

추었으며, 창조적 능력이 풍부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적응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우리의 대학 선발과정은 기본지식을 숙지하는 능력은 분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창조능력과 신체적 적응 능력은 평가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이를 모두 발휘하는 학생은 선발에서 탈락되기 쉽거나 통과한다 해도 하위권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혹자는 창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교육제도에 의해 개발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신체적 적응 능력을 타고 나는 것처럼 창조적 능력도 타고 나는 것이다. 창조 능력이 교육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기왕이면 소질을 타고 난 사람이 그 대상일 때 그 교육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마치 지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기존지식 암기능력이 주 평가 기준으로, 지능 특히 창조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끔은 학력고사 성적은 신통치 않으면서 사물을 거꾸로 보며 인기를 모으는 학생이 있다. 이들 가운데 체육도 잘하고 사회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하버드대학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에서도 동아리를 형성하는 전통이 있어, 이에 끼게 되면 자랑스러워 한다. 세계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인이 많다는 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

직업기술 교육의 세계화 전략

장 석 민



교통수단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의 이웃이 한마을 같이 가까워지고 있다. WTO의 출범은 사람, 물자, 자본, 및 기술의 국제 교류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진 공업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제화” 전략을 국가 발전 정책의 지표로 제시하였다.

마련된 국제화 전략이 실천될 거를도 없이 94년 11월 대통령이 APEC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세계화” 구상이 발표되었다. 꿈이어 이러한 세계화 전략으로서 작지만 능률을 지향하는 혁신적 행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발표되었다. 국가발전 전략이 모든 측면에서 세계화의 지표가 될 전망이다.

용어의 혼란이 다소간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세계화의 개념이 “국제화”를 포괄하는 넓은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세계화의 개념도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겠지만, 용어의 개념 규정보다는 우선 국가발전의 지표로서 세계화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직업기술 교육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세계화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세계화의 접근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종래 “국제화”라는 맥락에서도 고려되어 왔던 선진국 지향의 국가발전 방향이다. 즉,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전략 추진의 방향이다. 이러한 발전 전략은 우리나라가 60년대 초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한 이래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비교적 익숙한 것이다.

세계화의 접근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방향은 후진국

- 공주시대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본원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장
- 「기술교육모형연구」,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외



지향의 국가발전 방향이다. 자원 확보 및 수출시장의 개척이란 측면에서 후발개도국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미얀마 등 후발개도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존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위주의 경제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발전된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강화를 위해서도 후발개도국과의 관계 증진을 통한 발전 전략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을 전제로 우리나라 직업기술 교육의 세계화 전략을 생각해 본다. 선진국 지향의 발전 방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직업생산성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국가 전체의 기술 수준을 높이자면, 기술 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기술계 인력의 비중이 너무 낮고, 인력 및 교육의 인문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우리나라는 학제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문교육을 받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오히려 그것이 장려되는 교육제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직업기술 교육기관은 이러한 인문교육의 흐름으로부터 낙오된 소수집단이 마지못해 진학하는 막다른 골목의 교육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또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직업기술 교육기관은 학제상 일관되고 연계성있는 하나의 교육체계로 설계되지 못하고, 인문교육 위주의 기간 학제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위하여 계속 교육을 원하는 국민들로부터도 배척되고, 고도 산업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인력의 양성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되고 있다.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우리 자신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이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세계 수준에 걸맞는 공학·기술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학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인력수요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정원비율에 월등히 높고, 자연·공학계열 정원중에서도 공학계열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는 수요에 비하여 정원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사립대학들이 돈이 많이 드는 공과대학 설치 및 육성을 기피해 왔고, 정부가 이에 대한 투자를 미루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R&D부분에 종사할 고급 두뇌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제도 및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기술인력을 양성, 유도, 활용, 우대하는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적극화되어야 한다.

기술 인력의 질적 향상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로부터 고등교육단계까지 연계됨으로써 계속교육이 가능한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기술향상의 교육 기회를 넓게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 인력의 수준을 기술발전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기능인 (Skilled Worker: 공고졸업 수준), 중견기술자 (Technician: 전문대 졸업수준), 전문기술자 (Technologist: 기술대학 졸업 수준), 공학자 (Engineer: 공과대학 졸업 수준), 과학자 (Scientist: 석박사 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 수준별 인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기술 수준별 그리고 산업분야별 인력수요가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수준별, 분야별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과 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발전

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공급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총량적 인력은 엄청나게 남아 도는데에도 정작 제조업 분야의 기술인력은 매우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급한 나머지 산업기술 연수생이란 명목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하고, 외국 근로자의 불법취업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기술인력의 수준별, 분야별 수요파악과 이에 대응하는 양성 및 공급 대책이 장단기적으로 마련되고 기민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의 직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인의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직무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적용해 나감으로서 현장 직무에 직결된 기술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산업체 현장에서의 직무 교육(On the job training)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기업조직을 평생학습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등—을 구사해야 한다.

후진국 지향의 발전 방향에서는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발전 경험과 전문성을 통하여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후진국과의 호혜적 발전으로 추구하는 관계 중진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인류공영과 세계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후발개도국들과의 동반자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후발개도국을 위한 발전모형의 본보기로 지목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 기대에 적절히 부응함으로써 세계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발전도 기할 수 있다. 세계 13대 무역국가로서 금년에도 수출이 1000 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후발개도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경제발전의 지체 현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과거 시행착오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발전의 토대가 되

었다. 과거의 이러한 시행착오 및 발전적 노력의 과정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발전의 토대로 삼는 한편, 후발개도국들에게 발전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해동안 KEDI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후발개도국 간부들의 국제훈련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서구의 선진국보다 한국에서 배울것이 더 많다는 것이 이들 국제 연수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후발개도국을 위하여는 한국과 같은 중진국 수준의 발전모형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적 위치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APEC에서 한국은 이러한 역할을 맡아서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후발개도국들과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후발개도국의 직업기술교육 발전을 도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차관을 제공하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직업교육 차관을 빌려 쓰는 후발개도국을 위하여 전문가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발개도국의 기술 연수생이나 유학생을 국내에 유치하여 교육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후발개도국의 직업 기술교육분야 전문가에게 국내에서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인 직원의 국내 연수제도 및 대책도 앞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관점에서 최고의 기술인력 양성 정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국가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제3국들과의 호혜적 협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㉓

교사와 어린이들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최 재 인

교직 경험이 20여 년이 되어가는 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교사의 세력권에서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려는 어린이들의 힘과, 일정한 영향권에 두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교사의 힘이 어디쯤에서 평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그 힘이 교사 쪽으로 치우치면 권위주의요 강압적인 방법이 될테고, 어린이들 쪽으로 치우치면 방임주의요 자유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써 왔던 방법은 전자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쁘고 흐뭇하다. 그것은 '열린교육'이란 방법이다. 교사가 일제히 가르칠 필요도 없고 어린이들도 똑같은 것을 같은 시간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교사와 어린이들의 힘 겨루기 갈등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교사는 어린이들의 힘 겨루기 갈등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교사는 어린이들을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고 어린이 개인별로 학습도달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어린이와 부모에게 수시로 알려서 대처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방해만 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학교가 정한 일정한 책임만 다하면 학습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교사와 어린이들은 서로 자기들의 영향을 더 많이 행사하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런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의 경험을 통해 적어 보고자 한다.

1. 옛날 이야기는 재미있어요.

“선생님, 옛날 이야기 안해 주세요?”

2학년짜리 개구장이 종호가 불멘소리로 말한다. 일순간 수업 분위기는 어수선히진다. 이 때다 싶어 한 두 어린이들이 가세하며 예서저서

“선생님, 이야기요!”

“선생님, 이야기요!”

하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진다. 나도 이 때다 싶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네, 1학기 때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었지요?”

“네,”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

교사가 매일 이야기를 1편씩 들려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난 1학기 동안에 어린이들에게 동화 읽기를 권장하기 위하여 전래 동화를 3권 샀다. 그리고 매일 한편씩 줄거리를 간단히 줄여서 들려 주었다. 아무리 쉬운 이야기이지만 재미있게 들려 주려니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번 읽고 말할 것을 미리 생각하며 메모하였다. 그렇게 했어도 막상 이야기하고 나서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지나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다 들려주고 나면 꼭 질문했다.

※ 주인공은 누구였으며, 등장 인물은 누구누구였나요?

※ 보물이 3가지 있었는데 무엇무엇이었을까요?

※ 인물과 사건으로 보아 제목은 무엇이라 하면 좋겠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많이 나오는 말로 보아 중심생각은 무엇인가요?

※ ‘형제’란 무슨 뜻인가요?

등등 이야기에 걸맞게 두 세 가지를 질문하고 맞춘 어린이에게는 바로 학용품을 상으로 주었다. 그랬더니 그 시간이 꽤나 기다려졌던 모양이었다. 지혜로운 몇몇 어린이들은 내가 읽고 이야기해 주리라 생각한 책을 미리 사서 읽은 모양이었다. 잘 맞추는 어린이가 하나 들쭉 늘어나게 되었다. ‘옳지 성공했구나!’ 싶어 요번에는 1권에서 쪽 이야기하지 않고 이 책 저 책 순서 없이 이야기를 선정했다. 그래도 여전히 잘 맞추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아침 시간의 짝막한 이야기 1편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이제는 어린이들이 순서를 정하여 1편씩 들려주기로 약속했다. 조별(능력별 편성)로 하기로 하고 조장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순서를 정해 오라고 했다. 우수한 조부터 빠른 날짜를 택했다. 부진한 조는 우수한 조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뜻에서였다. 날짜와 이름을 적어 왔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곧 시행할 수 있었다. 발표하는 어린이에게는 잘했든 못했든 상을 주고 질문을 몇 가지 해서 방정석의 어린이들이 맞추면 상을 주었다. 문제의 답은 발표자에게 물어 보았다. 발표하는 어린이는 무척 자랑스런 눈치였다. 발표하는 어린이가 그 날의 반장이 되기도 했다.

2. 교과서 노래를 즐겨 부르는 어린이들

우리 학교는 하루에 2~3 번 정도 학급 전체가 모이는 시간이 있다. 오늘 공부한 교과서를 가지고 카펫(넓은공간)에 나와 앉는다. 이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간에 배운 노래를 부르면서 나온다. 노래가 끝나면 다 앉아 있어야 하는 규칙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1 주일을 계속 노래하니 가사와 계이름을 술술 외우게 되었다.

일선 교사 중에서도 교과서 노래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실 교과서 노래가 재미없어서 안 부르는 것이 아니고 TV에서 신기한 노래가 자주 어린이들의 귀를 자극해서 유행가를 즐겨 불렀던 것이 아닐까? 좋은 창작 동요나 어린이 전선 가요도 있지만 교육적이고 학년 수준에 맞는 곡을 선정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다.

나는 어린이들에게 교과서 노래를 자주 부르게 하고, 잘 부르는 어린이들에게 칭찬을 하면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즐겨 부르리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박수치며 부르기도 하고 가사에 맞는 손짓을 써 가며

부르기도 했다. 모일 때도, 흠어질 때도 계속 노래를 불렀다. 유행가 아닌 교과서 노래를…….

3. 적절한 운동과 효과적인 수업

일제 수업을 할 때 보면 5~6분만 되어도 벌써 몸을 비비 꼬며 피로워 하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특히 우리 학교 같이 의자 없는 카펫 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길 때에는 주의집중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말을 한다든지 장난을 한다든지 몸을 비틀 때, 이는 피로움과 무관심의 표현인 것으로 생각하고 양손을 뻗어 지지개를 켜고 다리를 쭉 뻗거나 구부려서 다리의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앞 뒤 사람끼리 허리를 두드려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피로를 풀어 주었다. 주의 집중이 훨씬 잘 되었다.

게임식, 놀이식, 퀴즈식 그리고 열정이 있는 수업을 했다. 그 방법을 교사도 고안하지만 어린이들과 협의하고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니 더욱 효과적이었다. 나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것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교과서와 연결해서 재미있게 수업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반 어린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다.

4. 그리기와 글씨쓰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

저학년 어린이들은 글보다 그림을 더 좋아한다. 틈나는대로 그리고, 만들고, 꾸미고 싶어 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그리기 시간에 작은 여백에 글짓기를 곁했다.

2학년 1학기 즐거운 생활 66쪽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새' 만들기가 나온다. 4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의 새를 만들어 도화지에 붙이고 4명의 어린이들이 의논하여 그림에 적합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미게 했다. 제일 잘하는 조에게는

상을 주겠노라고 했다. 열심히 만들었다. 상상의 새도 나오고, 공룡도 나오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모양도 나왔다. 내가 새라면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며, 새가 되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재미있고 기발하며 멋진 장면이었다.

2학년 1학기 즐거운생활 76쪽을 보면 '색동옷' 꾸미기가 나온다.

각자 색동옷을 만들고 도화지에 붙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재미있게 그리고 이야기를 꾸며 보자고 했다. 옷은 색동옷인데 머리는 요즘 유행하는 머리 모양, 여러 나라의 머리 모양, 과거의 머리 모양으로도 꾸몄다. 결혼하고 싶다는 어린이, 이도령과 춘향이가 되어 보겠다는 어린이 등 재미있고, 재치있는 글들이 많이 나왔다.

5. 선생님과 함께 하는 독서 시간

평상시에 책읽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책읽기를 싫어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TV와 비디오 그리고 CD롬 등 다양한 영상 매체가 많이 개발되면서부터 어린이들의 독서는 점점 재미없는 일이 되고 있다. 물론 어린이들이 만화를 좋아하지만 좋은 글을 다 만화로 꾸미기도 어려운 일이다.

강제적인 방법이지만 하루에 20분 정도 공식적으로 책읽는 시간을 정했다. 의외로 진지하게 책읽는 어린이가 많았다. 이 시간에는 선생님도 같이 읽고 도서관처럼 조용히 읽어야 한다. 독후감을 쓸 필요도 없다. 제일 진지하게 책을 읽는 어린이에게 상을 주었다. 읽은 글을 동화짓기하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읽은 글을 공부하는데 이용하려는 어린이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였다.

6. 꾸지람보다 더 많은 칭찬

하루 중 제일 많이 불러 나오는 어린이는 과연 어

면 어린이일까? 대부분은 잘못하거나, 떠들거나, 유별난 행동을 해서 앞으로 나온다.

“선생님, 정환이가 주형이를 때렸어요.”

“선생님, 정환이가 정현이를 침핀으로 찔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몇몇 개구장이들을 이르는 어린이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거려 당장에 불러 놓고 혼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며 때론 조용히 훈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여전히 그런 일은 반복되곤 한다. 부모에게 알리기도 하고 위협해도 마찬가지다.

집에서도 꾸중과 억압을 받는 어린이들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칭찬했다. 좋아하니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고 잘해 보려고 떠드는 것이라고 친구들 앞에서 추켜 세웠다.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상을 주고 칭찬했다. 그리고 못하는 어린이들보다는 잘하는 어린이들을 더 많이 불렀다. 이제는 상을 타야겠다고 다들 열심히 노력했다.

7. 세심한 관찰과 기록

평상시에도 딸이 별로 없던 선근이가 오늘은 결석했다. 웬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쉬는 시간에 전화했다. 아무도 없는지 통화할 수 없었다. 다음날 학교에 왔다. 표정이 몹시 안 좋았다.

“선생님, 선근이 왔어요.”

여러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 왈카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끼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어디 아프니?”

고개를 가로로 저었다.

“아버지 일 때문에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여전히 말이 없었다.

“선근이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어제 학교에 못 나왔어요. 우리 위로 합시다.”

조용해졌다. 그리고 선근이도 울음을 그치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방과 후에 그날 공부한 결과를 보고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빨간 글씨로 써 놓는다. 그러면 다음날 각자 자기 것을 가져다가 보고 틀린 것을 고쳐서 다시 제출한다. 나는 결과를 내 장부에 적고 공통적으로 이해가 안 간 부분을 다음날 전체 모임때에 다시 설명한다. 그래도 모르는 어린이는 부모에게 알려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생활하고 나면 은몸에 힘이 쭉 빠지고 기진맥진해진다. 바쁘고 힘든 하루 생활인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경험을 통해 볼 때 교사는 어린이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성립되면 교사와 어린이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리라고 본다.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 또는 의지 여하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1)



최재인

- 인천교육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과 졸업
- 서울 영훈국민학교 교사
- 「열린교육의 이해」(공저)

한국인의 도덕성, 그 진단과 처방



· 김석준 · 이화수 · 서중석 · 김인회
· 조성숙 · 정범석 · 편광범 · 조난심

한국 사회의 부패구조와 도덕성의 수준

김 석 준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기획처장
- 「한국산업화 국가론」,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

I.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 엽기적인 살인사건, 그리고 세금도둑사건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다. 놀라다 못해 이제는 무감각하기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쩌다 한국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탄식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원인들을 다양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분노, 비난, 체념, 무감각 등과 같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새로운 한국사회를 이룩하여야 할 때다. 지금과 같은 상태의 한국을 결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 일은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의 도덕성이나 의식문제를 함께 통합적으로 보면서 접근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산업화 과정의 정·경·관 유착구조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온 반면, 불균형 성장과 부정부패를 구조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음을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다.

어떻게 부패구조를 와해시키고 국민 개인들의 도덕성을 바로 잡아가느냐의 과제가 시급한 문제이다. 문민 정부 출범 이후 정경관 유착구조를 붕괴시키기 위한 개혁작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나 교육개혁을 통한 전인교육과 도덕성 확립문제는 아직 국민들에게 큰 진전이 없어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매우 높다.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차례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II. 부정부패의 구조적 측면

어느 사회에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질서가 급격한 변화를 겪거나 권위주의 체제가 구조화하는 경우에는 부패의 정도가 더욱

특별기획

대형화, 구조화된다. 많은 남미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부정부패로 인해 막대한 외국차관을 생산적인 경제투자에 쓰지 못하고 정치 체제의 유지비용이나 지배자의 치부에 악용하여 결국에는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고 나아가 국가 흥망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고 있다. 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보고 있다.

한국 사회도 지난 30여 년간의 개발독재 체제로 인해 급격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 뒤에는 부정부패가 구조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보아왔다. 일제식민 통치, 미군정통치, 한국전쟁 등과 같은 남다른 역사를 겪으면서 국내민간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 당시 정부의 선택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근대화 추진 초기 취약한 민간기업의 경제적 기반 때문에 정부는 각종 공기업이나 일제 식민 적산기업을 직접 운영하여, 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민간기업에 각종 특혜와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을 육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의 성장도 정부의 특혜나 공기업 불하와 같은 긴밀한 정부와의 관계유지 없이는 불가능 하였다.

정부는 정부대로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만큼 결여된 정당성을 ‘조국 근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업적에 의해 보충하는 한편, 지속적인 정권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기 위한 권위주의 체제유지 비용의 조달을 위해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한편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니고 있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면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정부의 특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유지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특히 정부가 금융, 재정, 시장, 생산 등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을 장악하였음은 물론, 외국 자본이나

기술의 도입 및 노동자의 활동규제권까지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정부에 대한 예측과 정·경 유착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정부가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막강한 권력을 제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경 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는 구조적인 먹이사슬을 형성하게 되었다. 기업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정치자금의 제공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기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일상화하게 되었다. 기업이 부담했던 각종 준조세도 정·경 유착을 정착시키는 장치였다.

이처럼 30여년간 한국사회에서 정·경·관 유착관



계를 통해 개발독재체제를 유지해 오던 부패구조는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로 전환되면서 하나씩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부터 정치자 금수령을 거부하고 재산공개를 솔선수범 하면서 시작된, 공직자재산공개를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단절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기업이 제도적으로 정치자금을 낼 수 없게 되고 각종 준조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경관계의 독립성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개정 뿐만이 아니라 통합선거법제정, 정당법개정, 및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교육개혁이 담보 상태에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개혁의 내용과 성과가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도덕성의 타락을 우려하는 국민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교육개혁의 프로그램을 설정·추진하고 교육자와 국민은 나름대로의 교육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겠다.

국회법개정은 정·경 유착의 구조를 단절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고 내부 고발자 보호법까지 제정된다면 제도적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일대혁신이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부정부패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개인적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일이다. 최근에 발생하는 세금도둑사건들도 정·경 유착의 부패구조가 낳은 것이 아니라 일부 공직자나 법무사의 범죄행위가 유발한 일탈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겠다.

III. 부정부패의 개인적 성격과 도덕성

부정부패의 개인적인 측면이란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탈행위로서의 부패는 개인의 도덕성의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사회의 윤리가 바로 서고 법 질서가 안정될 때에는 개인의 도덕성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사회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법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 수시로 변경되어 불안할 때에는 개인의 도덕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한국에서도 정·경 유착이 낳은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국가법 질서를 문란시키고 탈법·편법을 일삼게 함으로 국민들의 윤리나 법의식을 혼란시켜 도덕성을 약화시키고 범죄를 빈번히 유발하게 됨을 지난 30여년간 국민들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아 왔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범죄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돌리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

았다. 도리어 범죄자를 잘못된 사회의 제물로 동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기는 어렵게 되었다. 만일 인천과 부천의 세금도둑들이 그 책임을 사회의 횡금만능주의나 개발년대의 불균형적 배분정책때문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존과 일당이 구속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강변하여도 국민들의 냉소만 받게 된 데에는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구조적인 부패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개인적인 범죄행위를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단지 민주화하는 과정에 새로운 민주질서와 과거의 유산이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전환기적 현상이 기승을 부릴 뿐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개인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도덕성과 의식의 문제이다.

새로운 문화, 윤리, 가치, 도덕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로서의 부패가 더욱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세금도둑사건에서 보듯이 전산화를 통한 정보관리체제가 미흡하고, 세금관계담당자나 감사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결여를 해소하는 제도적인 조치도 물론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일은 관료 개개인의 도덕성과 공직관이 바로 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존심 회복 운동이나 소수의 내부 범죄자를 스스로 공직으로부터 축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고발자보호법의 제정이다. 시행초기에는 다소 상호불신이나 지나친 무책임한 무고 행위의 반발이 염려되기도 하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일은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도덕성 확립운동이다. 대다수 건전한 국민들의 도덕성의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소수의 공직자나 국민들의 도덕성의 수준은 매우 낮다. 특히 최근 X세대의 출현이나 가치관의 혼돈에 따른 소수의 잘못된 개인주의는 사회윤리와 도덕성 회복을 통해 치유해야 할 일이다. 국제화, 세계화와 더불어 마약이나 범죄가 먼저 세계화하고, 문화적인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퇴폐 상업적인 외국 문화에 감염될 경우 정신세계의 황폐화와 도덕성 기준 상실은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IV. 도덕성 확립과 교육개혁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정보사회로 전환하는 지금,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보사회가 자본사회 또는 자본주의(informationism)가 지배하는 사회인 만큼 지식과 정보를 생산, 확대 재생산하는 교육의 역할은 21세기의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의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아 도덕성을 확립하면서 전문성을 지니는 창의적인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산업사회를 발전시켰던 개발독재의 부패 구조가 붕괴되고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전인적 전문교육의 체계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만의 과제이다.

미국 클린턴 정부의 고아 부통령이 중심이 된 국가혁신팀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개혁정책이 교육개혁 프로그램이고, 일본에서 일본의 경제기적을 달성한 일본주식회사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일본을 재건설하고자 하는 오마에 겐이치가 중심이 된 헤이세이

유신모임'의 대표적인 국가혁신정책이 연방제와 교육개혁임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21세기 세계의 선두자리를 다투는 일본과 미국이 교육개혁을 통해 정보사회를 지배하겠다는 점을 우리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교육개혁이 담보 상태에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개혁의 내용과 성과가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도덕성의 타락을 우려하는 국민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교육개혁의 프로그램을 설정·추진하고 교육자와 국민은 나름대로의 교육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겠다. 교실과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일반에서 모든 국민이 교육의 주체로 나설 때 교육혁명은 꽃피우게 될 것이다. 구조적인 부패는 사라지고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세계 속의 한국을 건설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㉞

한국 정치의 낙후성과 인간상실의 교육

이 화 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미국 오레곤 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아주대학교 정외과 교수
- 「혁명의 기원: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비교 연구」 외

정치: 사회문제의 핵심

지금 우리 사회는 비도덕과 부조리가 팽배해 있다.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가 극치에 달해 있고 인간성이 메말라 버린 젊은 세대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소리가 높다. 도덕교육, 윤리교육이 부족하다고도 주장하고 교육이 잘못되어 소년 범죄가 많고 지존파가 나타났고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천인공노할 박한상 같은 청년이 나왔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의 혼돈과 부재, 열악한 교육환경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결여 등의 요인들이 흔히 사회문제의 원인들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사실보다 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가난을 퇴치하지는 않음에 경제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지배가치의 왜곡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외양적인 불량위주의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위에 제시된 요인들이 우리사회의 병리현상들로 파생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질적 풍요로움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해 온 지금까지의 우리 상황이 인간성 상실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많은 유럽에서도 물질만능적 가치가 지난 몇 십년간을 지배해 오다가 80년대부터 비물질적, 탈산업사회적 가치로 전향되고 있다고 한다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아무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발전단계의 수준과도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 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연출시킨 핵심적 요인이 정치라고 하는 데에 더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의 정치는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거의 모든 분야를 비전문인으로 구성된 정치권의 통제하에 두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모든 것을 희생시킨 통치이념과 정책으로 인하여 결국은 개성이나 인격은 말살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적 병리현상의 핵심적 원인은 정치였다.

특별기획

제 모습의 정치

정치란 “부족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통 정의한다. 자원이 넉넉하여 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을 모두 줄 수 있거나, 또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공급의 균형이 저절로 조절이 될 수 있다면 정치란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인구는 증가하고 물자는 부족하여 경쟁과 갈등이 심하여지므로 자원(혹은 가치)의 배분을 법과 제도 혹은 정책에 의하여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9세기의 야경국가에서 20세기에 들어와 국가가 조세를 통해 부담을 배분하고 지출에 산을 통해 부를 재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누진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다시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부이며 그 정부를 운영하는 권력의 핵심이 정권(political regime)이다. 그러므로 정권의 통치이념에 따라 정책을 수립, 집행, 적용하게 된다. 그 정권의 하는 일이 국민들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정권자의 위치를 획득하

는 과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다. 정통성이 있는 정권인 경우에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법적, 제도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저항없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대국가는 국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지켜주고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과 동시에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직업활동을 하도록 돕고, 부와 가치의 균등한 분배 및 재분배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정책이며 제도이다.

정치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탈콧 파슨즈에 의하면 정치는 목적달성의 기능(goal-attainment function)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치가 우리 나라가 표방하고 있는대로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고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자유, 민주, 복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만 나간다면 제 모습의 정치가 될 것이며 정권이나 정부도 제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인간상실의 부도덕한 정치

정권이 정통성이 없고 신뢰감이 없으면 국민들은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며, 정권이 부패하고 부도덕하면 정부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사회기강이 흐트러지고 구석구석 병이 들게 된다.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핵심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정권이 정당하지 못하면 온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팽배하게 되고, 범죄가 범람하고, 교육의 효과도 크게 절감하게 된다.

사회를 주도하는 정치가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으며 정치가 썩고 병들게 되면 인간성이 건강할 수 없으며 병들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정통성이 없으므로 정권유지를 위하여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하여



는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물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방조, 득인할 수 밖에 없다. 정권의 핵심인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면 그 참모들, 그 다음은 정부의 고위직, 중위직, 하위직의 순으로 권력의 비호 하에서 부정과 부패의 행위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정·경 유착과 관료의 부정부패는 완전히 구조화되게 마련이다. 검찰이나 경찰같은 법집행 기구가 부패하게 되면 인신매매단, 절도단, 강도, 살인자, 사기꾼, 가정파괴범도 돈 받고 뒤로 슬쩍슬쩍 놓이주게 되어 범죄가 범람하게 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 세금 도둑, 뇌물수수, 횡령, 이권개입 같은 불법, 탈법적 행위도 눈감아 주거나 은폐하거나 관용하여 주게 된다. 결국 정부가 썩으면 전 사회가 부패하게 되고 장기간 계속되면 완전히 관행화되어 썩은 냄새도 맡을 수 없도록 마비되고 만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에 한국병을 치유해야 된다는 슬로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너무도 시기 적절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적산불하부터 시작하여 부패구조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계속적인 정치파동을 조장하면서 독재화되고 부정선거로 인하여 정통성이 약화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3·15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4월 혁명으로 정권이 붕괴되었던 것이다.

부정선거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행사인 투표를 훔치는 행위이므로 부정 중의 부정행위이다. 따라서 이 정권 12년 기간의 정치권력이 타락하고 정부가 부정부패로 마비되어 버리게 되었다. 그 후 짧은 기간의 정치권력이 타락하고 정부가 부정부패로 마비되어 버리게 되었다. 그 후 짧은 기간의 민주당 정권을 지나 군사정부가 들어섰다. 군사정권은 쿠데타를 통한 탈법적 방법으로 수립되었으므로 정통성이 없으며, 독재로 통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보기관과 언론통제로 국민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동결시키

고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부정과 부패, 부조리로 전 사회를 병들게 하였다.

정권유지를 위하여는 정·경 유착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의 비호와 묵인하에 공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고 정권과 정부의 비도덕성은 공개되지 않았을 뿐, 구조화된 부패와 비리로 병들게 만들었다. 대통령과 그의 친족들은 물론 정권 주변의 인물들은 혈안이 되어 부정축재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권력의 핵심인 정권 자체가 정통성이 없고 부도덕한 것이었으므로 기성사회는 구석구석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수대교의 붕괴, 인천 부천시의 세도, 상무대 비리, 지존파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수십년간의 정치적 부패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각각 독립된 사건들이 아니다. 우리의 정치는 개인과 개성,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부도덕한 권력만으로 자행되어 온 구조화된 악이었다고 해도 잘못됨이 없다.

부도덕한 정치가 지배해 온 교육

가정교육이 상실되고,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4지선다형의 답안 고르기만 강요하고 있는 교육현실은 청소년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다. 성장위주로 다른 분야는 우선순위의 뒷전에 밀려났을 뿐 아니라 기성사회의 인간성 상실이 교육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학교교육마저도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앞서야 한다는 지나친 경쟁심리에다 부정과 비리 현상이 교육현장까지 침투해 있었음은 요사이 일어난 학교 비리사건들로 잘 증명되었다. 학부모들의 돈봉투, 학교 재단이나 당국자들의 비리,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도덕과 윤리가 먹혀 들지 않는 교육현장이 되고 말았다. 사회에 팽배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부도덕성은 학교 주변의 환경까지 폭력물과 음란물이 범람하는 부도덕의

온상으로 만들었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입시교육의 선상에서 암기식 교육의 압박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은 사실상 커리큘럼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학교에서 인간성 발전을 위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활용하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심하여 계속할 수 없다고 한다.

교육당국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몰매를 치는 상황이 우리의 교육현장이다.

입시교육을 중심으로 한 부모들의 욕심이 일찍부터 발동하여 국민학교 때부터 아동들을 휘몰아쳐야 하고 몇개씩의 과외공부를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들은 부모들과 대화하고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데다 학교에서는 좋건 싫건 주입식으로 떠먹이는 교육으로 학교의 명예를 지키고 업적을 올려야 된다는 강박감에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단기적 성장 업적 위주의 불량적 사고가 학교교육마저도 지배해 왔다. 아주대 학교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학력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성적도 떨어지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기대 이하로 침체되는가하면,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수업성적도 계속 잘 유지하고 학교 생활에도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많은 돈을 넣어 과외를 시켜 대학에 넣는다고 해도 원래 인성의 바탕이 약하면 곧 부실함을 드러내고 중·고교 시절을 거쳐 종합적으로 생활을 잘해 오면 계속해서 잘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봉사, 책임감, 협동심, 인간관계, 독창성, 창의성, 자율성 등 인성으로써 갖추어야 할 많은 것들을 교육하고 내신에 반영하는 것도 인간성 교육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의 대부분을 학교에 맡기고 관주도적, 정치주

도적 교육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넓은 범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범법이나 탈법적 행동을 감독하는 정도로 정치나 관의 주도를 줄여야 한다.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해 합리적인 정치풍토가 정립되고 사회기강이 확립되어야 하며, 더구나 인성,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성수대교, 도세행위와 같은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실함이 팽배해 있으며 지존파와 같은 사회범죄,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위들은 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

입시교육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도덕교육, 윤리교육, 인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정치부터 시작하여 기업풍토, 가정 및 사회풍토가 지금까지처럼 부도덕과 부실, 불신으로 가득차 있는 한 교육의 성과는 제대로 기대할 수 없다.

정치가 모든 사회분야를 주도하고, 잘되게도, 잘 못되게도 하는 핵심적 힘(coreforce)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치개혁과 교육개혁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필요조건이며 교육개혁은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㉞

역사는 국민 도덕의 거울

서 중 석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한국현대의 민족문제 연구」

II

우리는 1910년 이후의 근대사 현대사를 제대로 연구하지도 교육하지도 못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근대 이후의 역사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 나라를 빼앗겼고 국토가 분단되었기 때문에도, 더욱 정성들여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그러하지를 못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유사 이래 한번도 외족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근대민족국가를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시기였던 20세기 전반기에 일제의 강점하에 놓여 있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물게도 1천년 이상 한 지역에서 단일민족국가를 발전시켜 온 역사를 가졌는데, 현대사회를 발전시켜야 할 20세기 후반기에는 남북이 극도로 대립한 분단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근대적인 인간관 사회관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시민혁명을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시민혁명을 겪지 못하였으면, 과거 역사의 청산이라도 한번쯤은 분명히 하였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그것도 하지 못했다.

조선말 일제시기의 잘못된 역사가 단절되지 못하고 그 뒤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이승만독재, 유신독재가 청산되지 못하고 계속 뒤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시민혁명도 과거의 청산도 없었으므로 근대적인 규범이나 도덕이 자리잡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에 덧붙여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민족분열정책은 한국인의 의식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특별기획

일제는 대일본제국이 계속 강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한국인을 노예 상태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때문에 민족해방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정치적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한편, 지

독히 한국인을 차별대우하면서도 내선일체라는 구호를 내걸고 소위 동화정치를 강력히 시행하였다. 민족말살정책이었던 동화정치는 일제말에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황국신민화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황국신민화운동에 많은 한국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명사와 유지들이 가담한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혼란을 크게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컸다. 윤치호, 김활란, 최남선, 최린, 이광수, 주요한, 장덕수 같은 이들이 징용, 징병, 정신대 나가는 것을 훌륭하고 장한 일로 독려하면서, 우리는 일본인이 되는 것만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라고 역설할 때, 한국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었을까. 가령 이광수가 다음과 같이 외쳤을 때 말이다.

“나는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연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 버려야 한다고. 이 속에 진정으로 조선인의 영생(永生)의 유일로(唯一路)가 있다고, 그러므로 조선인 문인 내지 문화인의 심적 신체제의 목적은 첫째로 자기를 일본화하고, 둘째로는 조선인 전부를 일본화하는 일에 심력(心力)을 바치고, 셋째로는 일본의 문화를 양양하고 세계에 발양하는 문화전선의 병사가 됨에 있다. 조선문화의 장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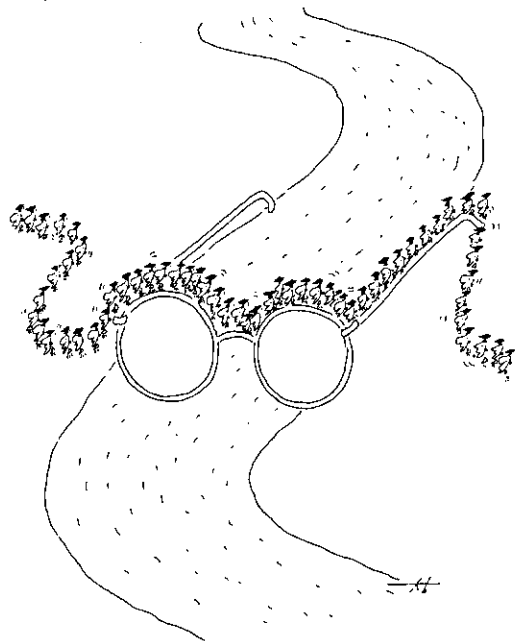
2

해방이 되었을 때 친일파를 처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새 조국의 건설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고, 민족의 기강을 세우는 것은 민족의식을 올바

로 갖게 하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규범 곧 도덕을 확립하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와 연관이 있었던 한민당은 침묵으로 대답하였고, 자신의 지지자 속에 친일파가 적지 않았던 이승만은 친일파는 우리 정부가 세워진 뒤에 처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한테 말길 순 없다는 논리였다. 김구는 이승만·한민당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친일파 제거가 늦어지자, 강력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친일파들은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기구나 경제계 등 도처에서 강력한 발판을 갖고 있어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에는 막강한 세력이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되자마자 제헌국회에서는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매진하였다. 늦었지만 민족의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친일파들은 서울운동장 등에서 반공구국열기대회같은 것을 열면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려는 것은 공산당을 즐겁게 하는 처사”라고 외쳤다. 비슷한 시기에 이광수는 [나의 고백]을 써 자



신의 행위를 합리화시켰고, 나아가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것은 민족분열을 일으켜 공산당만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제헌국회는 친일파의 망동에 개의치 않고 반민법을 만들었고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정초부터 박흥식, 최린, 최남선, 이광수, 김연수 등을 체포하였다. 반민특위의 추상같은 활동은 열렬히 호응받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반민특위의 활동이 헌법 위반이라는 똥판지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949년 6월 6일 중부서장 인솔하에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피변이 일어났고, 다음날 이승만대통령은 AP기자와의 단독회견에서 “특경대 해산은 대통령 자신이 직접 경찰에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민특위가 습격당하지 20일 후인 6월 26일 김구가 경교장에서 암살되었다. 김구의 암살범 주변과 그 배경이 친일파들이므로 볼 때, 이 사건은 반민법을 유아무야로 만들려는 노력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군사법정에서 당당하게 “틀림없이 선생은 (남북협상·평화통일을 주장하므로) 국가의 반동이라고 생각하였다. 국가를 위하여 선생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단정했다.”고 말한 점이다. 친일파 문제와 극우반공주의와의 관계를 여기에서도 읽을 수 있다.

많은 지식인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국가의 기강이 서지 않은 것은 반민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와 민족의 정기가 바로잡히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도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정치는 정상배나 기회주의자, 권력승배자의 것이 되고, 경제행위도 막스 베버가 말하는 합리성보다는 권력과의 유착 속에 특혜같은 것을 얻어내려는 데 눈독을 들이게 된다.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 받는 세상이 된 것이다. 남을 누르고 모질고 영악하게 사는 것이 치세의 비결로 정착된다.

반민법 파동 후 독립운동가들은 사찰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모진 고생을 감수하였다. 남산 뒤 해방촌에서 근근히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해방 후 친일파 경찰한테 다시 고문당했던 것보다는 낫다고나 할까.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은 빈곤에 시달리며, 원호청의 알선으로 고작 수위같은 일을 맡아 했다. 부모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으니, 배우기는 커녕 일체의 감시 아래 호구책도 꾸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친일파들은 자유당 말기에 더욱 극성을 부렸다. 자유당의 핵심간부들이 이재학, 한희석, 장경근, 김의준 등은 모두 친일파였다. 정부 또한 비슷하였다. 1960년 1월말 현재 11명의 국무위원중(외무부장관은 결원이었음) 6명이 친일파였고, 4명도 금융계와 의료계에 근무하였으므로 일체때 혜택받은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한 명인 최인규 내무부장은 일체때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와같은 친일파 세상이었으므로, 이들은 권력에 맹종하였고, 갖은 어부를 다 하였다. 친일파는 공공윤리나 양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았고, 처세에 민감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이승만과 이기붕을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양심의 가책도 없이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은 이상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었을는지 모른다.

3

요즈음 12·12쿠테타에 대해서 세론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경찰이나 공무원의 항명과는 달리 국가의 무장력인 군부 반란은 지방에서의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다 내란이라고 가르쳤는데,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내란이 아니라니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는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는 농담 아닌 농담도 듣게 된다. 12·12와 5·17, 국보위 설치의 과정을 보면 삼척동자라도 국가 권력의 탈취라는 것을 알 수 있잖느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12·12쿠테타는

과거의 역사를 청산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4·19가 혁명인것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는 새 출발이 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헌을 파괴하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획책한 부정선거 원흉 등을 단죄할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언론에서 수없이 역설한 혁명과업이란 다름 아닌 부정선거 원흉의 처단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가리켰다.

그러나 언론의 끊임없는 채찍에도 불구하고 장면 정부는 혁명과업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다가, 우리 역사에서 고려 무신란 이후 최초로 군인들의 쿠데타를 맞게 되었다. 5·16쿠데타 정권은 4월 혁명의 과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았지만, 쿠데타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였고, 부정선거 원흉, 부정축재자 처벌도 반민법 시행처럼 유아무아하게 만들었고, 공화당에는 자유당 관계자들이 적지 않게 들어왔다. 그 반면 혁신계는 흑독하게 다루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다시 헌법을 유린하고 들어선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는 사람이 많다. 자유인에게는 악몽같은 세월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5·16 쿠데타 이후 18 년은 한마디로 행정독재의 시기로, 교사단체건, 노동단체건, 협동조합이건 모든 것이 관제화되었다. 인간의 자율적 판단이나 시민의식은 자랄 수 없었다. 산업은 근대화되어 갔지만, 인간의 의식은 근대성이 결핍되어 있었고, 정신세계는 황량하였다. 법의 지배, 대의 정치가 왜곡된 속에서 성장 제일주의 아래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10·26은 직접적으로는 유신체제를 단죄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것이 어려우면 민주화를 이룩하고 시민사회를 성숙시킬 계기였는데, 12·12 쿠데타는 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국가와 사회의 기강은 또 다시 큰 벽에 부딪혔다.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사에서 근대성을 확립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규범을 어지럽히고 도덕을 마비시키거나 혼란에 빠지게 했는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규범을 바로 세우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반드시 확고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당국자들은 12·12 쿠데타에 대한 세론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앞에서 12·12 쿠데타가 유신체제를 청산하는 방법이었던 민주화로의 방향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하였거니와, 도덕성의 회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국가와 사회 모두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시민사회를 성숙시키는 데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근대적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모두의 개혁이 요구된다.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양식과 상식이 제자리를 잡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라도 폭넓게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부끄러운 역사라고 하여 덮어두려고 해서는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냉엄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가치관이 혼란되고 도덕성이 부재하게 된 역사적 연원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은 해방 50년이 되는 해지만, 성숙한 자세로 새 출발을 한다는 다짐을 단단히 할 때, 그 사회는 건강성을 지닐 수 있다.



교육적 부패 구조와 그 대안

김 인 회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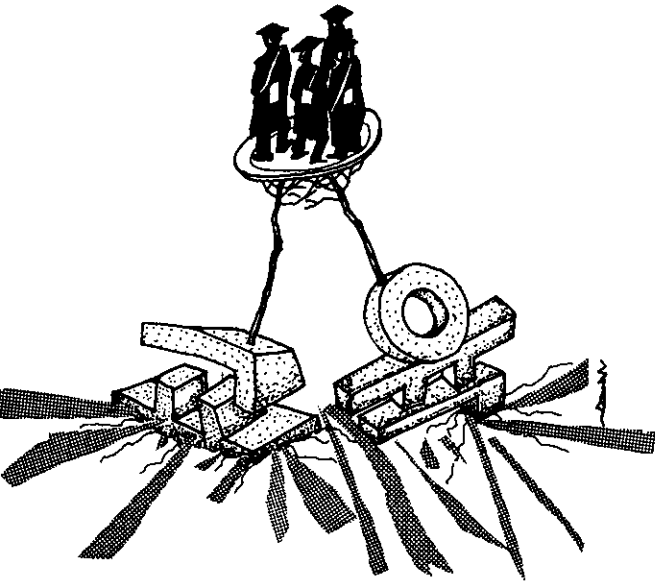
“김교수, 이렇게 만난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 제발 방송이나 신문에서 교육학이나 교육학자 씹는 일좀 삼가쇼. 같은 전공으로 먹고 살면서 서로 감싸줘도 모자랄 판인데 한국 교육이 잘못된 책임이, 마치 교육학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면 어쩍니까?” 지난 해 교육학회 무슨 위원회 모임에 나갔다가 회의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모인 사람들끼리 농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당한 봉변이다. 학회 활동을 통해 얼굴을 안지도 20년도 넘는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 벗할 정도로 친한 사이도, 가까운 나이도 아닌 처지의 젊은 교수로부터 힐책을 당한 셈이다.

“우리 교육학계에서 누군가는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체면이 살 것 같아서……”

우물쭈물 농담 비슷한 변명으로 어색해지려는 분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내게는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짧은 대화이었다.

우리의 교육이 과연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의 부패가 과연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는지, 그리고 부패의 구조와 교육의 구조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 또는 구조적 연계가 있는지 하는 문제를 잠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 이 글의 청탁 의도라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보니까 대뜸 생각나는 일이 앞에 소개한 짧은 대화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나라의 교육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거나, 교육과 관련된 부패구조가 만연해 있다거나 하는 일반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구조적 책임론은 자칫하면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니 부패나 부정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결론을 유도해 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구조 때문에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석차를 서열화하고, 대학 입시에서 내신등급을 반영하고, 그러한 평가체제와 대학 정원체제 및 입시 구조 때문에 교액 비밀 과외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러한 교육적 구조가 자녀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녀 교육비 부담 비율의 상승 구조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일견 그럴 듯하게 보일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런 설명 속에는 일부 현실에 가까운, 따라서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일부분의 실증적 진실이 항상 구조의 기능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과된 진실들에 대한 논의를 피하면서 실증되는 사실들만을 강조하는 선전이나 설득은 때때로 불순한 동기를 감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구조 쪽에다 일차적 책임을 전가하는 수법은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책임을 변명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또는 개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구조가 잘되었다는 소리인가,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한 부패가 사회 구조와 무관하단 말인가 하는 반문이 튀어나올는지 모른다.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겪는 일이다. 이런 식의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숨어 있기 쉽다. 첫째는 흑백론적 사고로 만사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전제이고, 둘째는 잘못의 책임이 소재를 나 아닌 다른 대상에서 먼저 찾겠다는 동기이다.

심리학 개론에서 배우는 투사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교육계에서 애용되어 온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교육의 잘못을 교육학 이외의 대상들에게 전가해 왔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교육 경쟁열'이 가장 오랫동안 애용되어 온

희생양이었다. '교사들의 자질 부족과 도덕성 결여 또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도 지난 20여년 동안 단골 반찬 노릇을 했다. 1천 5백명 교사를 한꺼번에 내어쫓은 때에도 바로 이 메뉴가 활용되었다. 그것도 교육학계 출신의 장관 손에 의해서다. 비교적 늦게 등장한 책임 소재가 '교육의 잘못된 구조'다. 아마 5공 말기에 교육개혁심의회가 생겨날 때부터 일 성싶다.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육학 내지는 교육학계에, 한국 교육이 잘못된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육학계 동지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 볼 수 없었다. 아마도 교육학마저 우리 사회에서 유행해 온, 우리의 학교 교육의 산물인 흑백론적 논리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때문인지 모른다. 책임 소재가 한국의 교육학에 있다고 한다는 말은 곧 다른 모든 분야의 잘못들에 대해서까지도 교육학계가 몽땅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이라는 불안이 있었을 수 있다. 제발이 저런 도둑이 결국 자복하고 말았다는 사회적 평가가 두려웠을 수도 있다.

서론적 논의는 그만하고, 교육적 구조와 부패구조 문제로 들어가 보자.

교육적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논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 나라의 교육 구조가 부패 발생의 온상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교육 구조때문에 부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와 거의 비슷한 교육구조를 견지해 온 일본 사회의 경우 부패 구조가 우리와 같지는 않아 보인다. 사회부패의 구조적 전통과 역사가 오래기로 유명한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의 교육 구조는 우리 나라와 다르다. 그러니까 부패와 구조와 교육 구조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교육구조와의 관련일 뿐 교육 구조 일반과는 무관한 애기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의 교육 구조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어떻게 뭐가 다른가가 문제일터인데 내 생

한국 교육을 기업에 비유한다면 경영자들과 소비자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다. 교육 소비자인 우리 나라 사람들 일반은 물론 교육 경영자라 할 교육 관료 및 교육 전문가들, 그 중에서도 교육학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이 다른 나라 경영자들이나 소비자들과 근본적으로 같지 않은 것이다.

각에는 구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채용하고 그 구조에 적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을 기업에 비유한다면 경영자들과 소비자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다. 교육 소비자인 우리 나라 사람들 일반은 물론 교육 경영자라 할 교육 관료 및 교육 전문가들, 그 중에서도 교육학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이 다른 나라 경영자들이나 소비자들과 근본적으로 같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같지 않은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학습이나 훈련을 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교육이라는 일의 핵심을 학습 바로 그것이라고 확인해 왔다. 그런 교육관의 진원지는 바로 우리 교육학계임을 누구도 부정 못한다. 교육이 학습일 때의 교육은 경쟁할 수 있는 일이 된다.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학습=교육 구조는 필연적으로 경쟁 구조일 수밖에 없다.

학급 내에서 학생들 개인 간에 석차 경쟁이나 교사들 간의 진급 경쟁, 그리고 최근에 세계화를 위한 국가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서열다툼 경쟁이라는 점에서 닮은 꼴의 구조를 전제한 것이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기준이 객관적 서열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경쟁 구조다. 학습의 결과 밖에는 비교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면 교육이라 말할 수 없는 단순한 경쟁 구조일 뿐이다. 교육적 구조와 관련된 부패는 교육을 학습으로 착각한, 그래서 학습 결과의 경쟁을 교육 경쟁으로 착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그러면 학습과 뭐가 다른가하고 물겠다고, 교육의 결과는 학습의 결과처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확일적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내용이 아

나라 사람과 그의 삶의 총체적 무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교육철학자 리드(L. A. Reid)가 한 말 중에 "교육의 결과는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당신이 학습한 내용 전부를 잊어버린 후에도 남는 그 무엇"이라는 구절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교육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나아가서는 그런 교육적 영향을 덜 받을수록 좋은 것처럼 생각하도록 국민들에게 선전했다.

우리 교육은 학습에만 치중해 온 내용의 비중을 대폭 조정해야만 소생할 수 있다. 몇 년 안에 소비자들 스스로가 살아 있는 교육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눈뜨게 될 때, 교육 개방 속도에 따라 여차피 조만간 나타날 일인데, 우리의 부패하고 편협한 교육 기업은 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부패가 만약에 구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구조적인 원인을 알고 있을 전문가들에게도 그 부패의 일부 책임이 돌아가야 옳다. 알면서도 침묵했을 때에 전문가는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옳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구조가 부패

를 유발하기 쉬운 구조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교육계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얼마만큼씩의 책임이 돌아간다. 하물며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부패를 앞장서서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는 두말할 나위조차도 없이 역사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때가 올 것으로 본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의 교육 구조의 산물이면서 또한 사회적 부패 구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일컫는, 고액과외와 풍토가 바로 그런 부패의 희생자 집단 출신인 이른바 명문 대학 학생들에 의해 재생산되어 왔다는 점이다. 명문 대학들의 학생운동이 활발하지만 어느 한 경우에서도 학생세력으로부터 과외 시장이 위축될 위험이 있는 발언이나 정책 대안이 나온 적이 없다. 마치 교육학계로부터 아직껏 교육부의 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발언이나 정책대안이 나온 적이 없는 것처럼, 자녀교육 때문에 부패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패의 구조가 교육이라는 이름을 구실로 삼아 확산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략이 필요한가. 전략은 학습 경쟁이나 기능 훈련 경쟁에 적합한 말일 뿐 교육에 해당할 말은 아니다. 우리 교육은 학습에만 치중해 온 내용의 비중을 대폭 조정해야만 소생할 수 있다. 몇 년 안에 소비자들 스스로가 살아 있는 교육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눈뜨게 될 때, 교육 개방 속도에 따라 어차피 조만간 나타날 일인데, 우리의 부패하고 편협한 교육 기업은 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업의 선전원 노릇을 해 온 교육전문가들의 설 자리도 이제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정부에서 시작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본다. ㉠

이제는 교육 소비자 대중들의 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안목과 적극적 활동 역량도 급속히 자라고 있다. 저들이 교육 전문가 집단을 향해 침묵의 책임을 물으면서 부패의 방조자 내지는 동조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교육학계와 교육계 스스로가 먼저 학습의 차원을 뛰어 넘는 '교육'의 의미 규

도덕교육 밀어내는 가족이기주의

조 성 숙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석사)
· 문화일보사 논설위원

도덕교육 밀어내는 가족이기주의

지금 우리 사회는 내 자녀, 내 가족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가족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더불어 살기'의 윤리와 지혜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모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우리는 자금의 많은 실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부모살해범 박한상과 오랜지족을 들 수 있다. 부모의 무분별한 보호와 물질충족이 아이들로 하여금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황금만능사상과 물질주의, 안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도덕불감증 환자를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가진 계층이 자녀에게 베푸는 무절제한 물질적 지원은 마치 사회의 규범처럼 왜곡되고 있다.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죄의식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존과 범죄가 일부 가진 계층의 이웃을 의식하지 않은 오만방자한 과소비와, 부의 축적과정 등에 대한 강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가진 계층의 사회적 책임이 크다.

자신의 자녀는 '왕자'와 '공주'가 되어야 한다는 맹신 속에서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일수록 과잉보호와 과잉간섭을 한다. 자신들의 사랑의 반대급부로서 자녀의 의사는 무시한채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자녀의 인생을 유도한다. '명문대=고지위=고소득'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오늘의 세대는 이들 부모의 성적편중 교육관을 더욱 부추긴다. 취학전부터 시작되는 대입준비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교육이나 활동도 용납되지 않으며 성적과 무관한 도덕교육 따위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성적만 높으면, 그래서 명문대 진입만 하면 자녀의 무례함이나 몰상식한 행동쯤 다 덮여질 뿐 아니라 필요하면 나중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생각인 것 같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는 가정의 도덕교육을 몰아내고 있다. 그러나 도덕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릴만큼 걸려야 숙성되는 술처럼 오랜 세월이 걸친 도덕관 정립과 실천을 통한 습관화로서, 남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사

특별기획

회규범의 내면화 작업인 것이다.

에당초 공존의식이 결여된 부모에게서 시민사회의 도덕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녀의 기를 한껏 살려주면서 과잉보호를 해온 부모들의 자녀통제는 먹혀들기 힘들게 마련이다. 부모자녀간의 수직관계는 무너져 가는 한편에서, 대중문화의 감각적 환경에 동화되어가는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요즘 부모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도 의식있는 부모들은 '사랑의 매'라도 들지만, 공부에 치여서 사는 자녀가 딱해서, 또는 영악해지는 아이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웬만한 부모들은 가정교육을 아예 포기하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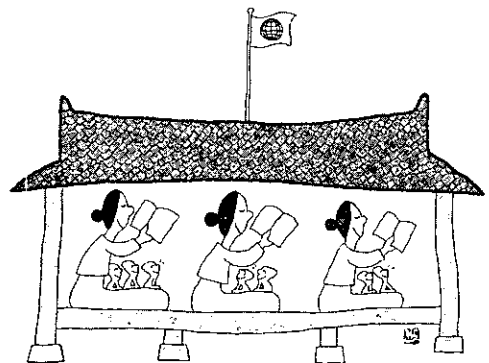
부모는 도덕의 표상이어야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들의 언행자체가 도덕의 표상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직자나 교육자 같은 엄격함과 성스러움까지 갖출 필요는 없으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의식과 교양, 그리고 절도있는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스승이건 부모건 아이들이 존경을 느낄 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부모들은 어떤가. 서울의 국민학교 학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른들의 예절점수는 영점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 중 90%이상이 "우리나라 어른들은 예절이 바르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 줄도 모르고 줄 안서기와 새치기를 밥먹듯하며, 쓰레기버리기, 침뱉기 선수"라고 지적했다. 이 아이들은 또 "어른들은 무질서하면서 아이들에게만 질서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요즘 문제되는 사건의 원인 대부분이 '가정교육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실 '고약한 어른'의 행위는 이뿐이 아니다. 교통질서 안지키기, 무인판매대의 신문 돈 안내고 가져오기, 아무데서나 화투치기, 더 나아

가 세금도둑, 다리붕괴에 대한 책임회피, 정치인들의 거짓말 등 사적 공적 부도덕과 불성실 부정적이 눈만 뜨면 아이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어른은 도덕교육을 할 자격이 없다. 아이들이 도덕적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면 어른들 자신부터 도덕적 인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청소년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한 검사는 "범죄 청소년 뒤에는 반드시 비행적 가정문화가 있다."며 건전가정 만들기의 30훈 실천덕목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부부싸움 안하기, 외도 탈선 없는 성문화, 효의 생활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효 실천, 자녀사랑, 폭력 폭언 금지, 가난 부끄러워하지 않기, '돈, 돈' 하지 않기, 공짜 배척, 작은집-작은차-남은것-값싼옷-소박한 음식 애용하기, 첫살림은 전세로부터 시작, 가정의 전통전수, 술과 잡기 절제, 공동체와 이웃봉사 참여, 나라사랑 실천, 장인정신, 1등주의 실적주의 탈피,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짐, 반성하는 습관 등을 들고 있다. 이 실천지침은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덕목들이다. 중요한 것은 그 검사가 범죄청소년



을 대하면서 평범한 가운데 숨어 있는 진리를 새삼 깨닫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침들을 관류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항상 성실해야 하고 삶을 진지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서는 어른의 모범적인 언행 이상 가는 교사는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장 시급한 공동체 교육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덕목은 공동체적 삶의 예절과 지혜이다. 전통적으로 유교윤리에 젖어 민주적 시민생활의 훈련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전통사회가 수직적 명령, '지배-복종'의 사회였다면 현대 시민사회는 '약속-계약'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문화·교통 등 현대생활의 핵심은 약속과 계약의 이행이다. 계약사회의 인간관계는 수평적이고 성실성을 관건으로 한다. 인간존중과 책임 의식이 없으면 무너지고 만다. 다리와 육교붕괴, 세도의 난무, 12.12 처리 문제로 인한 정치적 소용돌이 등으로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어른들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여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성실성이다. 그것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거짓이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거기에는 성차별, 지역차별, 계층차별이 끼어들지 않는다. 아버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현금 송금 심부름을 자녀에게 시킬 때, 공동체활동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때, 이웃사람에게 예의바른 태도를 가질 때, 아버지가 가사노동에 참여할 때 등 말없는 가운데 실천하는 모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의 가장 큰 적은 이기주의이다. 아무리 겉으로 꾸밈한 예절을 갖추었다라도 마음 속에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지존파와 같은 재앙

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될 것이다. 이기주의에서 해방되어 이웃을 의식하고 행동할 때 겸손하고 예절바른 행동은 저절로 우러나게 마련이다. 지금의 입시위주 교육이 조성하는 치열한 경쟁풍토는 청소년의 이기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몰아왔다. 이를 완화하는 노력은 가정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행히 이번 수학능력시험이 암기위주의 지식측정에서 벗어나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출제되어, 앞으로의 학교교육방향이 사회적 도덕 윤리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원봉사활동을 기업이 사원채용 평가자료로 도입함에 따라 몇몇 대학들이 정식교과목으로 개설할 움직임이 있고 고교입시에 일정비율을 반영할 것으로 정책화하는 등 공동체 의식 함양이 사회적 분위기로 정착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의 도덕교육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촉진될 것이다.

가정교육은 일상적이어야

가정교육, 도덕교육은 일상적인 행위의 연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모들은 모범적인 실천을 보여주는 한편 자녀의 몰지각한 행위가 눈에 띌 때마다 그때 그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녀의 반사회적,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모아 두었다가 따로 시간을 내어 설교조로 타이르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이미 지나가 버린 행위를 새삼 문제 삼을 때 설득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이 시정될 때까지 끈기있게 물고 늘어지는 인내와 가정교육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 끈기와 인내를 받쳐주는 것은 부모의 자신감이며 당당함이다. 자녀의 도덕교육에서 부모의 순발력과 자신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올까? 부모세대가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한 독선에 집착할 때, 그래서 자녀세

대의 정서나 가치관과의 괴리가 커질 때 부모의 가르침은 낡은 윤리로서 젊은 세대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부모가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면 컴퓨터를 통해 포르노를 훑쳐보는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 정보화 사회를 앞서 달려가는 자녀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고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계에 파고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해가 있어야 사랑이 우러나며 사랑이 있어야 가르침이 산다.

충격적인 국민학생의 투신자살에 대해 한 정신과 전문의는 12세미만 어린이의 자살기도는 대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직, 간접적인 부모사랑의 거절 현상이 어린이를 절망감에 빠뜨림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덕교육은 본질적으로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시사한다.

자기진화 멈추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그러면 요즘 아이들의 지능은 얼마나 앞서 있을까? 신문에 소개된 한 사례를 인용해 본다. 중학교 1학년생이 이제 곧 미국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교복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해서 사복을 입고 다니기를 1년반, 학교에서 마침내 집에 알아보았더니 “미국은 무슨 미국이냐”고 그 학생의 어머니는 오히려 어리둥절해 하더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중학생의 반응은 “개 머리도 좋다. 교복 입기 싫으면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였다. 후자의 어머니는 또한번 놀랐다. 이렇게 아이들의 어법은 어른들의 그것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를 다룬 한 방송프로에서 데이트하는 남녀 중학생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남편’ ‘미누라’로 지칭하는 풍습이 학교 안에서 유행한다는 말을 듣고 그 프로에 나온 어른들은 경악하는데 반해 중학생은 “게임하듯이 부부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거리낌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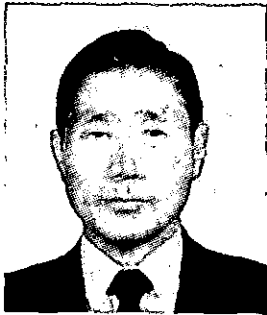
대꾸해 어른들을 또한번 놀라게 했다. 부모들이 맹랑하고 당돌한 청소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인 윤리관을 스스로 터득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도덕교육은 걸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

27년동안의 감옥생활 끝에 남아공화국의 흑백인종 차별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의 한 귀절은, 우리나라의 부모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어 여기 그 일부를 소개한다. “감옥생활에서 내가 가장 염려한 것은 나의 생각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딱딱하게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새로운 시각들에 대해 마음을 열어 놓고 있었다. 그것이 색다른 것이라거나 내 생각과 다른 것이라 해서 배척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늘 우리의 기존의 신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따져 보고 하였다. 그 덕택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

그가 세계평화에 기여한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자기진화를 멈추지 않는 열린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다. 진리는 항상 열린 마음 속에 있으며 고여서 썩는 물 속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의 도덕교육은 부모들의 끊임없는 자기변신의 노력만이 열쇠가 될 것이다.☺

도덕성 회복과 전통윤리적 처방

정 법 석



-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국민대총장, 교련회장 역임
- 울곡 사상 연구원 원장
- 「민법총칙」, 「판례평석」 외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혼탁함에 있어 가히 춘추전국시대의 중국과 비교할 만하다. 그 당시 중국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실정법이 그 권위를 잃고, 크고 작은 범죄가 만연해 있어 백성들은 한시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었다. 혼탁한 시대는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요청한다. 공자는 당시의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유가사상(儒家思想)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제창했다. 만약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고대 중국의 난세와 필적할 만큼 병들어 있다면, 공자의 사상에서 치유법을 찾아볼만도 하다.

공자의 가르침을 논어(論語)를 통해 되새겨보자. 자공(子貢)이 어느 날 올바른 정치의 도에 관해 물으니 공자는 “양식이 풍부하고 군비가 충족되고 백성이 정부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어 공자는 만일 위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부득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첫째로 군비를 버려야 하고, 둘째로 식량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양식”이란 우리가 경제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될 것이요, “군비”란 외교 혹은 국방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자의 말씀은 결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교 국방을 튼튼히 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공자가 올바른 정치의 제일가는 요소로 강조한 “정부에 대한 백성의 믿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물론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정부에 대한 백성의 믿음이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

정부는 법을 통해 다스린다. 따라서 법 자체가 올바르고 그 집행이 공명정대할 때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교육, 건설, 교통 등 허다한 분야에서 관련 실정법의 부당함이 지적됨을 본다. 현대는 모든 것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제반 사회 경제 구조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마저도 유난히 쉽게 변한다. 결국 법령, 규약, 조례 등의 모든 규칙들도 설세없이 수정, 보완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약 기존의 제도, 규칙,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바꾸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상징하는 구법을 바꾸는 것이 전통을 강조하는 유가사

특별기획

상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율곡의 변법사상(變法思想)을 상기한다면 제도 개혁에 관한 유가정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선조(宣祖)시대에 우리나라는 질서가 문란해져 관료의 부패가 극에 달했고, 이에 더하여 외세의 침입마저 빈번하였다. 많은 식자들이 나라의 형편을 걱정하고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였으나 누구도 쉽게 임금에게 주청할 수 없었다. 말 한번 잘못하면 파면은 물론이고 귀양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적(政敵)이나 임금의 심사를 건드리는 제안은 금물이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율곡은 당당하게 법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다. 법은 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며,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율곡은 역설했다. 따라서 만약 법이 오래되어 웃사람들에 이익이 되고 아래 사람들에 손해가 되면, 웃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아래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고쳐야 한다고 율곡은 말했다.

자신의 사리사욕에 급급하여 대의를 버리고 악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몇몇 정치가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옳은지를 알면서도 제도개정을 주장하지 못하는 일부 행정가들, 법령과 제도가 개정되어도 무사안일의 태도로 복지부동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모두 율곡선생의 태도를 본받아 무엇이 공인(公人) 정신인지를 되새겨 볼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질서 유지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낡은 법제도가 아니라 형평성을 잃은 법 집행에 있다. 한때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권력자, 기업인, 교육자, 성직자 등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일부 이긴 하지만, 크고 작은 여러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일이다. 사회 하층 계층을 차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어떤 사회도 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존경받아 마땅할 사회의 지도층이 오히려 더 교활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더하여 은폐의 의혹마저 사고 있다면, 그 사회에 기강이나 질서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처벌이 범죄의 질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권력이나 금전의 유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 사회에서는 죄책감이 상실되고 단지 요행과 재수만이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암울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가?

법질서의 기강을 회복하고 도덕성의 근간이 되는 책임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록 존경받아왔던 정치가, 기업가, 교육자라 하더라도, 만약 잘못이 드러난다면, 예외없이 엄격한 법률적용을 통해 반드시 그 행위에 적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공자가 “공은 사람을 등용하여 굽은 사람 위에 앉히면 백성들이 심복할 것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저러한 변칙에 의거해 죄가 처벌의 대가를 치루지 않을 때 법질서는 와해되고 급기야 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한 사회의 문화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단숨에 고쳐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기발견과 치료만이 암을 치유할 수 있듯이, 조속한 현실 진단과 이에 따른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증명하고 있다.

법질서의 기강을 강화하는데 있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유가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법치(法治)라기 보다는 덕치(德治) 사상이다. 법으로 다스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공자가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린다면, 백성은 법망을 뚫고 형벌을 피함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린다면 백성은 수치를 알아 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법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다. 덕으로 다스린다면 함은 곧 너그러히 인도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맹자가 성선설(性善說)을 통해 주장했듯이, 인간은 모두 근본적으로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천성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몇년에 걸쳐 흉년이 들어 굶는 것이 비밀재해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생각할 겨를이 있었는가? 경제적 풍요로움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지나친 궁핍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유가의 정신은 비록 범죄자라 하여도 재생의 기회를 배제하지 않는다.

오늘날 범죄는 그 수에 있어서도 그 질에 있어서도 악화일로에 있다. 더욱이 젊은이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자들 중에는 그 본성이 악하여 죄를 지은 자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현대 산업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열악한 환경의 희생자라 볼 수 있다. 적어도 덕치를 표방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大學)」에 보면, “소년들은 혼자 있을 때에는 착하지 못한 행동을 못할 것없이 하다가도 군자들을

대할 때에는 천연덕스럽게 그 착하지 못한 일을 가리우고 착한 일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라고 쓰여 있다. 비록 소인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군자들이 있으면 그 또한 군자처럼 행동하게 됨을 이룸이다. 따라서 비록 그 성품이 천박하다고 의심되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생 의욕을 갖게 하고 새출발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치부재의 현실을 타파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한시적으로 볼 때, 잘못된 법은 고치고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하고, 이에 더불어 관용의 정신으로 범죄자에게 갱생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법이 아닌 덕으로 다스리고자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교육이다. 법은 지키고자 하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기에 유가의 성현들은 너나없이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유가의 올바른 교육은 어떠한 것인가?

공자는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반문하며 「논어」를 시작하였고, 식사하는 것도 늙어가는 것도 잇을 정도로 즐거운 일이 공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공부는 고생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거듭 강조한 공자의 말씀은 오늘날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것인가? 공자의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혹은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었는가? 그 대답은 명백하다. 교육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즐거움을 주는 교육을 강조한 공자의 말씀은 더더욱 타당하다.

그런데 현대의 교육은 입시시험 위주가 되고 그 결과 시험 답안에 필요한 것만 외우는데 치중하게 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강제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개성과 능력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선생과 부모 그리고 학생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개성과 능력의 신장에 노력해야 한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오늘의 우리 교육은 적지않은 청소년 정신병자, 자살자, 심지어 왜놈아까지 낳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능력별 교육”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공자가 “활쏘기에서 과녁 뚫기를 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힘의 등급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옛 활쏘기의 예도(禮道)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현대 교육은 지식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덕성 교육을 결여하고 있다. 배움에는 우선 올바른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마음을 지니지 못한 자가 지식을 가졌을 때가 진정으로 위험한 것이다. 히틀러나 스탈린이 무식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올바른 마음 지니지 못한 마음에 지식만을 가졌기 때문에 가공할 죄악을 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자가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웃사람을 공격하며, 행동을 삼가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여러 사람과 사귀되 어진 이와 가까이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비로소 글을 배우라”고 말한 것도 바로 덕성 교육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강조하되 지식의 습득에 치우치지 말라고 경계하였던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단숨에 고쳐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기발견과 치료만이 암을 치유할 수 있듯이, 조속한 현실진단과 이에 따른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법질서 회복에 대한 전통윤리적 처방은 무조건 고루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질서의 수천년 동안 지탱해 온 사상적 토대를 찾아 겸허한 자세로 배우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㉞

정신도덕부터 바로 되어야

편 광 범



- 서울의대 중퇴, 교원자격
검정고시 합격
- 서울시교위 장학사, 장학관 역임,
서울시교육장 학무국장, 서울고등학교
교장 역임
- 상문고등학교 교장

도덕성 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참으로 많이 있어 왔다. 그런데도 현상은 좀처럼 좋아지기는 커녕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구석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것은 비단 피교육자쪽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찌보면 그 부모를 포함하는 성인 사회, 그러서는 절대로 안될 교육자 사회에서도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는 감히 피력하고 싶다.

청소년의 비도덕성을 성인들이 입을 모아 힐난하지만 성인 사회와 미성년자 사회와에서 일어나는 반도덕성, 비도덕성 행위의 빈도를 감추는 것 없이 적나라하게 들어내 놓으면 과연 어느 쪽이 더 할 것인가! 그래서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엇을 쓰나? 무어라고 쓰나? 별로 쓸 말이 없다. 또, 말잔치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써봐야 무엇하랴 하는 쪽이 더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른다. 도덕성 문제는 이제 한도에 도달했다고 본다. 한가하게 글로 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전에 보면 도덕성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도리와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의 총체'라 되어 있다.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디 냄새 안나는 한 구석이라도 있는 것인지? 물론 개개인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수가 너무나 미미하고 나서기를 싫어하니 존재가치가 돋보이지가 않는다.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벌칙금을 현행 1만~2만 5천원에서 3~7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신문보도(94. 10. 19자)를 보았다.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참배는 행위 등은 벌칙금을 7만원으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은 5만원으로 인상 조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서 안 지켜졌던가? 버스정류장마다 담배꽁초가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은데 법만 가지고 되는 것일까? 그 많은 위반자를 어떻게 모두 적발·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이다! 그리고 자각이다. 국민적 도의심의 양양없이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아무데나 버리는 담배꽁초를 어이하겠는가! 법도 중요하다. 단속도 필요하다. 안하는 것보다는 열 번 백 번 낫겠지. 싱가포르에 가면 담배꽁초 한 개에 엄청난 반대급부가

특별기획



온다는 말은 흔히 듣는 좋은 예이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신도덕, 이념, 질서의 틀이 무너져 가는 듯한 위기감을 혼자서 느끼곤 한다. 저 불행한 00대교 붕괴사고 이후 조금은 정신을 차리는 듯한 국민 여론이지만 며칠이나 갈까하는 의구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경제의식도 근면·저축·투자에 힘쓰는 건설적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호화주택 호화가구장만, 해외여행, 과시적 소비 등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어른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교복을 입혀 달라는 학부모의 전화가 잦다. 그 이유인 즉 아이가 사치 낭비에 흐르단다. 옷도 00만 원짜리 외국제, 턱없이 비싼 유명 메이커 것만 사달라고 졸라댄단다. 그러니 교복을 입게 하지는 것이다. 한심스런 얘기이다. 그런 아이가 교복 입게 된다고 그런 옷 사달라고 졸라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렇다고 안 사줄 부모이겠는가! 이것은 부모가 따끔하게 지도할 문제이지 결코 학교가 교복입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내를 둘러보면 곳곳에 학생들의 망실품이 널려 있다. 체육복, 티셔츠, 도시락 가방, 실내화 등. 혹시나 해서 그 자리에 놓아두지만 2~3 일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없어졌다 싶어 혹시나 하고 쓰레기통을 기웃거리려보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내 물건 소중한 것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안한다.

지존파의 광적 행동방식을 지독한 정신적 오염의 소산이라고 이들을 질타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넓게 보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정신 풍토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큰 잘못일까? 동해안의 장교 탈영사건도 말이 탈영이지 부대 내의 해이된 군기를 '위'에 보고하고 호소해도 시정은 안되고 유아무야하니까 젊은 혈기와 의분을 못이겨 저지른 최후의 호소, 국민에 대한 경각심 제기가 이런 일탈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물론 이들의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만약 이들의 그 같은 돌출행위가 없었다면 그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을 것은 아니겠는지!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우리 장래를 걱정하곤 한다. 환경캠페인 환경오염지도 만들기 등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수질오염 대기오염 과다한 쓰레기 산출 등을 걱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단체조직 캠페인 등 대책은 요란한데, 이상하게도 정신오염 사상오염 문화오염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있어도 거의 들리지가 않고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다. 일부층의 반발이 하도 드세서 애써 소리를 못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같이 사회공동체의 윤리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윤리도 거의 실종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패륜적 범죄만 늘어가고 있다.

그대서 세상 일에 무관심하거나 사회변혁에 입을 다물며 눈치만 살피는 기회주의적 모습, 무책임 무자각의 지성풍토가 우리 교육자 사이에도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대가가 없으면 요지 부동, 보상이 따르는 곳은 문전 성시를 이룬다.

말문을 돌려 학교 현장을 보자. 편의상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 교육과정을 보면 국민윤리, 국어, 국사…… 교양선택, 특별활동으로 되어 있다. 모든 선생님은 배우는 학생 앞에서 술선수범해야겠지만 과목 성격상 특히 이 덕목이 요청된다고 보여지는 과목을 듣다보면 당연히 국민윤리를 그 으뜸으로 들 수 있겠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윤리 과목의 평가도 100%가 고사답안지 채점으로 이루어진다. 평상시 게으르고 학우를 괴롭히고 손버릇 나쁘고 한 학생이라도 커닝까지 해서라도 남의 답안을 베껴 썼더라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이 학생의 국민윤리 점수는 100점 만점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학교 현실이다. 행동발달상황 평점도 전항목이 학급 전원 '가'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례는 학교 교사말고는 아는 이가 별로 없는 희한한 일이다. 국민윤리 담당 선생님만 꼭 지칭하지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국민윤리 교과 담당교사만이라도 타교과선생님에 비하여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만 있고 행위·가치의 변화까지 교육할 책임은 없는 것인지? 이것은 학급담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교훈적이고 계도적인 내용이 담긴 구호, 프래카드 등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된다. 길을 가도 공원엘 가도 공중변소에 가도……. 시민의 인격과 교양과 직결되는 공중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니 까 자꾸 씨 붙이고, 씨붙여도 효과가 없으니 까 더 많이 내걸게 되는 것 같다. 어께띠 두르고 피켓 들고 길가에 서서 캠페인 벌이고 있는 이도 과연 자기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다. 당국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과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터를 몇만장 붙이고 캠페인을 벌인 횟수와 참가 인원수를 가지고 목적달성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많은 시민은 어께띠나 캠페인, 길가에 나붙은 구호에 대하여 불감

중, 면역이 되어 있다.

공원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잔디밭에서의 공놀이를 꾸짖었더니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잔디가 있지 잔디를 위해서 사람이 있어요!' 내뱉고는 공놀이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교과서에 이 학생과 같은 사고를 긍정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이 있을 리 없다. 어느 누가 그 같은 교육을 했을까 분명히 누군가가 이 학생군에게, 그가 말한 것과 같은 반항적 부정적 반사회적 견해를 심어 주고 있는 가리워진 얼굴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장소에 있던 사람과 그 분위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때묻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저같은 불온사상을 주입시키며 이들을 반항적 저항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윤리 과목의 평가도 100%가 고사답안지 채점으로 이루어진다. 평상시 게으르고 학우를 괴롭히고 손버릇 나쁘고 한 학생이라도 커닝까지 해서라도 남의 답안을 베껴 썼더라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이 학생의 국민윤리 점수는 100점 만점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학교 현실이다.

이런 도덕적 문제를 푸는 열쇠는 첫째는 가정, 둘째는 학교, 다음으로는 사회 일반시민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쩌보면 가정 즉 부모가 사회 즉 일반 시민이 되니 가정에서 하지 못하면 사회 역시 해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가정과 학

교뿐이다. 물론 가정도 학교도 도덕교육에 관한 한 자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교육 교사 교육을 먼저 시작해야 할 형편에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교육, 교사교육, 학생교육 이 삼자가 동시에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부모도 교사도 도덕교육의 대상자이기는 하나 우선 급한 대로 이 양자가 합심해서 앞장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보완해 가고 한편으로는 자녀, 제자의 도덕교육에 힘쓰되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피교육자의 본이 되는 도덕적 생활 지행·언행의 일치로 몸으로 보여주는 외에는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순쉬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거기에 더하여 정치가 사회적지도자 공직자들만이라도言行이 일치하는 생활을 해준다면 도덕성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옆집 ○○아버지, 윗층△△어머니, 뒷집 ○○형, 건너마을 △△아저씨 등 마을이 온통 도덕성의 표본이 되어 있다면 뉘집 아이이든 이를 보고 배워 법도를 벗어나는 일탈행위를 할 엄두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요는 어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선무는 어른이 본이 되고 선생님이 본이 되어야 한다.

잔디밭에서 공놀이하는 학생을 지나가는 모든 어른이 저마다 꾸중을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놀이를 할 수가 있겠는가! 어른의 무관심이 문제이다. ‘뻥치 끼어들었다가 망신만 당하느니 못본체 지나가는 것이 상책이지’ 이것이 일반인들의 그릇된 방관주의이다. 어른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아이들만 나쁘다고 욕만하지 말고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신은 방관하면서 ‘요즈음 젊은 놈들 모두 돼먹지 않았어’ 뒷통수에 대고 아무리 큰 소리 친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러나 충고하는 어른이 많아지면 감히 어떻게 항거할 수 있겠는가! 다만 이 때 주의할 것은 질타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용히 친절히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애정을 가지고 간곡하게 부드러운 말씨로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욱기로 몰아세우면 요새 젊은이는 자기잘못은 뒤로 돌리고 ‘당신이 뭐야, 무슨 상관이야’ 등등 행패를 부리기 일쑤이니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두 손 꼭 잡아쥐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해주면 적어도 반항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껌이라도 한쪽 귀어주고 충고해 주면 아마도 빙그레 웃거나 겸연쩍게 ‘잘못했습니다’며 꺾듯이 고개를 숙일 것으로 본다.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는 경우의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본다. 북에서의 도덕교육이 물론 우리하고는 기본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겠으나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나는 이는 바가 없으나, 다양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의 학생이 앞서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남·북의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거의 확신이 가나 도덕성에 있어서도 그러할까에 대하여는 자신이 없다. 김수환 추기경의 지적이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북한사회보다도 정치·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도덕적 측면에 있어서도 더 우월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도덕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본이 있어야 한다. 부모든 시민이든 더구나 교사가 본을 보이므로 썩 기대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이다. ㉞

교육의 위기와 학교 도덕 교육

조 난 심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 본인 도덕교육연구부장
- 「도덕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자율성」

I. 교육의 위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교육 위기설이다. 우리 학교 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의 취학율도 선진국 못지 않게 높아지는 등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교육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현상들에 접하면서, 우리 교육이 '올바른 인간',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 학교 교육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참다운 가치들을 강조하여 가르치기 보다는 끝없는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기술을 가르치고(혹은 사회적인 낙오자를 기르고), 이기적인 출세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지식과 기술은 가르치되, 참다운 인간적인 품성은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오늘날 우리 학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덕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여 오늘날 우리 교육이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자로서 혹은 학부모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그같은 문제를 실감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이 과연 어떤 인간을 기르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올바른 인간을 기르기 위해 우리 각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교 도덕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로 가장 흔하게 제시되는 현상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아도 '기본적인 도덕 규범조차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학교 도덕 교육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 아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도덕 규범 준수 행동—예컨대, 정리정돈 잘하기, 쓰레기 안버

특별기획

리기, 인사 잘하기, 약속 잘 지키기, 자기 맡은 일 잘하기, 친구 돕기, 교통 규칙 잘 지키기 등—을 실지로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시작해 보자.

II. 학생 행동의 실태

학생들이 기본적인 도덕 규범도 잘 지키지 않고, 더욱이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급이 높아져도 학생들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요즘에는 대학생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곤 한다. 이런 현상들은 학교 교육이 일상적인 도덕적 규범 준수 행동과 별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인습적인 도덕 규범을 곧이 곧대로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같은 일상적인 관찰과 추측의 일단을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학생들의 도덕적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유병렬, '이동들의 공동체 윤리 의식과 학교 교육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도덕적 삶과 공동체 윤리」, 1994, 10. 참조)에 따르면,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아동들은 타율적, 인습적 도덕성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년에 올라갈수록 자율적, 합리적 도덕성으로 발달되어 가는 과도기에 있으나 그 발달의 과정에서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타율적 도덕성의 특징은 외적 권위와 도덕 규칙에 대한 엄격한 적용에 기초하여 도덕 판단과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타율적 도덕성의 수준에서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가해지는 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욕구의 만족 또는 외적 보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국민학교 저·중학년 학생들이 이러한 타율적 도덕성을 보이는 것은 도덕성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런 현상이다. 곧 부모나 선생님 또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할 뿐이다. 예를 들어, 청소 시간에 담임 교사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이 그런 행동이다. 또 '들키면 혼나니까' 시험 부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어디에서 교통 경찰 아저씨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교통 규칙을 지킨다거나 '형들에게 혼나니까' 수돗가에서 줄을 잘 선다고 답하는 아이들은 벌이 두려워 규범을 지키는 타율적인 도덕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다치니까' 교통 규칙을 잘 지킨다거나, '부서지면 내가 갖고 놀지 못하니까' 놀이 시설을 소중하게 다루겠다는 대답은 도덕의 문제를 자기의 이익이나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타율적인 도덕성은 도덕적인 권위의 힘이 사라지거나 도구적인 이익의 계산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규범을 이탈할 수 있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민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타율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도덕성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앞의 연구(유병렬, 1994)에 의하면, 국민 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서 '도덕적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곧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인지 능력은 발달하지만 그에 걸맞게 도덕성은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학년의 경우에 도덕적 행동을 하는 이유로 '선생님이 시켜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으니까' 등의 이유를 많이 드는데 비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러한 이유를 덜 들고 있다. 이는 점차 권위에 의 의존을 줄여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외적인 '권위의 힘'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이 그 자리를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덕적 행동 경향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학년은 64.9%인데 비해 6학년은 36.8%로 크게 줄었다. 또 교통 규칙을 잘 지키는 비율이 3학년은 55.4%인데 비해 6학년은 27.6%로 크게 저하되고 있다. 그 밖에 책임성, 이타성, 협동성에 관한 문항들에서도 일관되게 6학년이 3학년에 비해 규범을 지켰다는 반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구(허경철 외,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 모형 개발 및 평가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덕적 행동 경향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는 문항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학교급별로 반응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학교급별로 반응의 차이를 크게 보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국민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행동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교급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된 문항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비해 국민학교가 긍정적인 반응이 더 높게 나온 문항이 37문항인데, 그 반대의 경우는 11문항에 불과하다. 국민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평가한 경우를 분석해 보면, 국민학교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문항이 38문항인데 비해 중고등학교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문항은 3문항에 불과하다. 학생 보다도 교사가 국민학생을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도덕적 행동 면에서 국민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학교급이 올라가면 학생들의 도덕성이 발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만큼 더 성숙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문항들에서 그 반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학생 자신이 평가한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국민학생들보다 도덕적으로 성숙한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엄격해진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내면적으로 죄의식을 더 많이 느낀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교사의 평가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학생의 경우 보다도 교사의 경우에 국민학생들의 행동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의 행동을 훨씬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

왜 중고교 교사들은 국민학교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을 더 낮게 평가하는가? 특히, 세

학생 행동 실태와 학부모 및 교사의 도덕 교육자로서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직결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적 문제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고, 먼저,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는 행동을 기다들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대해 비판적인 눈을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자세가 크게 퇴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학교급 중 고등학교는 학생의 반응과 교사의 반응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 교사들이 고등학생들의 행동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우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기존의 가치나 규범에 대해 회의하고, 반항하는 일반적인 발달 경향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도덕적 행동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국민학교에 비해 중등학교가 훨씬 더 높는데 반해 중고등학생들이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입시 준비라든가 거대 학교, 과밀 학급 등의 이유로 중고등학생들이 국민학생들에 비해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에 더 부적절한 것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여러 가지 유보적인 해석 가능성에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덕적 행동 경향성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행동 발달의 역류 현상은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상적인 도덕 규범들을 존중하고, 기꺼이 준수하려는 태도를 제대로 학습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부정 행위를 해서라도 '점수만 잘 맞으면 그만이지'라고 답한다든지, '신호등 같은 것은 시시해서 안지킨다'든지, '하기 싫어서 안하면 그만이지 뭐 어쩌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곧 우리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규범에 대한 존중심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갖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해야 할 규율 정신—도덕 규범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려는 정신—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III. 도덕교육자로서의 학부모와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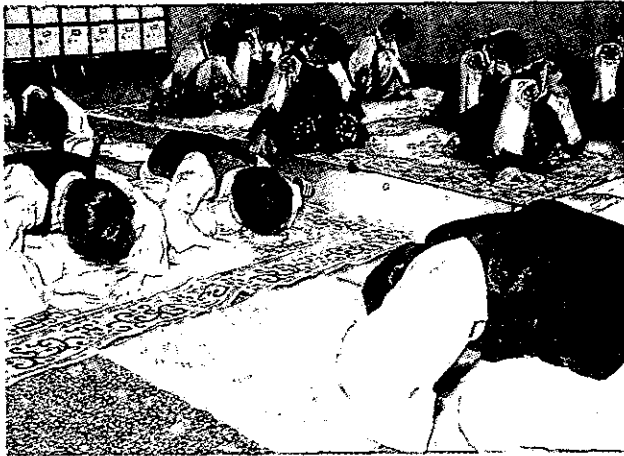
앞 절에서 살펴본 학생 행동의 실태는 주로 일상적인 도덕 규범의 준수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체계적인 도덕적, 윤리적 지식의 이해나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인습적인 규범들을 잘 준수하는가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도덕 규범의 준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덕(윤리) 교사와 같은 한 두 사람이 한정된 시간에 지도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늘 함께 지내며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태도가 학생들의 도덕적 규범 준수 행동에 가장 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 경향성을 높이려면, 학부모와 교사가 도덕 규범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스스로 도덕 규범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며, 도덕 규범 준수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노력들이 요구된다. 사실, 이러한 노력은 거의 전 생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권위자의 역할을 하는 학부모와 교사가 도덕 규범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태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학부모와 교사들의 도덕교육자로서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한두마디로 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관련된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 우리 학부모와 교사들의 도덕교육자로서의 태도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자기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한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허경철 외, 1994),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 학생 자신의 평가나 교사의 평가 보다는 월등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스스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문항이 전체 문항의 40% 정도이고, 교사들이 학생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항은 전체 문항의 19%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학부모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항은 전체의 61%에 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자녀의 행동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이 교사나 학생 자신보다도 자녀의 도덕적 행동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거의 모든 문항들에서 세 집단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녀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학생들의 가정에서 행동 경향이 학교(대규모 집단)에서의 행동 경향보다 더 긍정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셋째,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도덕적 요구나 기대 수준이 교사에 비해 더 낮고 평가 기준도 덜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낮은 기대 수준에서 보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세번째 해석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연구(조난심 외,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도덕 교육의 역할(II)」, 한국교육개발원, 1993)에서도 우리 학부모들의 도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사항의 대부분이 「교과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특히 자기 자녀의 성적과 관련된 요구를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도덕 교육과 관련된 요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의 연구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우리 학부모들은 대체로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그런만큼 학교에도 관련된 요구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 도덕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교사들의 의견 조사 결과(조난심 외, 1993)를 보면, 교사들은 학교에서 도덕 교육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교사들 스스로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내 질서 지키기, 인사하기, 휴지줍기, 기본 생활 습관 훈련 등을 가장 강조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면, 교사들 스스로 이러한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앞의 연구(허경철 외, 1994) 결과를 보면, 교사들의 생활 지도 행동 중 도덕적 모범과 관련된 문항들—교사는 학생들의 인사를 친절하게 받아주는가/교사는 학생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가/교사는 모든 학생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가/교사는 학교의 규칙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가 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문항들에 대해 대부분(70% 이상)이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곧 교사들은 자신의 학생 지도 행동—이 행동들은 곧 학

생들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교사들이 도덕적 모범을 잘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의 반응은 교사들의 반응과 큰 차이가 나타난다. 국민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모범을 보인다는 반응을 상당히 높게(50~70%) 나타내고 있다. 국민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에서 대체로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중고등학생들은 매우 저조한 반응(10~40%)을 보이고 있다. 중고등학생들 중에는 선생님들이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매우 저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기, 교사가 학교의 규칙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기, 학생에게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등의 문항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학생들이 20%도 안된다. 이런 결과는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교사상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IV. 맺는 말

앞에서 살펴본 학생 행동 실태와 학부모 및 교사의 도덕교육자로서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직결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적 문제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미루어 남을 해아리고, 먼저,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는 행동을 기다듬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대해 비판적인 눈을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자세가 크게 퇴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고, 높은 기대나 요구도 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기,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비판적인 시선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우리 도덕 교육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 학교 도덕 교육이 좀더 성공적인 것이 되려면, 관련된 교육 제도와 여건의 개선 등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교육관계자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㉞

2·1 체제 공고교육 운영의 체제

강기주

세계가 산업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경쟁시대를 접하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간의 기술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주요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기술교육의 개선을 국가 정책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 기업도 UR 개방과 WTO 출범을 앞두고 기술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2·1체제」 도입이 확정되어 '94학년도부터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공고교육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기술개발의 주기가 짧아지고 기술수준도 전문화, 고도화, 다양화함에 따라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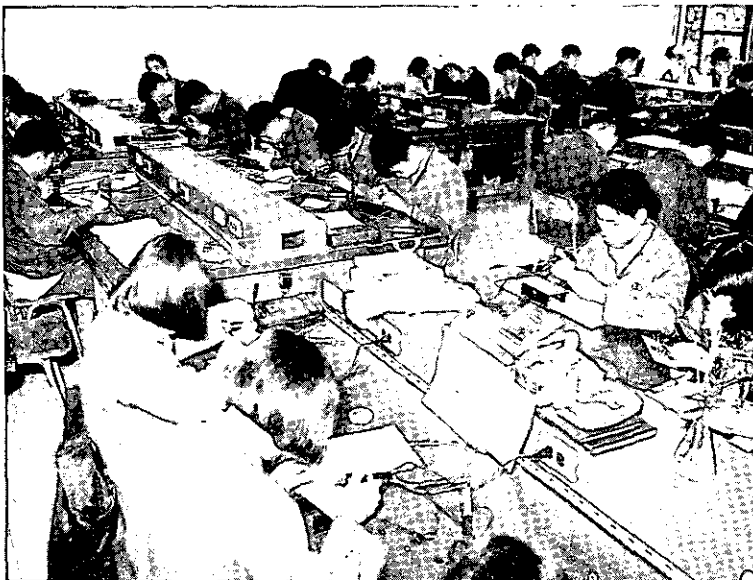
기술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도 산업현장과의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공고 교육에 있어서 기업체의 역할이 크게 제고되고 산학연계가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연계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관련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고과정 이수자의 현장 적응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이 우리 산업의 위상이 선진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한 최대의 힘은 공고교육의 그 원동력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의 기술인력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생산기술인력의 부족이라는 「양」



문제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인력의 「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문제는 공고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와같은 관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2·1체제」 공고교육의 운영에 대한 찬반의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에 관한 배경,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 등에 관해 요약 개관해 보고자 한다.

□ 「2·1 체제」의 추진배경과 논의

공고의 「2·1 체제」에 대한 논의는 「산학연계의 제도화의 방안으로 공업고등교육의 교육과정을 초기 2년을 학교교육, 나머지 1년을 기업현장 교육으로 개편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론화(1992. 12. 4 대한공업 교육학회, 학술발표 9. 26)하였으며 그 제안에서는

- 직업교육이 현장의 질적인 수요 변화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양적인 변화에도 적응이 가능하다.
- 직업생의 시발이 고교졸업 전에 이루어짐으로 학교교육과 산업현장과의 연계가 학생개개인에 대해 보다 쉽게 마련된다.
- 기업의 직업교육에의 참여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원화 제도 형태의 직업교육제도를 지니는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산업현장과 분리된 독자적인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서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경제여건 속에서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등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거센 것이 사실이다. 이를 요약하면

- 「2·1 체제」는 공고를 3년 과정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공고교육을 중학교교육 또는 계속교육이나 교육의 성격(시각차에 따라 논쟁 중)에 따라서는 기본보통교육과 기본전문교육을 약화시키게 된다.
- 학교교육을 2년으로 단축하고 외형적 개편보다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이 산업현장과 직결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학교교육을 통한 기본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 기존 공고를 지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산업체 훈련기간동안 생활지도, 산업재해, 진로지도 등 어려움이 많다.

□ 2·1 체제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94년부터 적용한 공고 「2·1체제」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 20여개 공고 13개학과 3,169명이 182개 기업체에 배정되어 과도기적으로 협력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당초 계획: '94년에 적용 '97까지 공고의 55%인 69개교 실시예정)

그러나 실험학교 또는 시범운영 등의 준비 단계없이 실시하는데서 오는 문제와 「2·1체제」의 기본설계와 내용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1체제」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근인을 간추려 보면

- 산업체 현장실습을 바라는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을 선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난이 해소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현장 훈련 수요공급에도

- 차질을 가져 오고 있다.
- 산업체 현장 교육생이 교육시간, 야간 현장 근무나 휴일 근무시간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 학생의 전공한 학과와 무관하게 배정되거나 단순 반복작업라인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집체훈련시설 또는 현장 훈련 전담교사가 없는 미승인 업체에 배정되는 사례가 있다.
- 일부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공동실습교육(집체교육)시설의 미비, 훈련계획 미승인으로 훈련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 '94년에는 산업체 1년 현장훈련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2·1체제」 운영의 시작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공고 「2·1체제」학생에게는 산업체 훈련과정에서 자체평가에 의한 기능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확정된 평가 기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격증 취득문제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산업채해 보상법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해 보험에 의한 재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 발생시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다.
- 현재 산업체 현장 실습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기존의 공고교육과정에 따라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1체제」에 의해 산업체 현장 실습을 하게 됨으로써 3학년 1학기에 이수해야 할 학교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3학년 1학기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과 시간적

- 정신적인 불이익을 주게 되었다.
- 우수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향상교육차원의 계속교육기회에 대한 제도마련이 미흡하여 공고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하다.
-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기술인 자신의 자긍심에 대한 여건마련 미흡으로 우수학생의 공고 입학 희망이 저조하다.
- 산업체현장실무 및 실기능력을 갖춘 교원 양성 및 연수제도 미흡으로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교원양성과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기업의 기술교육에 대한 참여와 산학 협동의 미흡, 현장 지도 요원의 부족내지는 미흡으로 기업내 현장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학력위주의 고용관행과 기술직을 천시하는 전통적 직업관이 강하게 남아 있고, 직업기술교육으로의 유인책과 관련정책이 미흡하다.

3 개선책의 마련

「2·1체제」를 '94학년도부터 시행함에 따른 문제점이 현안과제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 대응 내용을 요약하면

1) 적정기업체의 선정

- 전공과 연계되는 업체로서 훈련시설, 현장 훈련 전담 교사, 장비 등이 적정하게 마련하여 집체 훈련 및 현장 훈련이 가능한 기업체의 선정
- 3~6개월간의 공동실습교육(현장집체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 강화
- 집체 훈련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위탁교육 실시 후 현장 훈련을 해당 중소기업에 복귀하여 실시하도록 조치
—공동 훈련원 및 직업훈련원의 설치 유도

2) 학생 배정 방법의 개선

—기업체 훈련 계획과 사전 연계하여 기업체 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기업의 훈련 수요에 맞는 공과의 학생을 선정·배정한다.

3) 공고「2·1체제」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

—공고「2·1체제」학생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해 이 체제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현재 KEDI에서 19개 학과 교육과정과 19개 교과서 개발 중임)

4) 공고「2·1체제」학생의 기능자격증 부여 법 제화

—공고「2·1체제」학생은 자체평가에 의해 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 자격 법시행령 개정 예정

5) 훈련비용인정 조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훈련위탁을 받을 경우 대기업의 훈련비용으로 인정하거나 중소기업이 훈련비용을 부담할 경우 중소기업의 훈련비용을 인정하는 방안 마련

6) 노동부와 협조하여 현장실습학생도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

7) 생산현장 적응실습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조직 및 협의 기구의 구성

4 결론

일부 학교이기는 하나 '94학년도 3학년을 대상으로 「2·1체제」를 적용 운영하면서 예상되었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준비 미흡과 실험부제로 예상되었던 문제들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학교 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과 이해의 득실 관계 등으로 기존 공고와 「2·1체제」 학교운영 문제로 많은 논쟁과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1체제」에 대한 평가는 성급한 일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현단계에서는 「2·1체제」공고 운영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하도록 추진 중임을 감안하고 「2·1체제」를 공고교육의 성격에 다양성을 부여한다는 직업기술교육의 이원화 차원에서 수용 접근하는 지혜가 요망된다고 본다.

획일적인 공고교육의 성격과 목표의 교육과정을 통해 각양각색의 기업규모와 특성에 부합되면서 이들 기업이 갖고 있는 생산설비와 방식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새로운 기술과 현장여건에 만족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공고가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염원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체제」를 공고교육 성격의 다양성 추구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2·1체제」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당초의 계획대로 「2·1체제」협력 업체로 하여금 현장 실습 훈련 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록 제반 법적 조치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2·1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계획대로 시범운영후 그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94년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시범 적용적인 성격으로 「2·1체제」를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2·1체제」의 적용은 기존 공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의 경쟁관계를 유도하면서 일선학교에서 2·1체제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하게 하고 일방적인 강요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수기술인력 양성의 과제와 기존 공고 교육의 개선은 공고 교육체제의 다원화와 교육제도의 탈력적 운영에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산업구조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 생산 체제 등이 다를뿐만 아니라 이 또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학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 독자성과 차별화 방향으로 다양화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전략들이 반영되고 일부나마 「2·1체제」를 선호하는 학교와 이에 동참하는 기업체가 연계되어 협동하게 되면 「2·1체제」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현행 3년의 기간학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직종의 1 또는 2년의 단기수료과정의 부설과 3년의 정규 과정에 1 또는 2년을 연장한 4년제와 5년제 체제를 도입 운영으로 학제의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하루가 다르게 창출되는 새로운 산업기술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인력양성이 가능하면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고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고 교육체제의 다원화로 다양한 유형의 우수 기술인력이 양성 배출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고 교육현장과 기업이 이에 동참하게 되면 기존의 공고는 개정된 6차교육과정에 따라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 운영하고 「2·1체제」는 공고교육의 다원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산업이 바라고 있는 기능·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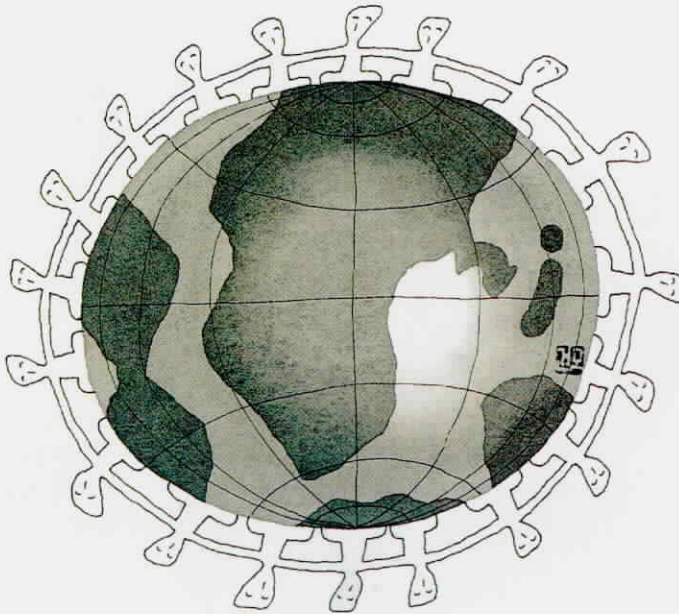


강 기 주

- 한양대학교 기계과 졸업
- 호주 시드니 대학원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 용산공고 교장 역임, 대한공업교육학회 회장 역임
- 본원 자문교수
- 「한국 공업교육현황과 과제」의

이 어 버 리 '자 신' 을 찾 는 영 광 영 산 성 지 고 등 학 교

영광 영산 성지고등학교 편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기계처럼 학교를 오고 가는 아이들, 이들의 가슴 속에 불타는 불만을 우리는 모른다. 한 때의 좌절과 절망이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더 필요한 사람들, 인생의 간이역에서 이들을 다음 기차에 태워 보내려 구도자적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영광의 영산 성지고등학교를 다녀왔다.

靈光 靈山 聖地高等學校

지난 11월 마지막 날 아침 영광읍에 도착했다. 소읍의 정류장답게 한산하기 그지없다. 미리 약속했던대로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읍내에 나가 있는 차를 보낼테니 다방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물 한 컵을 마실 때쯤 되어 사람이 왔다. 학교 사정을 미리 알고 가려는 생각에 이것 저것 묻다 보니 교감 선생님과과의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약속 내용을 말했다니 자신이 바로 교감이라는 것이다. 젊은 (37세) 교감을 따라 밖으로 나온 나는 교감이 타고 온

차를 보고 또 한번 놀랐다. 무궁해 계란을 배달하는데 쓴다는 트럭 앞자리에 앉아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학교가 보였다. 초라해 보이는 단층짜리 건물이다.

마음을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

얼마 전 서울의 한 단체가 운영한 꼴찌교실이 큰 인기를 끌었다. 꼴찌교실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살아났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남의 일만인 아님을 안 깨닫는다. 일회적으로 끝내고 말 일이 아님을 알지만, 이번에도 현실은 이상을 따르지 못한다. 그러

나,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영광의 영산 성지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인 이 학교는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에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영광 영산 성지고등학교

글 · 임선하



자리하고 있다. 1982년에 인가를 받은 고등학교 과정 각종 학교이다. 학생수라야 40여명인 이 학교의 교사수는 10여명으로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교사대 학생수가 가장 양호한 특급학교이다. 국민학교가 폐교되면서 남긴 단층짜리 볼품없는 건물을 임대받아 수리해 만든 학교는 다른 학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벌어들이는 양계장과 전통 도자기 가마는 학생들의 특별 활동의 장소로도 쓰인다. 운동장 한 켠에는 교사들이 손수 지었다는 학생 기숙사와 교사들의 관사가 있다. 탁구장도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짓는다.

어찌하여 이 작은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일까? 교육의 이상에 비해 돈이 없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 교사 관사에는 모든 교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다. 정말로 좋은 교육을 해 보자는 뜻이 커서이다. 사춘기의 일시적인 잘못이나 부적응으로 학교 생활을 중간에 마감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조직이 없는 우리네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가난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의 필수 시설들이다.

이 학교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가? 학생들의 다양한 이력을 보면 이 학교의 특수성을 알게 된다. 학교가 싫어 가출했던 아이, 자살을 기도했던 아이, 폭력배와 한패가 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 부모의 과잉 기대가 싫어 부진아로 행동하는 아이, 가정사가 복잡하여 기댈 곳을 잃은 아이 등 모두 심각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시골 오지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학교이지만, 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전국적이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온 아이에 비하면 광주는 가까운 편이다. 미국에서 온 아이도 있는 것을 보면 국제적인 학교라 할만하다. 이들은 친구나 부모를 통해 이 학교를 알고 온다. 최근에는 마스크를 통해 알려져서 스스로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어쨌거나 학교나 가정에 마음을 기댈 기둥이 없는 아이들이다. 이들에게는 그맘때쯤의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인 셈이다. 그런만큼 교사들은 학생들이 웬만한 문제를 일으켜도 가능하면 이들을 학교에 남겨 두려고 한다. 이들은 여기를 떠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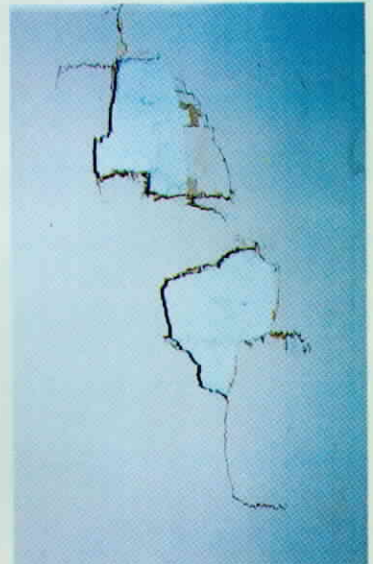
이 학교에 온 학생들의 오늘은 그대로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 있다. 사회는 이들에게 인내를 강요한다. 학교는 상급학교의 진학과 시험으로 이들을 움직인다. 가정은 부모의 이기심으로 이들의 호흡을 어렵게 한다. 이들이 축제에

서 공연한 연극 대본에도 가정과 학교의 편협함을 고발하는 내용이 꼭 차 있었다.

자신을 찾아 가는 과정

처음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기성세대인 교사들을 철저히 부정한다. 눈길을 마주치는 것도 피할 정도이다. 신임 교사들이 건디기 힘들어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보통의 학교에는 교실의 앞면과 뒷면에 각종 부착물이 있으나 이 학교에는 없다. 아직도 덜 타고 남은 이들의 분노가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느 교실의 바깥 벽에는 주먹으로 쳐서 깨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사진—교실벽의 깨진 부분) 수업 중에 책상 위에 발을 올려 놓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덤빈 교사라도 2년 정도는 학생들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런 꼴도 참고 기다려 제대로 되는 때를 기약해야 하는 것이다. 그 때는 언제인가? 어떤 교사는 아이들이 교사에게 대들 때가 제일 재미있다고 한다. 이전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문제삼았던 행동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교사를 위선자로 생각한다. 상당기간의 대치 상황이 끝나고 교사의 사심없는 사랑을 확인하면 교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징표로 대드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 학생과의 관계가 설정되었으니 가르치기 쉬워진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은 무엇이 계기가 되어 심경의 변화가 올 지 모른다. 그런만큼 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독특하다. 아침 일찍 기상하여 운동장을 뛰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숙사 사감이 학생들을 이끌고 함께 댕다. 완전히 자유로운 곳인 줄 알고 온 학생들은 군대같은 점에 놀란다. 그러나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참을 뛰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지리산 종주를 시키기도 한다. 3일 동안의 지리산 종주를 끝내고 난 후에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조용한 성격을 갖는 아이들이 많아진다. 몇년 전부터는 종주보다 더 어려운 오리엔티어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참고 지내며 양보하는 삶의 모습을 배우게 한다. 어렵사리 지리산 종주를 끝내고 난 한 여학생은 지리산 종주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어떤 힘든 일도 참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체험이 되었다고 말한다. (사진-지리산 종주 기념 사진)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자신의 의미를 확인한 후에는 공부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나 원체 기초 학력이 낮다 보



니 어려움이 많아 독특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다. 한 학급에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으니 교사는 학생들 각자의 상황을 훤히 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사에게 가서 배우게 하는 방법을 쓴다거나 영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 시간에는 학년 구분없이 능력별 반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반에서 공부하면서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과교감은 자랑이 대단하다. 어느 해에는 한글을 못 깨친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 몰래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니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적으로 학교를 마쳤다고 한다.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 고통이었던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찾는다.

수업 시간은 과격적으로 운영된다. 교무실 칠판에는 그날 그날의 수업 시간표가 학년별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는 시간표가 구속력이 없다.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수업 중에도 공부보다는 학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으면 일을 하게 한다. 학교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공부로 쳐주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일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면 용돈도 준다. 필

자가 학교에 찾아간 날에도 두 아이가 일을 하고 있었다. 교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일을 끝낸 아이들이 들어왔다. 아이들을 돌려 보내면서 한 교사가 무엇을 던진다. 담배이다. 학생들에게 담배도 주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면서 담배를 못피우게 하면 더 피우니 아예 예의만 지키면서 피우라고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담배 피우는 양을 줄이더라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장 학습이 많다 보니 수업 시수가 부족하게 된다.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로 삼지 않는 눈치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바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학교의 시험도 재미있다. 시험은 누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부로 칭찬 받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개별 학생의 능력에 맞게 출제한다.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을 듣게 된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칭찬과 격려에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감을 얻는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34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 일주를 시킨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한다. 이들은 또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가장 큰 벌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를 이용해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하거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놀다가 지쳐 공부를 하게 되는 학교

이 학교에 온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공부하는 말만 들어도 닭살이 돋을 정도이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거나 '점수가 낮으면 벌을 주겠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학교에 목을 매달고 있을 때에는 의미있지만, 학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행위를 마음껏 하게 한다. 마음껏 놀다 보면 어느 땐가는 공부를 하고 싶어지더라는 것이다. 영국의 썸머힐 학교와 유사한 면이 있다.

자기 속에서 반짝이는 진주를 찾은 아이들

이런 저런 이유로 적응하지 못해서 '성지교'를 찾은 아이들도 이 학교에서 얼마 동안의 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의 진실된 면을 보게 된다. 왜곡되고 일그러진 자기상이 아닌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을 이끌어갈 그런 자기가 사랑해야



할 자신을 보는 것이다. 성적이 몸바치겠다는 아이들,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꿈꿨다는 아이들,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보람있는 일을 하겠다는 아이들, 도자기 굽는 일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다. 다른 학교에서 공부했다면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다시 찾은 자신의 모습은 건강하고 밝은 것이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이지만, 종교를 문제삼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임은 12월 1일의 원불교 대제에 참석할 때 뿐이다. 학생들은 성직자들의 제사모습과 행동을 보게 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한다.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한다. 물론 교사들도 관사에서 함께 생활한다. 이런 점 때문에 콧 교감은 이 학교를 공동체라는 말로 표현했다. 겉모습이 허술한 남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보았다. 좁은 복도에서 한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부산의 어느 실업고교에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전학왔다고 했다. 부모님에 대한 반항으로 가출했다가 돌아왔지만, 학교가 싫어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이전 학교에서처럼 학생들간의 폭력이 없어 좋다는 말도 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너무 풀어주어서 선생님에게도 따질 것은 따질 수 있어 좋다고도 했다.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도 대개는 다 받아준다는 것이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한다. 자유 배식이고, 식기 세척은 개별적으로 한다. 이 점은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들은 토요일에는 외출이

허용된다. 읍내에 나가 당구도 치고, 노래방에도 간다. 보통 사람들은 이들을 문제 학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것임은 확실하다. 방학 중에는 집에 가서 생활하게 하지만, 집에 가지 않는 아이도 있다. 문제의 부모를 둔 아이들은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의 부모가 문제의 아이를 만듦을 보게 된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이 학교로 오게 된 아이도 있다. 그는 부모의 과잉기대를 벗어나고자 학교 공부를 싫어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하는, 이상성격을 형성하여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한다.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다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싸워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당장 수업을 중지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한다. 회장이 사회를 본다. 어느 경우에는 하루가 걸리기도 한다. 이들에게 하루는 엄청 긴 시간이다. 학생들 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인 것이다. 교사들도 참석하여 의견을 낸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모두가 따른다.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체험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키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교사들

이 학교의 몇 분 안되는 선생님들도 다 사연이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들

이 무척 바쁘다. 주부식을 구입해 오는 교사가 있고, 학교 주변을 청소하는 교사가 있으며, 기숙사 사감의 일을 보는 교사가 있다. 또 학교의 뒷편에 있는 양계장에서 일하는 교사도 있다. 교사 중에는 무보수 자원 봉사자도 있다.

교장은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한 후 인생의 마지막 봉사의 일념으로, 교감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과 이 땅에 무공해 유기농법이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학교에서 8년째 온갖 갖은 일을 맡아 하고 있다. 다달이 3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바른 교육의 일념으로 하늘을 보며 사는 이들은, 자신의 키를 높여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도 아이들과의 '격투의 장'으로 나서고 있다.

학교 탐방을 마치고 다시 트럭을 타고 읍내로 나오는 길에 콧교감이 한 말이 선명하다. "흙을 만지고 일하면서 함께 땀을 흘리다 보면 아이들의 행동이 순해진다."

성지고등학교를 돕는 일은 멸종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의 개체 하나를 지켜내는 것이다. 다달이 3,000원을 내는 대체구좌는 500-31-6633804(간사 김진근)이다. 뜻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교육을 넉넉하게 만들 것이다. ☺



문화광장

좋은 책 이야기



남 미 영

-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본원 편집특임부장
- 「한국문학사상사」,
- 「한국소설의 아름다움」의

1994년도 출판문화협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한달에 300여종, 1년에 3600종의 책이 출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출판량은 오히려 독서계에 심각한 우려를 드리우고 있다. 책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의 공해화 문제이다.

어린이책도 어른의 책처럼 휴지같은 책으로부터 보석같은 책까지 다양각색이 있다. 이렇게 범람하는 책들 속에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숨어버린다는 도서선택은 오늘의 교육에 있어서,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이제 좋은 책의 조건을 내용면, 표현면으로 나누어 제시해 본다.

1. 내용면에서

1) 영원하고 보편적인 가치관이 담긴 책

만일 어떤 책이 열살에 읽고 스브살에 읽고 서른 살에 다시 읽어도 읽을 가치가 있다면 그 책은 좋은 책이다. 만일 어떤 책이 한국의 어린이도 미국의 어린이도 소련의 어린이도 똑같이 좋아한다면 그 책은 좋은책이다. 그러나 어떤 책이 그 시대 그 지역에서만 반짝 읽히다가 사라진다면, 그 책은 좋은책이 아니다.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책들은 한철만 반짝 읽히다가 잊혀지는 책들이 많은데, 이 책들도 영원하고 보편적인 가치관이 결여되어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원하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책—그것을 우리는 고전(古典) 혹은 명작(名作)이라고 부른다.

2) 성장의 이야기

(Initiation story)

어린시절은 성장의 욕구가 넘치는 시기이다. 육체와 정신이 함께 성장하려는 욕구. 이러한 욕구를 도와주는 책이 이니세이션 스토리이다. 이니세이션 스토리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 보잘것 없는 보통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문학의 한 형태이다. 어린이들은 이런 이야기 속의 어린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주인공과 함께 체험하며 성장한다. 어떤 의미로 보아 모든 어린이 도서는 이니세이션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영웅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탐색 스토리

전래동화는 탐색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

야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끝없이 찾아 헤매는 전래동화의 주인공들은 세 단계의 합정을 무사히 건너야 한다. 첫째 합정은 목마름이나 배고픔으로 상징되는 입의 욕구이며, 둘째 합정은 아름다운 미인으로 상징되는 성(sex)에 대한 욕구이며, 세번째 합정은 수수께끼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혜에 대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세 가지 합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물질에 대한 시험, 성에 대한 시험, 지혜에 대한 시험으로 볼 수 있는데, 전래동화의 주인공은 이 세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행복의 상태에 다다른다.

4) 상승 모티브가 있는 글

수천권의 청소년 도서에는 상승 모티브가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안델센의 동화와 이솝우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안델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등에는 외로움, 그리움, 배고픔 등의 고통에 대한 해결이 작품의 후반부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안델센의 작품을 읽는 독자는 문제 해결과 함께 좀더 밝은 세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솝우화는 이와 반대현상을 독자에게 준다. 대부분의 이솝우화는 문제해결 보다 죽음과 파멸, 보복과 조소로 장식되어 있다. 이솝우화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결말은 독자에게 어둠과 답답함을 경험하게 한다. 즉 이솝우화는 상승모티브가 결여된 문학이다. 호랑이는 천길만길 구렁텅이 속에 빠지며, 당나귀는 소금짐을 지고 물 속에 거꾸러지며, 개으른 암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거짓말쟁이 목동은 늑대에게 잡아먹는다.

2. 표현면에서

1) 암시적 발단

훌륭한 발단은 첫째로 궁금증을 수반해야 한다. 무언가 특특 건드리기만 해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어 나올 것만 같은 발단, 스펀지처럼 많은 이야기를 흡수하고 있는 듯한 발단, 조그만 끈 하나만 잡아당기면 이야기가 줄줄이 흘러 올 것만 같은 발단. 이러한 발단은 독자를 쉽게 작품의 세계로 인도한다.

둘째는 흥미 있는 발단이다. 여기에서의 흥미는 농담이나 장난, 이상함이나 괴상한, 혹은 무서움에서 오는 흥미가 아니라 새로움에서 오는 경이(驚異)를 의미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E·T> 등은 그 좋은 예이다.

2) 남다른 주인공

작품에서 독자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스토리나 주제가 아니라 인물이다. 또 가장 나중까지 남는 것도 인물이다. 작품 속에서 만난 매력적인 인물들은 우리가 함께 놀고 공부한 적이 있는 친구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의 의식과 인생을 지배한다.

위대한 문학작품은 위대한 주인공의 창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남다른 주인공'이다.

3) 수평적 문장

독서란 작품 속에서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가 상호관계 내지 주종관계에 있다면 독자는 능동적인 독서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수동적인 독서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작가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독자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고 가르쳐 준다면, 독자는 작가와 상호 관계, 주종 관계, 수직적 관계에 놓

이게 되어 독자의 상상력은 위축된다.

4) 열린 결말

독자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에는 열린 결말의 작품들이 많다. "행복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늑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식의 닫힌 결말은 독자의 사고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서도 쉬이 잊혀진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독자, 성장의 욕구가 팽배한 어린 독자들에게 열린 결말은 필수적이다.

5) 독자의 뉘이 있는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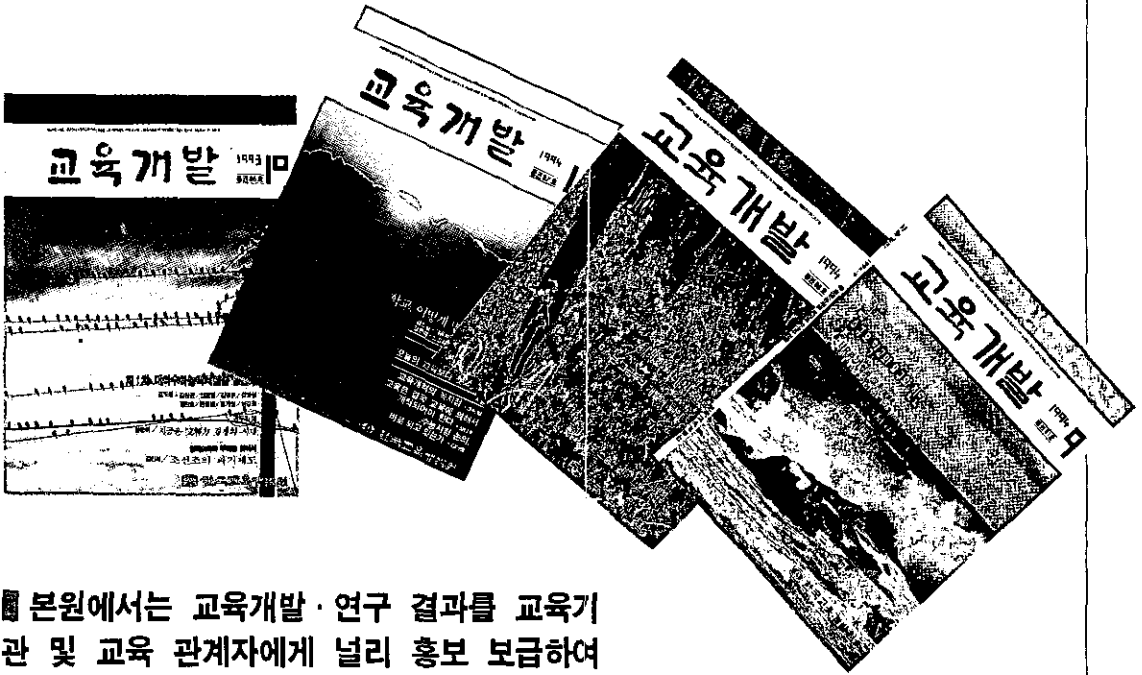
독서란 일종의 언어적 추측 게임이다. 작가가 언어로 제시하는 상황을 따라 가며 작가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상상하고,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추측해 가는 것이 독자의 일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누가 설명해 주는 문장에서는 기쁨을 얻지 못한다. 독자는 자기가 추측하고, 상상할 부분이 많은 문장에서 기쁨을 얻는다. 예를 들면 독자는 다음 두 문장에서 얻는 것이 다르다.

"링컨은 언제나 복숭아 뼈가 쑥 나오는 바지를 입고 다녔다."

"링컨은 키가 크고, 가난하며 사치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는 성격에 가진 아이였다."

첫문장은 독자로 하여금 링컨의 외모와 환경, 성품 등을 독자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탄력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두번째 문장은 작가가 말해 주는 것 외에는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측할 필요도 없는 굳은 문장이다. 독자는 이러한 굳은 문장에서는 할 일이 없어 심심하게 된다. 작품의 우수성은 작품의 그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상호 관계에도 있다는 것이 현대의 수용미학적(受容美學的) 관점이다. ㉞

교육개발 투고 안내



■ 본원에서는 교육개발·연구 결과를 교육기관 및 교육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 보급하여 한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본원 기관지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내용** 한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기존의 교육개발지 참조)

◆ **기한** 수시 접수

◆ **고료** 매당 5,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 **제출처** (우)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편집특임부
(Tel:572-5121, 교환 426)

◆ **기타** ①제출된 원고는 출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②한자는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원고를 보낼 때는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력 수급체제 분석 연구

정 태 화

(본원 교육행정연구부 선임연구원)

* 이 글은 임천순, 정태화, 이광호가 1993년에 공동연구한 연구보고서 (RR 93-19)의 요약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능인력 수급체제에 관한 종합적 분석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기술·공학의 급격한 발전, 국제경쟁의 가속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교육·훈련·고용 부문의 미시인력정책과 제도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저학력 가능인력의 구인난 속에서 고학력 소유자의 구직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인력수급체제상의 불균형(mismatch)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체 가능인력의 양적·질적 수요 변화와 가능인력 양성기관의 양성 및 공급 능력간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같은 괴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작업

장에서의 업무수행 방식과 '직무요건'(job requirement)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 및 직무요건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가능인력 공급체제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 각종 교육·훈련을 통해 공급된 가능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족하였다. 따라서, 산업체 현장에서의 이들의 활용 및 관리 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연구가 요청되어 왔다.

그동안 가능인력의 수급체제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주로 고학력의 과학기술인력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었음에 비해 고졸이하의 가능인력의 수급 문제는 소홀히 다루었다. 둘째, 정부, 학교체제, 직업훈련원, 기업 등 가능인력 수급체제 관련주체별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못

했다. 셋째, 연구의 접근방법 면에서 계량적인 측면에서 가능인력 수급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가능인력의 자격요건 변화 추세나 취업 후 활용 및 관리 실태 등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인력 중 특히 가능인력 수급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능인력 수급체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으로는 첫째, 가능인력의 수급 실태 및 전망을 살펴보고, 가능인력 수급체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가능인력 수급 및 활용·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체 현장의 직·반장, 인사담당자, 기능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가능인력 수급체제의 개선 방안을 가능인력의 양성과 활용 및 관리 측면으로 구별하여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조사와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산업체 설문 조사를 위해 1) 일반 기능공용 설문지, 2) 직·반장용 설문지, 3) 인사 담당자용 면담지 등의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 기업체는

전국의 주요 공단 혹은 공업지역의 40개 업체를 무작위 순으로 선정하고 연구진이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면담하였다.

II. 기능인력 수급체제의 문제점

선행연구, 인력개발관련 정부 부처의 각종 자료, 기능인력 관련 각종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정부, 학교체제, 공공직업훈련원, 그리고 기업체의 기능인력 양성·공급과 활용·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능인력의 양성·공급과 관련된 정부의 문제점으로는 1) 지속적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부진, 2) 기능인력 양성체제의 다양화 정책 추수 부진, 3) 기능인력 양성기관 간의 기능조정 및 협력체제 구축 미흡, 4) 중소기업체로의 기능인력 유인 대책 수립 부진, 5) 융통성이 결여된 직업훈련 기준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기능인력의 활용·관리와 관련하여서는 1) 기능인 우대 및 유인 대책 부족과 2) 기능인력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비생산적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대책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교체제의 문제점은 주로 기능인력의 양성·공급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1) 열악한 실

험·실습 여건 2) 재학생의 질관리를 위한 노력의 부족, 3) 우수 교원 확보 및 관리 대책 부진, 4) 공공 직업훈련과의 연계성 미흡, 5) 졸업생의 취업을 저조와 취업지도의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공공직업훈련원 기능인력의 양성·공급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1)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운영, 2)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산업현장 요구와의 관리, 3) 직업훈련교사의 배출, 활용, 보존의 문제, 4) 직업교양교육의 미흡, 5) 직업훈련 시설의 개선 노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능인력의 활용·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1) 계속훈련 체제 구축 미흡과 2) 직업훈련원 이수자를 위한 추수지도의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체의 기능인력의 양성·공급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1) 기능인력 양성 역할 소홀, 2) 작업환경 개선 노력 부진, 3) 다양한 계속교육 및 직업 경력 개발 기회 제공 부족, 4) 현직 기능인력을 위한 사내 훈련의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능인력난 문제의 해결은 정부, 학교, 직업훈련원, 기업 어느 한쪽의 개선이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기관이 상호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III. 기능인력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산업체 조사 결과

기능인력 수급 및 활용·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가 기능인력 수급체제의 발전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얻기 위해 산업체의 직·반장, 인사담당자, 그리고 기능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체 조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능인력의 수요 전망

기능인력의 수요 전망과 관련하여 산업체에서 기능공을 지도·감독하는 직·반장은 향후 5년간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능인력 양성 사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기능인력의 자격요건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반장은 공히 다능공에 대한 요구(58.8%)가 단능공에 대한 요구(40.3%)보다 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능인력 양성기관의 향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2. 기능인력의 선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격증의 소유 여부를 제일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채택함에 비해 중소기업은 연고자 소개 비율이 가장 높아 기능공의 채용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기능인력의 이동 실태

직장 이동 횟수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 근로자 세 명 중의 한명은 현재의 직장이 세번째 이상 이동한 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이동이 대기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장 이동시 업종변화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직종 이동은 제조업 분야로의 이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순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장 이동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래성이 없어서' (38.1%),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임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1.7%)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장래성과 보수 문제를 직장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4. 기능인력의 활용

조사 대상 근로자들이 첫 직장 입사시 유사한 전공의 직무를 배치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계전공출신자의 경우에는 82.1%, 전자전공출신자의 경우에는 57.0%, 전기전

공출신자의 경우에는 42.4%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전공 계열 졸업자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직무배치시 전공이나 자격증에 따라 적절한 직무를 배치받지 못함으로써 인력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능인력의 관리

사내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애로점을 조사한 결과, 시설은 있으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았다. 이는 인력관리의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기능인력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해 준다. 한편, 사내 훈련 프로그램 운영상의 애로점은 시설미비, 과도한 업무로 참여곤란, 참여자의 무관심, 비용과다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1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직·반장의 찬성 비율이 67.4%에 이르러 이 제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사관리 담당자들은 이 제도의 성급한 추진은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심도있게 연구되고 중·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IV. 기능인력 수급체제 개선 방안

선행 연구 분석, 각종 통계자료 분석, 산업체 조사 분석 결과 등에 터해 기능인력 수급체제의 개선 방안을 양성고 활용 및 관리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능인력의 양성

1) 고교단계의 기능인력 양성체제의 변화 추진

공업계 고교는 다능공 양성체제로 성격을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통합형 고등학교(가칭)」를 도입하여 고교단계에서의 기능인력 양성체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2) 기능인력 양성체제 운영의 탄력성 제고

공업계 고교의 학과(전공) 개편에 대폭적인 신축성과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체의 요구에 학교교육 체제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학과(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교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코스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한다.

3) 기능인력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

공업계 학교의 법정 실습·실습 설비를 확보하고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산학협동체제는 교육내용의 협동개발과 취업지도 및 알선 등에 이르도록 그 내용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기능인력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2+1 제도」를 적극 추진하되, 이 제도의 운영에 장애가 되는 주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지역별로 공동실습 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효율적인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계속교육 기회의 확대

공업계교 교진학생 중 학문적 능력과 적성에 따라 대학진학으로 진로변경을 원하는 일부 학생에게는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주어야 한다.

5) 질높은 교사의 확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학과 신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능인력 양성기관에 신설되는 학과나 전공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기교육 담당능력을 소유한 교사를 양성,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6)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 강화

정부는 기능인력 양성의 책무성을 절실히 인식하여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며 산업체도 이에 적극 동참하도록 정책 지도를 해야 한다.

7) 기능인력 양성기관간의 연계화 강화

공업계 교교와 직업훈련원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동시에 연계를 강화한다. 이같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부, 노동부, 산업체의 대표로 조직하는 「직업교육·훈련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8) 공공 직업훈련원의 역할 강화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양성훈련과 함께 향상훈련과 전직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직업훈련생의 질 제고를 위해 훈련기자재 보완, 교육과정 개편,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등을 추구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신설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

9) 기업내 훈련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공고위주의 기능인력 양성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내 기능인력 양성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직업훈련 분담금의 지불보다는 기능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사내 훈련을 적극 수행한다.

2. 기능인력의 활용 및 관리

1) 기업의 과제

기능인력의 전공이나 자격증을 최대한 고려하여 직무에 배치함으로써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동시에 기능인에 대한 정당한 대우풍토 조성을 위해 학력간, 직종간 임금 및 승진체제를 개선한다. 한편 현직 기능인력의 질 제고를 위해 사내훈련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추구한다.

2) 정부의 과제

공급된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인력관리 정책을 정부와 기업의 협동하에 적극 추진한다. 또한 기능인력 수급체제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능인력 수급체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능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한편,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㉞

소리 없는 소리를 알아들어라

정 채 봉

경 북궁에 가면 ‘향원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못 가운데 있다. 이름 그대로 멀리서 오는 향기를 대할 수 있는 정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도, 멀리서 오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느냐는 것.

우리는 배가 고파 있었을 때 먼 데의 찌개 끓는 냄새에도 지극히 코가 예민해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꽃향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곳이나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나에 따라 꽃향기가 돌 수도 있고 돌지 않을 수도 있다.

곧 멀고 가까운 것은 거리가 아니라 ‘열린 마음’이나 ‘닫힌 마음’이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썩어가는 것에서는 악취가 난다. 특히 숨을 멈춘 동물은 이내 부패하기 마련인데 어찌나 심한지 코를 막고 싶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를 잘라 보라. 베어 넘어진 소나무에서는 풋풋한 솔향이 묻어난다. 아카시아 나무에서는 아카시아향이 묻어나고 전나무에서는 전나무향이 묻어난다(루오는 ‘향나무는 짙는 도끼날에도 향을 남긴다’는 명언을 남겼지). 장작을 쪼개어서 가지런히 재어놓는 산사의 나뭇단 걸을 지나가 보라. 고기두름에서 나는 냄새하고는 전혀 다르다.

나는 간혹 산골 마르는 냄새가 그리울 때가 있다. 도회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산촌 출신 사람들은 안다. 억새며 청미래며 산쑥이며 엉겅퀴며 땅췌레... 그런 것들이 함께 베어져서 널려 있는 산촌집 마당. 여름 피약벌 아래서 마르던 그 산골내음새의 향긋함을...

나한테 어느 향기 못지 않은 이 향기의 아련함을 알게 해 주신 분은 김원철(金源喆: 현 정읍농고 교장) 선생님이시다.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금은 굴지의 제철소가 들어서 널리 알려진 광양에서 다녔는데, 이 선생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다. 실업 담당 교사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무슨 교육 때문인지, 건강 때문인지, 한 3개월 비웠을 때 대신 우리 반 담임을 맡아 주시면서 가까이 알게 됐다.

-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 대한민국 문학상 수상, 새싹 문학상 수상
- 월간 샘터 편집부장
- 「물에서 나온 새」, 「오세암」,
- 「초승달과 밤배」 외



정 채 봉

걸음이 유난히도 빠르시고 목소리가 걸걸하신 만큼이나 막걸리를 좋아하셨고 원예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슨 심부름을 하게 되어서인지 나는 여름 어느 날에 선생님이 세들어 살고 있는 산 아래 초가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가득히 날린 산풀이 마르면서 향긋한 냄새를 내고 있었다. 선생님은 그 전 주 일요일에 산에 가서 한 지게 해왔다고 했다. 나무를 베면 안되니 풀을 베어다 말려 땀감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였다.

그 시절 시골 땀감은 연탄 이전이었으니 그럴 법도 한 일이었지만 이 사실이 아주 강하게 나한테 기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선생님이 그만큼 청렴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해 늦가을이 시작되었을 때 선생님은 나한테 학비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학교의 온실을 맡겼다.

그런데 나는 온실의 사보텐이며 분재며 각종 꽃나무를 돌보는 일보다 소설이며 시에 빠져서 그곳을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마침내 어느 날 온실로 들어닥친 선생님은 불같이 노했다. ‘네 이놈, 이 아우성이 들리지 않느냐?’며 호통을 치셨다. 내가 ‘무슨 아우성이 들려요’라고 어리둥절해 하자 ‘이놈이! 이것들이 목이 말라서 이렇게 처절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해?’ 하시면서 철썩 뺨을 올려부치는 게 아닌가.

그땐 심히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소리없는 소리를 더 잘 알아들어야 하는 작가의 길을 걷게 될 줄이야.

후일 내가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이런 지난 일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더해 주셨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이루려면 무생물이거나 생물이거나 상대와 대화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더욱이 동화를 쓴다고 하니 하잘것 없는 돌맹이 하나, 검불 하나의 소리없는 소리도 알아들어야 할걸세.”

교육과 미술 치료

최 재 영

I. 서론

소수를 위한 도제교육으로 시작되었던 미술 교육은 현대에 들어와서 다수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인성 형성을 위한 전인 교육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미술교육은 미술교육의 영역 안에서 인간의 자아표현 및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인교육적 의미 외에도 심리학이나, 재활의학, 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술을 통한 자아 인식 혹은 자아 개념의 표현과 형성을 돕기 위한 치료 교육적 의미를 부가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이 가지고 있는 치료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술치료의 관점과 접근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미술치료의 기본개념

1. 미술치료의 역사와 정의

아동화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1887년 볼로냐(Bologna)에서 이탈리아 아동의 그림에 대한 해석을 출판한 리치(Ricci)를 비롯해서, 바네스(Barnes, 1893)와 헤릭(Herrick, 1893) 등이 발표한 논문들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아동화가 아동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미술교육 전공)
· 본인 연구원

본격적인 심리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이후이다.

정신분석학적인 배경을 가진 나움버그(Naumberg)가 환자들로 하여금 즉흥적이고 자유연상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하여 회화를 매체로 정신분열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임상 경험을 발표함으로써 미술치료라는 독자적인 치료영역을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녀의 뒤를 이어 그녀의 접근법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즉, 창작과정에서 언어적 굴절(reflection)없이 통합적인 치료과정을 강조하는 클래머(Kramer)가 나타났다(1971).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미술에 강조를 두느냐, 치료에 강조를 두느냐로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그 대립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후 울먼(Ulman)은 미술치료의 확립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나움버그와 클래머의 두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려 하였다.

현재 미술치료는 심리치료, 재활, 교육, 의학 등의 분야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의 공통된 점은 미술치료가 인성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유도하는 시도로써 사용되어진다는 것이다(E. Ulman, 1977).

2. 미술치료의 가치와 역할

미술활동이 갖는 치료적 장점에 대해서 와드슨(H. Wadson, 1980)은 첫째, 전언어적 사고(preverbal thinking)가 상(image)의 형태를 취하며 이는 인격 형성에도 중요하고, 둘째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셋째 자기 자신과의 가치에 저항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술표현이 그의 사고 및 감정을 객관화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며, 넷째 언어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고, 다섯째 공간성이 표현되고, 여섯째 육체적 운동을 통해 창조성을 생활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니아체(Kniazzeh; 1981)도 미술치료가 말보다 심층적 경험을 표현할 수 있어 좋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그리는 일 자체가 창조적 활동으로서 정화(catharsis) 혹은 승화(sublimation)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조직화를 통해 정신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김영진, 1983)

정리하여 보면, 미술활동은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치료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첫째, 미술활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분노, 적대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미술이라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미술표현은 아동이 방어기제를 허물지 않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생각, 감정, 느낌 등을 전달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지닌다.

셋째, 미술재료를 선택하고 제작과정을 스스로 주도하여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아동은 개인적인 성취감, 만족감 등을 느끼면서 자아개념을 인식, 강화할 수 있다.

넷째, 미술재료와 용구 등을 사용하고 주변 환경 및 타인과의 관계를 관찰, 인식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아동은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다섯째, 미술활동은 아동과 치료자간의 긍정적인 관계(rapport)형성에 도움을 준다.

여섯째, 미술작품은 여러 정보들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보충적 자료로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II. 미술치료의 실제와 현황

1. 미술치료의 주요 원리

(가) 무의식, 치환, 투사

미술치료에서 치료자는 미술재료를 사용하여 환자의 무의식을 점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대개 아동은 혹시 잘못 그리거나 어른들로부터 놀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공통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미술치료에서는 자아개념을 복돋아 주고, 불안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방법과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치료자는 아동의 독자성을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치료자의 구조화된 미술활동을 통하여 무의식 속에 묻혀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치료자는 치환(displacement)이나 투사(projection)를 미술 치료에서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며, 아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술치료에서는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혹은 교육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아동의 억압된 정서를 치환시켜 준다. 투사는 사실과 환상의 복합체로 아동들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나) 승화(sublimation)

승화는 치환의 한 형태로 아동의 정신적 에너지나 불안이 아동이 정한 목적이나 목표보다 낮은 서열에 있는 목적이나 목표로 전이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미술치료에서 승화는 아동이 창조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성장을 가져올 때 일어난다. 이에 대해 올먼(1987)은 승화를 기초로 하였을 때만이 미술

의 기능과 미술치료의 완벽한 가능성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 창의성

미술치료자의 임무는 아동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주며, 각 개인의 창의적 표현을 최대한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치료자는 아동의 미술과정에 나타나는 정서적 성장과정 즉, 나이와 발달단계에 맞는 미술활동의 수준을 알아야 한다.

나움버그(1966)는 그림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성장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네 단계의 자아정체감을 제시하고 있다.

㉠ 상투적인 그림의 반복(stereotyped repetitions); 융통성 없고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그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 객관적인 기록이나 일반화(objective reports or generalization); 회피하려고 하는 유형으로 환경적인 압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투사로 여겨진다. 자기 감정과 유리된 아동이나, 활동에 자신의 개인적인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 아동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 자신을 때때로 표현(occasional expression of self); 어느 정도 정서적 성장을 이루어 자신을 자기 작품에 포함시키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자신을 표현(inclusion of self); 정서적으로 자유롭고 거리낌없이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 상태이다.

2. 미술치료의 형태

(가)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psychoanalytically oriented art therapy)

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미술치료의 형태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움버그(1973, 1975)의 이론이고 국내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시도된 것들이 있다.

(4) 집단치료 형태의 미술치료

최근의 경향은 분석적 개인 미술치료보다는 집단적 미술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형태에서 강조되는 장점들은 사회성의 증진, 자긍심(self-esteem)의 증진(Green등, 1987)과 대인 관계, 현실 검증력, 자기 표현력, 자주성, 자아상의 증진(Moriarty, 1976)에 있다. 즉, 이와 같은 집단 미술치료에서는 집단의 대인관계와 표현력, 자긍심의 증진들이 주요한 효과로 판단된다.

(4) 표현요법 또는 창조성 개발로써의 미술치료

와그너와 러너(Wagner & Lerner; 1968), 윌머(Wilmer; 1976)는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치료로서의 예술(art as therapy)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아리에티(Arieti; 1981)는 창조과정(creative process)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 이차사고과정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둘째, 예술적 면에서의 (미적 즐거움이건 과학적인 면에서 유용성이나 이해, 예측이건 인간의 경험을 확대시킨다.

셋째, 쉽게 얻어지거나 발견되지 않는 경험이나 존재에 대한 추구를 도와줄 수 있다.

(4) 집단표현병리 및 회화분석

국내에서도 환자의 회화에 나타나는 병리현상을 찾으려는 시도들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연구들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4) 교육 및 발달학적 관점에서의 미술치료

아치 펠드만과 쿤클 밀러(Arch Feldman & Kunkle Miller; 1987)의 발달학적 접근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들은 피아제의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크게 감각운동기(sensorimotor phase)와 전조작기(preporational phase)의 아동 미술치료를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첫째, 자율성(autonomy)을 증진시킨다. 둘째, 감정표현과 분화를 촉진시킨다. 셋째, 감각의 분별을 발달시킨다. 넷째, 상징화의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와 같은 접근은 주로 소아정신과 영역이나 정신지체, 소아마비 아동용 교육이나 재활 기관에서 유용한 접근 방법이다.

(4) 활동 요법 또는 활동 시간으로서의 미술치료

라파포트(Rappaport; 1982)는 미술치료가 최근에 아동에게 그림그리기를 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극, 무용, 음악, 인형극 등과 결합한 표현활동 프로그램(expressive activity program)으로 소위 "아동생활요법(child life therapy)"로 활용된다고 하면서, 빌트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 등 몇 군데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3. 미술치료의 기법

(가) 미술매체의 선택과 사용

미술매체의 선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대상의 발달수준에 맞는 동시에 아동의 성장과 조절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경우이든 어린 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재료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 치료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가 각각 아동의 상태와 심리에 맞춰 그 재료의 사용이 어떤 행동과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클래머(1971)는 각종 미술활동을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섯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 예비활동(precursory activities) : 비록 어떤 상징적 현상을 만들 정도는 아니나, 문질러 보고, 끄적거리어 보고, 재료의 물리적 속성을 탐색하면서 긍정적이고 자아동적인(egosyntonic)경험을 한다.

㉡ 무질서한 실험(chaotic discharge) : 훌리고 따르는 등 여러 가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 방어기제 기능의 미술활동(art in the service of defense) : 베끼고 따라 하고, 상투적으로 반복한다.

㉣ 그림문자(pictographs) : 언어적 표현대신 보충적 의미 즉, 의사소통으로서 치료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나타난다.

㉤ 형성화된 표현(formed expression) : 성공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징적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나) 지각

지각하는 기법에는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동의 세계를 지각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지각하고 반응해 주는 것이다.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치료자는 자신을 아동의 세계에 두려고 노력하며 아동의 관점에서 보고 대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히 지각하는 능력에는 공감과 반응이 포함되는 것이다.

(대) 반응

아동의 감정에 반응하는 공감적이고 이해심 많고 수용적이며 비판적이지 않은 치료자가 만드는 지적인 분위기는 치료관계를 형성하고 치료과정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하다. 아동이 자신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게 되려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자의 지지가 아동의 자기확신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촉진시킨다. 또한 치료자의 자기노출이 아동의 자기수용을 조장, 진전시킨다.

(라) 해석

해석은 미술치료자에게 더할나위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료자는 아동이 미술재료를 사용하며 투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지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료자는 아동의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해석의 실마리를 얻고 이에 따라 아동의 인성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 이때 치료자는 아동에 대해 모든 가능한 정보를 다 섭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면 아동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며 치료자가 세운 가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점검해 가게 된다. 그리고 치료자는

아동의 그림을 해석함에 있어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4. 국내에서의 미술치료의 현황

1989년 안동현(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과)은 한국 임상예술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 미술치료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1993).

전임으로 미술치료사가 있는 곳은 3곳(용인, 삼영병원, 전남대 부속병원)이었으며, 신경정신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는 41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이외에는 사회사업가,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미술치료실을 따로 갖추고 있는 곳은 용인 병원뿐이었으며, 8군데 정도는 오락실, 놀이방, 작업요법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관심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응답자 중 8명이 활발히 시행하며 관심도 많다고 하였고, 41명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관심으로 시행한다, 20명이 관심은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술치료의 여러 형태 중 어느 것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다음표와 같다.

<표 1>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치료의 형태

미술치료의 형태	관심	실제
분석적 미술치료	12	2
집단 미술치료	15	13
가족 미술치료	4	1
창조성 개발	10	6
병실 프로그램	18	16
진단의 보조	11	7

이외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도구는 크레파스, 그림물감, 서예, 찰흙, 파스텔, 그외 판화도구, 공작도구, 조각도구, 유화도구 등이라고 대답하였다. 미술치료과 관련한 교육, 연구, 평가방법 등은 거의 없으며, 미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치료에 대한 요망 사항으로는 전문가 및 여건이 부족하며,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위한 교육 보족, 지식 미흡, 표준화된 프로그램 부족, 체계화된 이론적 근거 부족 등 대체로 미술치료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적 바탕, 교육의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안동현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 미술치료는 몇몇 개인적인 관심 수준에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도 감독없이 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미술시간 또는 그림그리기 수준을 넘어서 제대로 미술치료로서 체계 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평가방법

이 영 문

1. 서론

아이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를 통하여 아이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해진다. 아이는 학교에서 교과학습의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생을 경험하고 배운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아이의 장래 인간형을 결정한다. 이처럼, 학교는 아이를 독특한 한 인간으로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학교를 통하여 아이는 학교가 계획하는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계획하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되며, 아이가 한 인간으로 성장·발달하는 데 있어 학교가 계획하지 않은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학교의 전생활을 통하여 학생이 가지게 되는 경험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불리고 있다. 학교에서 계획하는 교육은 실제로 학생이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것은 학교가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긍정적인 경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도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인간교육에 큰 문제로 작용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본원 연구원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근래에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방법과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적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포착하고 평가하는 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의 인간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인 연구방법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결과로 일어나는 학생의 경험 중에서 학교나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학생의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은 거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에 의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교사가 확인·평가하는 방법을 질적인 연구방법론에서 찾는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인간의 내면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인간의 내면성은 늘 주관성을 가지고 있고, 주관성을 연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활장면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 즉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를 행해야 한다. 질적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론적인 관점에 따라 많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한 방법을 탐색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들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효율적인 학교 학습지도를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질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질적인 연구방법은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학적, 비객관적인 것으로 경시해 버린다는 것이다. 사실은, 질적인 연구방법은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다. 연구대상이 주관적이라는 것이지, 연구방법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질적인 연구방법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주관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고스란히 끄집어 내는가?”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주관성을 완전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할지는 모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고스란히 끄집어 내려고 목표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주관성이라고 해서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포기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늘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한다. 이 때 “서로 이해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주관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간에 “공동의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공통으로 가정하는 것이 있으며, 이 공통으로 가정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간의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3. 잠재적 교육과정의 평가방법

(1) 자료의 수집

교사가 잠재적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제일 먼저 학교의 “현장”속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현상을 포착해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현상은 학교의 구체적 장면(예컨대, 교실의 수업현장,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특별활동시간, 소풍 등)에서의 학생의 말, 대화, 행위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자료는 수집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현상 속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내용은 관찰자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 교사는 이 가려진 측면을 밝혀내려고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찰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관찰을 하거나, 비디오 촬영이나 오디오 녹음을 하거나, 학생들의 의미심장한 행동에 대해 메모를 하거나, 필요하면 면담을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사진이나 기록물(일기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학생의 자기기록물은 가장 정확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자료이다. 그러나 가끔 학생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기록을 할 때 솔직한 표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는 무명으로 기록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는 사전에 자료수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수집이 끝나면 교사는 학교의 상황 속에서 개인 학생이나 학생들 사이의 말이나 행동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한다. 수집된 자료는 글로 정리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물어서 명확히 해야 한다.

(2) 자료의 해석

자료의 해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 교사의 주관은 배제하고 행위

자의 주관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의도하는 바를 이야기처럼 두껍게 그리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의 해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교사는 관찰을 세밀하게 해야 한다. 관찰을 할 때 교사는 가능하다면, “(1) 누가, (2) 언제, (3) 어디서, (4) 누구와 함께, (5) 어떤 상황에서, (6)어떤 목적으로, (7)어떤 예상되는 결과와 함께, (8)무엇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아동의 산 경험을 불러는 태도를 가지는 일과 이것을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자기자신의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학생의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학생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즉, 학생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포착을 위해서는 학생의 마음을 정확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행위의 의미를 해석할 때 자기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학생의 주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사는 자기의 관점을 버리고 학생의 관점을 가질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학생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가?”하는 의식이 잠재적 교육과정 포착과 해석의 포인트이다.

학생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교사는 자신의 개념망(Conceptual Framework)을 접어두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항상 자기자신의 개념망을 통해서 본다. 개념망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것은 그

가 한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획득한 것이다. 개념은, 비유컨대, 렌즈와 같은 구실을 한다. 사람은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은 백지 상태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구축한 개념망이란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보는 관점은 교사마다 또 학생마다 다르다. 그것은 사람마다 '시험'의 의미가 다르며, '부정'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의 주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학생이 가지는 '시험'의 의미, '부정'의 의미를 포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자기자신의 '시험'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를 접어들어야 한다.

질적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사가 비교적 관점(Comparative Perspective)을 가지는 일이다. '행동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학생에게 어떠한 경험이 생성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산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학생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교사는 한 사태에서 관찰하거나 확인한 내용을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관찰하거나 확인한 내용과 끊임없이 비교해야 하고, 또 이 경우에 유사한 상황에서 학생마다 어떻게 다른지도 끊임없이 비교해야 한다. 비교를 통해서 교사는 행동의 패턴(또는 경험의 일반적인 유형)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교나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의 행동, 신념, 지식,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행동의 패턴이란 일반화된 학생의 행동태세를 의미한다. 일반화된 학생의 행동태세는

학교학습의 결과로서 학생에게 있어서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이상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확인하는 대체적인 과정이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행위를 포착하는 일과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일이다. 학생에게 의미있는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들을 찾아내고, 그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통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사는 학생 경험의 일반적인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3) 잠재적 교육과정의 결과 처리

교사가 잠재적 교육과정을 파악한 후 이를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과 비교를 해야 한다. 이 때, 공식적 교육과정과 합치되는 부분과 위배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특히, 잠재적 교육과정과 공식적 교육과정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또는 '옳은 것인가')는 분명히 나타난다. 여기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식적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공동체의 토론이 중요하다. 한 개인의 생각은 편협되기 쉽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생각은 편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교사들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아예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이 토론을 위한 시간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 교사들도 한 사회적 집단이다. 집단의 생각에는 그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예컨대, 교사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유리하게 학급을 경영할 때 공부에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다른 기준에 의하여 학급을 경영하라고 한다면, 교사들은 열심히 토론하여 아무래도 이것 이상의 다른 방책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이데올로기는 '학교는 첫째 임무가 공부하는 것이니 만큼 공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에 반해, 어떤 학생들은 공부 이외의 것, 예컨대 운동 기능, 예술적 재능, 또는 도덕성(책임감, 협동, 성실, 친절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때 교사들과 학생들의 공동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학교가 진정으로 인간교육을 실천해 나갈려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잠재적 교육과정의 평가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평가는 교과학습의 평가와는 그 목적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학교의 교사들은 평가라면 학생의 성취결과의 판정이나 우열 판정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가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하나는 학생

의 학습성취의 결과를 통해서 등급을 매기고 이를 학교의 행정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교과와 성취는 그 결과를 통해서 등급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생마다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는 식으로 등급매기는 것이 적당치 않다. 잠재적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교사가 학생의 주관적 경험을 두껍게 그리고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Gitlin은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평가를 각각 수직적 평가(Hierarchical Evaluation)와 수평적 평가(Horizontal Evaluation)로 분류한다. 수직적 평가에서 평가자는 학생에 비해 능력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고, 평가의 결과는 학생을 분류하고 상벌을 주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수평적 평가에서 평가자는 학생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평가자가 반드시 학생보다 능력을 많이 소유하거나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다. 평가자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리고 양자 모두 경험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를 돕고 공동의 노력으로 양자 모두에게 있어서 경험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자는 실증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반면에, 후자는 실존주의적 내지는 현상학적 사고 방식이다. 이 양자의 평가 방식을 실증주의적 평가와 실존주의적 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에서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의 발달을 도우는 데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평가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

장과 발달을 도우고자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평가는 수평적인 평가이다. 교사는 수평적인 평가를 통해 학교에서의 학생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간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평가는 교사의 수업지도에도 활용될 수 있다. 교사는 매일 수업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교사는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에 터해서 그것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자기가 구상해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의 평가는 학생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의 태도, 표정, 말씨 등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매 순간 결단을 내린다. 이 때 잠재적 교육과정의 평가결과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행해질 때 학교의 인간교육은 희망적이 될 것이다.

4. 결론

이 때까지 교사들은 너무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에만 매달려서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그러나,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은 학생을 지도하는 하나의 준거에 불과하다. 많은 경우에, 교사 스스로가 다양한 시각에서 학교 현실을 보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 때 학생의 관점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은 학교 현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학생지도는 학교 상황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태에 비추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공식적 교육과정을 달성하는 문제에만 관

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경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학생의 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교육에 있다면 학교에서 나타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연구와 그것의 교육에의 활용은 교사들의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㉞

범패의 교수·학습 방법

백 일 형

음악 교육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학교 음악 교육은 교육 과정에 따라 쓰여진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며, 이 교육 과정은 1955년 제 1차 교육 과정이 제정 공포된 이후 1992년 제 6차 교육 과정이 공포되어, 현재 교과서가 집필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제 6차 교육 과정에서는 그 동안 등한시되어 오던 우리의 전통 음악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강화되었는데, 현재 집필되어지고 있는 교과서에서 학교에서의 우리 전통 음악 교육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교과서에 실린 국악곡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현 교사들에 대한 전통 음악의 재교육 문제 그리고 각 교과 과정에 맞는 교재 개발 작업이다.



· 서울대 음대 국악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국악과 졸업
· 본원 연구원
· 「알기 쉬운 국악개론」(공저)

한편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보면, 국악 부분의 내용이 가창보다는 감상에 치중되어 있고, 가창은 민요에 편중되게 짜여져, 학습 지도 자료가 민요에 한정되어 국악 학습 자료 개발의 편협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악의 여러 악곡들 중에서도 범패는 가곡, 판소리와 더불어 3대 성악곡을 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노랫말이 대부분 한문이나 범어(梵語, Sanscrit어)로 짜여져 있어, 감상 학습 이외의 학습 자료로는 이용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범패를 현재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감상 학습으로만 한정시키고 있는데, 이 범패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하

게 개발하면, 학교 음악 수업에서 감상 이외의 다양한 음악 학습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범패가 지니고 있는 음악적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 보고, 중학교에서의 범패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범패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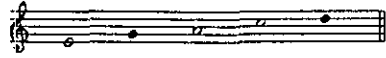
범패란 죽은 자를 위해서 혹은 개인이나 집단의 안녕을 위해서 올려지는 특별한 불교 의식 음악으로, 범(梵, 인도를 의미)과 패(頌, 梵誦의 준말로 음밀한 노래)가 합성된 용어이다. 또한 범패는 규칙적인 장단이나 관현악 반주가 따르지 않는 성악곡으로, 장엄한 가락과 함께 음악 중간에 첨가되는 징이나 태평소 가락은 다른 장르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맛이 있다.

범패가 한국에서 불리워진 것은 삼국시대 진감선사가 서기 830년 당(唐)나라에서 범패를 배워와 제자들에게 범패를 가르치면서 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르고 있는 범패는 1973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져 현재 몇몇 범패승들에 의해 전승되어지고 있다.

한편 범패는 음악적 형태에 따라, 안채비 소리와 걸채비 소리로 분류되고, 걸채비는 홑소리와 짓소리 그리고 화청 등 4가지 음악 형태로 분류된다.

① 안채비 소리

우리가 흔히 절에서 들을 수 있는 염불 가락 형태의 노래로, 요령을 흔들면서 한문이나 범어로 된 노래말을 촘촘히 엮어 나가는 음악 형태이다. 이 안채비 소리의 구성음은 경상도



악보 1) 안채비 소리의 출현음

와 강원도에서 불리우는 민요 음계로 구성되어 mi-la-do 3음을 중심으로 하고, sol과 re는 경과음이나 장식음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안채비 소리로 부르는 곡으로는 유치(由致), 청사(淸詞)등이 있다. 그리고 의식의 규모에 따라 걸채비 소리로 길게 불렀던 곡을 짧게 끊어서, 안채비 소리 형태로 부를 수도 있다.

② 걸채비 소리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이 재를 지내는 절에 초청을 받고 가서 부르는 소리로, 걸채비 소리는 음악적 형태에 따라 홑소리, 짓소리 그리고 화청으로 구분된다.

[홑소리]

불교 의식에서 가장 많이 불리워지는 음악 형태로 독창 또는 합창으로 대개 5언 4구 혹은 7언 4구의 정형 한시를 노래말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홑소리에서는 4구 중 1·2구의 선율을 3·4구에서 그대로 반복하거나 약간 변형시켜 부른다. 홑소리의 반주 악기는 주로 태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곡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곡의 변화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홑소리의 구성음은 안채비 소리와 동일하다. 홑소리의 음역은 5도 내지 8도 이내로 넓지 않은 음역을 사용하며, 대부분 부드러운 자비성의 발성법을 사용한다. 홑소리에 속하는 곡으로는 범패 학습시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되는 할향(覺香), 합장계(合掌擧), 개계(開啓), 이외에 많은 곡들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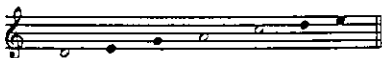
[짓소리]

노랫말은 한문이나 범어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훗소리에 비해 소리의 규모가 크고 길게 끄는 소리가 많아 대부분 합창으로 부르 게 되며 훗소리를 완전히 배운 후에 학습하게 된다. 음역 또한 훗소리에 비해 넓은 9도-13도의 음역을 지니고 있고, 잦은 소리(어떤 선 율형이 여러번 반복되어지는 소리 형태의 선 율 형태가 자주 나타나고, 부드러운 자비성보다는 곳곳하고 길게 뻗어주는 장엄성과 장인 성이 훨씬 돋보이는 음악 형태이다. 이러한 짓소리는 연주 시간도 안채비 소리나 훗소리에 비해 상당히 길어, 1곡당 약 30-40분이 걸린다.

이러한 짓소리에는 인성(引聲), 거령산(擧靈山), 관육계(灌浴偈), 목욕진언(沐浴眞言)을 비롯하여 여러 곡들이 속한다.

[화청]

화청은 여러 불보살들을 고루 칭하여 극락 왕생을 기원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중요한 의식 절차를 마무리 지을 때나 재의 끝부분에서 주로 태징을 두드리면서, 대중들의 귀에 익숙한 민요 선율에다 불교 교리를 쉬운 한글로 노래한 음악 형태이다. 화청의 구성음은 re-mi-sol-la-do로 이루어져 서도 소리 선법과 같고, 창법 또한 서도 소리와 같으며, 태징으로 엇모리 장단을 치면서 부른다.



악보 2) 화청의 출현음

2. 범패의 교수·학습 방법

제 6차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범패는 감상 곡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중학교 수준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보고(가창), 악기를 연주하여 보고(기악), 한국 범패와 외국 범패를 비교하면서 들어보고(감상), 범패의 역사와 음악적 특징을 학습하고(이론), 노랫말이나 가락을 바꾸어 불러 보는(창작)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중학교 수준에서의 범패에 대한 학습은 장중한 선율의 어려운 한문이나 범어로 이루어진 훗소리나 짓소리 보다는 선율과 리듬이 단순하고, 음역이 넓지 않는 단순한 염불 형태의 안채비 소리나 민요 형태로 부르는 화청이 적당하다. 특히 단순한 선율로 경문을 외우는 안채비 소리 음악은 불교 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순한 음악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 그리고 안채비 소리의 음악 형태는 인접국인 중국이나 일본의 범패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음악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의 음악을 함께 비교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민요가 귀에 익숙해져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범패 중에 안채비 소리나 화청을 학습시키는 것은 불교 의식 음악인 범패가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친숙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생활 속의 음악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절에서 불리우는 소리를 직접 조사하고, 녹음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한다면 더욱 큰 수업 효과를 낼 수 있다.

① 가창

중학교에서의 범패에 대한 가창 학습으로는 선율과 리듬이 단순하고, 음역이 넓지 않는 안채비 소리나, 민요 형태로 부르는 화청을 직접 불러 보게 한다. 즉 학생들이 불교를 생각하면 스님들이 법당 안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외우는 염불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염불 형태의 안채비 소리 가락과 민요 형태의 화청을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불러 보게 하므로써, 우리 생활 속에 흐르고 있는 불교 의식 음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절에서 불리우는 가락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가락들을 수집하여 수업 시간에 직접 불러 보게 하므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음악 문화에 대한 여착심을 생기게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소개한 악보 1)과 악보 2)는 각각 반야심경과 화청을 오선보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선율을 그대로 부르게 할 수도 있고, 이 선율의 원래 가락을 그대로 살린채 새롭게 편곡하여 부르게 할 수도 있으며, 곡의 빠르기는 교사가 자유롭게 조정하여 학습시킬 수 있다.

기본장단

악보 3) 반야심경의 일부 (반주보 첨가)

악보 4) 화청의 일부 (반주보 첨가)

② 가악

안채비 소리와 화청의 반주 악기는 각각 요령과 목탁 그리고 태징이 사용되지만, 수업 시간에는 장단을 칠 수 있는 여러 타악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좋다. 즉 안채비 소리를 부르면서 목탁이나 요령을 반주 악기로 사용하여 보고, 화청에 맞추어 정으로 엇모리 장단을 연주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위의

악보 3)과 악보 4) 참고) 그리고 단소로 안채비 소리와 화청의 간단한 선율 골격을 연주해 보는 학습을 한다.

③ 감상

자신의 거주지에서 녹음한 엽불과 화청 자료와 다른 지방에서 불리우는 자료를 함께 듣고, 각 지방의 음악 어법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에서 불리우고 있는 범패를 함께 감상하여, 우리나라 범패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

④ 이론

범패의 음악적인 면을 자세히 분석하는 학습보다는 범패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엽불과 화청의 음악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학습을 한다.

한편 민요가 귀에 익숙해져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범패 중에 안채비 소리나 화청을 학습시키는 것은 불교 의식 음악인 범패가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친숙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생활 속의 음악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다.

⑤ 창작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에서 노랫말의 소재를 찾아 새롭게 지어 보게 한다. 특히 화청은 주로 4·4조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학생들이 4·4조의 일정한 틀 안에서 노랫말을 창작하여 보고, 직접 불러 보게 하므로서 범패가 좀더 친숙한 일상 음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 남은 말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의 전통 음악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강화되어, 국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중학교 음악 교과 과정에서 감상 학습에 속해 있는 범패를 가창, 기악, 이론, 창작 영역으로 확대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 본 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각 장르별 교수·학습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지리라 기대한다.㉞

인성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김 영 인

1. 머리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인성 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같이 인성 교육을 강조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각종의 비인간적·비도덕적 범죄나 이를 부추기는 사회 풍조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그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것이 느껴진다.

인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바꾸어서 말하면, 그 동안의 인성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성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에 앞서 인성 교육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를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성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 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박사과정)
- 본원 도덕교육연구부 연구원
- 「칼막스의 인간학」,
『동·서양 인간관의 비교 연구』

2. 인성 교육의 의미

인성 교육의 의미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성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아 인성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인성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비추어 그 의미를 사회 규범과 관계되는 것만으로 한정하기로 하겠다.

첫째, 철학이나 인간학 분야에서 말하는 인성이란 인간 본성(human nature)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예로부터 人性이라는 용어를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인성이란 서양 철학이나 철학적 인간학에서 사용되는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심리학이나 사회학 또는 문화 인류학 등 사회 과학에서 사용되는 퍼스넬리티(personality)를 우리 학계 특히 교육학계에서 인성이라는 용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각 학문의 성격상 강조하는 바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퍼스넬리티란 광의로는 한 개인의 신체적·기질적·지적·정신적 특성들의 종합적 체계라고 정의된다. 퍼스넬리티는 대개의 경우 그것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사회화 과정의 부산물과도 같은 것이다. 즉, 퍼스넬리티는 일련의 특수한 상호 작용에 대한 경험의 심리적 결과 혹은 잔여물로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성 교육이라는 용어에서의 인성이란 이상의 두 가지 학문적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나 퍼스넬리티의 의미로서의 인성이란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교육의 산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소수의 경우에만 인성 혹은 특별한 인성 유형의 발달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존재하나 그 역시 그다지 성공적이

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인성 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상, 인성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것, 즉 인성은 교육에 의해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성 교육이라는 용어에서 사용되는 인성이란 일상적인 의미로 흔히 말하는 인간의 품성 또는 마음씨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인성이란 용어가 위에서 설명한 인간 본성이나 퍼스넬리티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는 없다. 단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성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성이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용어의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된 공통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거나 용어의 사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의미를 한정시킬 수 없는 경우, 그 이상의 논의가 진행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성 교육이란 용어를 바람직한 품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 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바람직한 품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최근에 인성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비추어 그 의미를 사회 규범과 관계되는 것만으로 한정하기로 하겠

다. 즉,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품성이란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가치들을 내면화하여 사회의 제반 규범(관습, 도덕, 법 질서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도록 하겠다.

3. 인성 교육의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인성 교육은 결국 가치 교육의 차원에서 인성 교육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가치 중에서도 윤리적 가치 내지는 도덕적 가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하기로 한다(인성 교육에서는 이외에도 미적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여기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혹자는 이러한 규정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인성 교육이란 가치 교육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교육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반론에 대해서는 다음 인성 교육의 한계를 살펴볼 때 검토하기로 하겠다.

가치 교육의 관점에서 인성 교육을 규정할 때, 그 가능성과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유지·지속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그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규범을 내면화시켜야 한다. 이를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다분히 모종의 의도나 목적 의식 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치 교육은 그 사회적 가능성과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사회적 측면의 가능성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둘째, 개인의 가치관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능성 및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개인은 살아나가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며,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에 문제 사태의 해결이나, 대안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개인의 가치관이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이라는 작업이 수반되게 된다. 따라서 가치 판단의 능력을 함양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개인의 측면에서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 하나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가치 교육은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 경우를 개인적 차원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은 가치 교육으로서의 인성 교육의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당하여야 할 과업이기도 하다. 또한 이 두 측면은 이론적으로는 서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렇게 명확히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교육이 갖는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기능 및 개인의 자아 실현의 기능 두 측면에서 인성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인성 교육의 부재는 곧 사회적으로 통합성과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 오며, 개인적으로는 자율적인 가치 판단 능력의 부재 현상을 빚게 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결국 이상의 두 가지 문제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인 바, 이제 절을 바꾸어서 인성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4. 인성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성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인성 교육의 문제(여기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임)라기 보다는, 우리의 사회 체제나 구조가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인성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인성 교육이 제대로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 사이의 조화로운 통합의 결여에서 비롯된, 새로운 가치 체계의 미정립과 둘째, 규정화된 가치 규범(예컨대 법률 등)과 실제 적용되는 가치 규범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가치관의 혼란 상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할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의 체계가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그나마 가르쳐지고 있는 가치 규범들도 개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이를 적용하려고 할 경우 현실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가치 규범에 관한 한, 사회에서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중적인 인성(품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인성 교육의 부재는 곧 사회적으로 통합성과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 오며, 개인적으로는 자율적인 가치 판단 능력의 부재 현상을 빚게 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결국 이상의 두 가지 문제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인 바, 이제 절을 바꾸어서 인성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사회 구조적인 입장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처방은 이 글의 의도를 벗어나야 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학교 교육)의 측면에서의 처방책을 생각해 보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처방책은 소극적이고 자기 방어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 대책은 인성 교육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가치 교육으로서 인성을 규정짓는 것이 지나치게 협소한 규정이라는 반론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거니와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첫째, 단순히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치 교육으로 인성 교육을 한정짓는 것을 옹호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설혹 인성 교육이 가치 교육을 포함하지만 그 이외의 요소들도 담고 있는 포괄적인 것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치 교육이 그것의 중핵적 요소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가치 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성 교육의 확립을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소극적인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인성 교육을 가치 교육으로 한정시켜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인성 교육을 가치 교육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위치할 수 있는 확고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와 같은 상황-학교에서의 인성 교육이 사회적 풍토에 의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인성 교육의 범위를 축소하여 그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향과 그 내용을 여기서 상세히 논의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개략적으로 말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인성 교육의 두 가지 가능성 내지는 근거 중에서 후자의 개인적 가능성 내지는 근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자의 사회적 가능성 내지는 근거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인성 교육은, 개인의 가치 판단의 능력의 함양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그것의 영역으로 한정짓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5. 맺는말

인성 교육을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한시킨 것은 다분히 현실을 고려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본질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였을 때에도 최선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이 질문에 답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거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말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말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도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도덕적인 인간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회 윤리학자 니이버(R. Niebuhr)의 말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㉞

독일의 유아 교육

김 현 희



독일의 유아교육은 독일이 유치원(kindergarten)의 창시자인 프뢰벨(Froebel)을 낳은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단되어 있다가 통일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더욱 많이 끌게 된다. 사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옛 서독과 동독의 유아교육관과 교육기관의 사용정도는 사회·정치적 상황 때문에 매우 달랐다. 즉 옛 동독은 여성의 취업이 일반화 되었고 일찍부터 유아에게 집단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의 발달과 이용률이 매우 높았다.

반면에 옛 서독은 3세 미만의 자녀는 가능하면 어머니가 키우야 한다는 보수적 견해가 많았고, 1세 미만의 유아를 탁아시설에서 돌본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의 가정을 구해주는 척도로 보았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 국가(EC)들 중에서도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시설의 활용 비율이 매우 낮은 편(하위 6위,

1990)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통독 후 유아들의 연령별 시설 이용률은 양쪽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실제적인 면에서의 독일 유아교육기관 및 탁아시설을 3세 미만까지의 유아원(Kinderkrippen), 3세~취학 전 유아를 위한 유치원(Kidergarten), 취학 아동의 방과 후 탁아기관(Schulhort)등으로 나누어 개괄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가 1993년부터 1년간 독일에 머물면서 실습하여 견학하였던 아기들을 실고자 한다. 아울러 유아교육 과정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독일의 유아교육에 대하여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쓰려고 할 때 미리 언급해야 할 점은 독일 지방분권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교육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가서 실습하고 견학한 곳들은 독일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에

있는 대학도시인 튀빙엔(Tubingen)의 유아 교육기관들이다.

1.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유아원 (Kinderkrippen)

● 일반적 특징 및 이용률

3세 미만의 유아를 돌보는 유아를 돌보는 유아원은 대부분 취업모나 공부를 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아침부터 직장일이 끝날 때까지 돌보아준다. 현재까지는 교육적 차원보다는 보호와 위생 차원에서 돌보아졌으나 점점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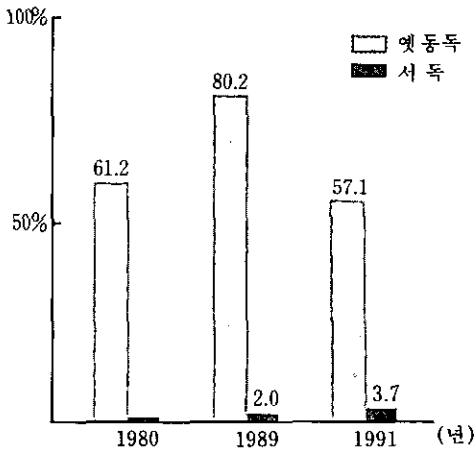
서독에서는 1990년에 「제 8차 청소년 보고」를 위한 전문가 보고서에서 유아원이 교육·사회·정치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양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가족구조와 여성취업률의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들의 변화를 드러내 주고 있다.

그때까지 서독에서는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시설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었다. 또 유아원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생계를 위해 양쪽 부모가 다 일을 해야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하거나, 편모·편부의 자녀들의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험적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직장을 갖지 않은 어머니도 자신의 자녀를 유아원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을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1주일에 1~2번 정도 정기적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독과는 대조적으로 옛 동독에서는 유아원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기본적인 것이었다. 즉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주는 곳으로서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다. 요즈음의 새로운 유아원들은 새 주택단지가 발달되어 있는 집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커다란 유리창과 발코니가 있고, 장난감과 오름틀이 있는 정원이 갖추어져 있으며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다.

1986년 이후 유아원에서의 신생아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아들은 2세가 되면서 들어오고 있다. 어머니가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만 유아가 5개월쯤 될 때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1986년부터 취업모에게 7개월간의 출산휴가가 도입되었고 이 동안 월급의 90%가 지급되기 때문이다(Weigl과 Weber, 1991).





〈그림 1〉 독일의 유아원 이용률의 변화(%)

옛 동독에서 89%의 유아원은 공동체 단위이며 나머지 11%는 공장이나 기업체와 관련된다. 후자의 경우 비용은 회사와 주(State)가 부담하는데, 주에서는 건물비와 유지비를, 기업체는 유아원 교사의 월급과 교구 및 비치품비를 부담하게 된다.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의 유아원 이용률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림 1〉과 같다. 옛 동독에서는 1980년, 198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통일 이후 57.1%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서독은 이용률 그 자체가 매우 높지는 않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유아원의 실제

필자가 실습하였던 유아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며, 부모가 유아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아원 내의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해결한다. 예를 들어, 유아원의 청소 순번 조직, 유아원 비품의 수리 및 구입, 유아원의 입원 결정, 필요할 때 돌아가면서 유아원 교사를 보조하는 것 등이다. 유아원에 들어올 아이를 결정할 때의 최우선 순위는 부모가 모두 공부하는 경우이다.

유아원 교사는 3명이 10명의 유아를 돌보는데, 교사 중 2명은 시간제로 반일씩 근무

하였다. 가장 나이 어린 유아는 15개월된 아이였다.

하루 일과는 9:00~10:00까지 등원하고, 10:00~11:00는 책을 읽어 주거나, 노래에 맞춰 율동하거나 교사의 계획에 의한 활동, 명절이나 특별 행사·계획을 위한 준비(예, 니콜라우스의 날: 12월 6일)등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 11:00~11:40까지는 밖의 놀이 시간으로 유아원의 놀이터나 옆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놀거나 멀리 산보를 간다. 산보를 할 때는 나무로 만든 큰 자동차(Wagen)에 나이 어린 유아를 태워서 가기도 한다. 날씨가 좋은 경우는 오전 내내 밖에서 놀기도 한다. 11:40~12:30까지 손을 씻은 후 시에서 매일 공급해 주는 점심을 먹게 된다. 간단한 노래를 곁들인 율동 후에 점심을 먹는데 식사예법이 매우 엄격하여 다 먹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 점심 후에 각자 양치질을 하고 13:00~15:00 낮잠을 자며, 15:00~15:30 까지 간식을 먹고, 16:00~17:00 까지 자유놀이시간이다. 이러한 하루일과 계획 등 교육과정은 틀에 짜여 있지 않고 유아원 교사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었다. 주로 3명의 교사가 서로 필요할 때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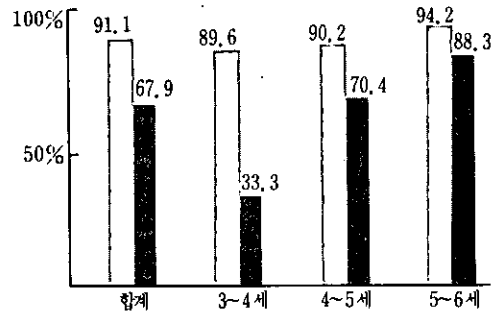
II. 3세~취학전 유아를 위한 유치원 (Kindergarten)

● 일반적 특징

비바리안 유치원법 제 1조에 명시된 것처럼 유치원은 학령전 교육기관이며, 3세부터 국민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유아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몇 시간씩 다닐 수 있는 기관이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는 경우가 많으며, 점심시간에 유아들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게 한다. 종일반 유치원도 있는데, 직장에 가는 부모들이 직장이 시작되기 전에 와서 끝나면 데리고 간다. 이 경우에는 아침도 유치원에서 먹게 된다.

프뢰벨이 1826년에 「인간교육」에서 인간은 자연과 화합하여 신과 일치되도록 인도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브랑켄부르크 숲에 최초의 유치원을 개원한 이래 최근 독일 유치원 교육의 방향은 1990년 「제 8차 청소년 보고」에 잘 압축되어 있다. 즉 “인공적으로 조직화된 학습보다는 유아의 매일매일의 경험과 실제 생활을 통한 교육의 방향으로 갈 것이며, 유아가 혼합된 연령집단에서 함께 지내고 부모가 참여하며 사회공동체에서의 탄탄한 기초를 위에서 교육은 행하여질 수 있다(Achter Jugendbericht, 1990, p.97).”는 것이다.



〈그림 2〉 나이에 따른 유치원 이용률(1991)(%)
* 출처: 독일 통계 연보(1993)

유치원의 이용률은 유아원에 비하여 매우 높는데 옛 서독의 경우 1965년에 31.8%, 1986년에 78.9%로 급증했으나 1989년부터는 70.8%, 1990년에 69.7%, 1991년에는 67.9%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취원률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옛 동독의 경우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유치원 취원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서독만큼 그 차이가 심하지는 않다.



● 유치원의 실제

필자가 방문한 곳은 넓은 큰 집을 유치원으로 개조한 곳이었다. 유아는 20명씩 2집단이 있고 12명이 다른 한 집단인 세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유치원이었다. 교사는 5명이었으며, 사회 봉사원(독일에서는 남자들이 군대를 안가는 대신 사회기관에서 적은 액수의 봉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 2명이 보조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루 일과는 오전 7~8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간에 오는 유아는 52명 중 10명 정도로 취업모·공부하는 부모의 자녀였다. 이 경우에는 9:00-10:00까지 아침을 같이 먹는다. 다른 유아는 늦어도 10:00까지 오는데 12:00까지 자유활동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 그림을 그리거나 염색도 하는 등 자유롭게 원하는 놀이와 활동을 한다. 날씨에 따라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꾸며지며 날씨가 좋으면 오전 내내 밖에서 여러 종류의 놀이를 한다. 여름에는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옷을 벗고 물놀이를 하거나 흙장난을 하고 놀았다. 역시 틀에 쥘 교육과정이라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부여되었다. 12:00-14:00의 점심시간에는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언덕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놀다가 내려왔다. 이 때 다른 유치원은 유아들이 12시쯤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등원하며, 14:00-16:00까지 자유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간다. 취업모의 자녀들은 17:00까지 있게 된다. 그림 등의 활동을 할 때는 연령별로 나뉘어서 하다가 놀이 시간에는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들이 섞여져서 논다. 혼합 연령의 강점을 잘 살려서 운영하고 있었다.

III. 취학 아동의 방과 후 탁아기관 (Schulhort Kinderhort)

● 일반적 특징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0세에서 국민학교 1,2학년까지가 유아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도 국민학교 1,2학년까지의 방과 후 탁아기관만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방과 후 탁아는 국민학교 4학년까지 이거나 장애아를 위한 특수국민학교 5학년까지를 일컫게 된다. 이 기관에는 대부분 부모가 직장을 가져야 되며, 공부를 하거나 편부·편모의 자녀가 들어올 수 있다. 즉 방과 후 탁아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아동의 적절한 교육과 복지상태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되는 자녀들을 위한 곳이다. 서독에서는 이 기관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통일 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옛 동독은 1980년까지 6~10세 사이 연령 집단의 81.2%가 이용하였는데 통일 이후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통일 이후 동독에서는 여성의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방과 후 탁아의 실제

국민학교의 운동장과 연결되어 있어 멀리 않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시립 방과 후 탁아기관은 아침에 7:30에 시작하여 오후 6:00까지 열게 된다. 아침과 점심을 이곳에서 먹게 되는데 점심을 먹은 후 보육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의 도움아래 숙제를 한다. 간식을 제공 받으며, 몇 가지 프로그램등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생일 축하파티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

며,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보고 게임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교사의 지도아래 하고 있었다.

시간제로 일하는 부모를 위한 반나절 방과 후 탁아(Halbtagsbetreuung)도 주로 국민학생 1,2학년을 위하여 있으며, 학교 시작하기 전 아침 7:30부터 학교 끝난 후 13:00까지 국민학교 안에서 돌보아주고 있다. 간단한 간식, 주스등이 제공될 뿐 점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일 방과후 탁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학교 담당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령별로 차이를 두어 유아 교육기관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 연령층의 모든 유아들이 혼합이 되어 한 집단을 형성하여 다섯 집단으로 이루어진 유치원도 있었다. 즉 3세 미만의 유아가 4명, 3세~취학전 유아 4명, 1세~취학 전까지 종일 있어야 하는 유아 8명, 국민학생 1명으로 총 17명이 한 집단이 되어 3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었다. 혼합 연령으로 구성된 집단에 대하여 큰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들과 면담해 본 결과 일 자체는 매우 즐기지만 봉급 수준에 대해서는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국민학교 교사의 만족도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



김 현 희

-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졸업
-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강사
- 「탁아연구 I」, 「탁아연구 II」, 「아동문학」의

호주의 교육 개혁 “미래의 학교”

이 옥 화

I. 서론

호주 정부는 1992년 부터 새로운 교육 정책인 “미래의 학교(School of the Future)”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래의 학교”는 현재의 학교와 어떻게 다른가?

“미래의 학교”의 목적은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다. 미래의 학교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개별적인 요구와 개인이 소유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준다. 개인 학생에 관하여 또는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교 교육의 기대는 중앙 정부에서보다는 학교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교육 소비자로서의 학생들은 학습 내용에 관한 선택권이나 개인의 능력별 학습과 같은 학습자의 개별 학습을 원하고 있다. 학부모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고 교사들은 더욱 전문적인 직장을 원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구를 중앙 정부에서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미래의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과 지역 사회를 잘 아는 학교에 자율권을 많이 주어서 학습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학교 단위로 무한정의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 연방 정부나 주의 교육부에서 제정하는 지침 내에서 학교 단위로 정책을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래의 학교”정책은 현재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즉, 기구의 운영 관리는 전통적인 상하 구조의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재조직화, 팀워크 중심으로 하는 운영 관리, 질관리, 소비자 만족 서비스,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는 운영 관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교육부나 교육 구청의 역할은 매우 제한된다. 이러한 경향은 호주의 교육부가 중앙 정부에 독립된 부로 존재하지 않고 고용교육 훈련부(Ministry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g)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미래의 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호주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라 해도 강제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유인책을 곁들여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학교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꾼을 키워내기 위해 학교 단위의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연구 및 실행은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원할 것이다. 학교의 학생수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학생수의 확보는 학교의 예산 확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학생수가 적어지면 학교에 프로그램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는 교사의 일자리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교사와

교장은 학교 위원회와 힘을 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게 된다. “미래의 학교”에서는 교사의 인사권을 학교 단위로 갖고 있으므로 생산성이 높은 교사를 취사 선별하여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학교”는 학교간의 경쟁, 교사간의 경쟁을 이끌어 내는 제도이다.

II. 미래의 학교

1. 학교 헌장(school charter)

학교 헌장은 “미래의 학교”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안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이 헌장은 각 학교 단위로 작성되는데 연방정부 및 교육청의 교육 방향을 수용하여 향후 3년 내의 교육 계획을 포함한 계획서이다. 학교 위원회와 교장, 학교 사회(school community)에서 이 헌장 제정을 공동으로 하는데 학교 위원회가 리더 역할을 한다. 학교 헌장에는 교육 목표 및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교육청과 학교간에 합의된 교육 계획서로 향후 학교 교육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합의서이다. 학교 헌장에는 학생들의 생활 규범(상벌 규정, 교복 착용 규칙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 학교 위원회(school council)

학교위원회의 역할은 학교 교육 정책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정 기구로 학교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결정을 하게 된다. 학교 위원회는 교장을 선출하는 데 참여하고, 교원이 아닌 직원을 채용하거나 특정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학교의 운영 상태를 교육부 및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학교 예산을 운영하게 되는데 학교 청소 계약이나 학교 건축 계약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위원회는 매년 조직되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위원들은 1년에 50%가 새로 임명되게 된다. 위원 선출에 관한 구체 사항과 추천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다. 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장이고 이 위원회의 결정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교장의 역할 및 교직원 채용

학교 교장은 학교의 예산과 운영을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미래의 학교”에서는 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리더 역할을 하여야 하고, 지원이나 인사 관리, 학교 조직과 직원 채용 등의 권한을 갖는다. 국가에서는 학생수 기준의 예산 배정만 하고 이 총체적인 예산에 관한 자세한 실행 항목의 설정은 교장의 권한이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전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미래 학교의 주요 골격으로 학생과 학교가 속한 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학교라는 전제를 기초로 한다. 교장의 임기는 5년이다. 교장의 임기는 여러 번 중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장직에 있을 수 있지만, 학교 발전은 교장의 역할에 힘입는 바 크므로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의 학교”에서는 교사를 비롯한 행정, 보조 직원들의 인사권이 학교 단위로, 즉 교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교사들이 교육청에 의해 채용되고 각 학교에 임용되었는

데 “미래의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이나 학교의 필요에 의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인사권을 교장에게로 이양하였다. 교사들은 신문에 난 구인 광고를 보고 직장(학교)를 옮길 수 있다. 교직원 인사권은 미래 학교가 기존의 학교와 다를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학교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4.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The Board of Studies에서 개발한 8개의 주요 분야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별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8개의 주요 분야는 국어, 수학, 과학, 기술, 사회 및 환경 교육, 예술, 외국어, 체육이다. 특히 외국어교육은 호주와 상호 교류가 많은 4개국의 언어를 주요 언어로 삼는데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가 그것이다.

5. 통합 예산

“미래의 학교” 정책에 동참하는 학교에는 정부에서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단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실행한다. 학교별 예산은 Student Resource Index(SRI)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의 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특수아)등을 기초로 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이 예산은 인건비, 각종 건설, 건물의 유지 보수 및 기자재 구입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즉 가르칠 과목이나 교수 학습 방법, 교사를 몇 명 채용해야 하는가가 학교 단

위에서 결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의 세부 실행안을 편성하게 된다. 입학 할 수 있는 학생수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년도별로 학생수가 유동적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의 형태나 교육 내용의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의 세부 내역도 학교별로 다르게 될 것이다.

또 학생수 변화에 따라 과부족인 학교 시설은 수요에 따라 즉각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교육 구청별로 이동식 가건물을 지어 필요한 학교에 임대하여 주고 있다. 마치 이동식 집(모빌하우스)과 같은 모양의 교실을 몇 대씩 필요량만큼 학교에 임대하여 준다. 다시 학교에 학생수가 줄게 되면 이동 교실은 필요한 학교로 옮겨지게 된다.

이전에는 학교 예산의 6%만을 교장이나 학교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미래의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6. 학교 평가

학교 현장에 서술된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등을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기준과 평가의 틀은 Office of Schools Review에서 작성한다. 학교 교육의 질에 관한 평가와 아울러 학교 예산의 실행에 관한 감사도 이루어진다.

7. 지원 조직

이 새로운 제도는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으로 빅토리아 주의 경우 600여명 가량의 일자리를 줄였

다. 중앙 정부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던 지원 기구의 여러 전문가를 학교에서 직접 일하도록 재배치하였다. 이렇게 학교별로 재배치하는 학생 지원 및 교육과정개발 인력을 위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학교는 이를 다시 인력 충원하지 않고 예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역 연결 교장(District Liaison Principals)과 교육장(General Manager)과 같은 지원 체제가 생겼다. 지역 연결 교장들의 역할은 지역의 약 30개 정도의 학교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 학교가 성공적으로 "미래의 학교"가 되도록 지원을 한다. 즉 학교 현장을 개발하고,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개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등과 관계되는 조언을 한다. 교육장은 각 주내 교육구청별로 있는데 약간명의 지원 인력으로 교육청내 행정 조직을 갖는데 4개의 주요 부서가 있다. 교육 질관리 프로그램, 인사서비스, 예산 및 행정 서비스, 그리고 교육 정책 계획부서와 함께 교육 감사(Office of School Review)가 있다.

III. 학교 교육에서의 컴퓨터의 활용

미래의 학교 프로젝트가 개인의 요구나 능력별 교육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이를 만족시키는 교육의 기반 시설(infrastructure)로, 호주내에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1. 학교 행정 자동화: CASE (Computerized Administrative System Environment)

미래의 학교는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학교 경영이 목적이다. 따라서 경영과 관련된

자동화가 많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표준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학교에 공급하였다. 하드웨어는 3년 단위로 빌려서 사용하는데 이때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장착 되어 보급된다. 따라서 3년에 한번씩 가장 최신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보급받을 수 있다.

하드웨어는 빌려서 사용하지만 유지 보수에 관하여는 사용 학교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Micro Soft 사와 계약을 맺어 주전체에 지역간 사용권 개념의 계약을 체결하고 MS-DOS나 기타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계약했고 공급하였다. 즉 여러가지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보급과 함께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종합적인 최신 정책을 CD-ROM으로 볼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하드카버의 책으로도 보급한다.

이와 같은 컴퓨터 활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위해 응급 처리 지원반(Hot line)을 운영하고 있다. 수신자 부담의 전화 번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30-4:30까지 서비스된다.

2. 컴퓨터의 교육적 활용

(1) 오디오그래픽(audiographic)

이것은 텔리마틱스라고도 불리는데 음성 중심의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축으로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 소요 장비로는 전화와 팩스를 포함하여 여러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 링크를 설치하게 된다. 초기의 이러한 장비에서 후기에는 비디오와 컴퓨터를 통합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로 바뀌었다. 그러나 비디오의 전송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별도의 사업으로 추후에 다시 추진하게 된다. 이것이 다음에 설명되는 쌍방향의 비디오 프로젝트이다. 텔레마틱스는 주로 교사 연수와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 주는 hotline으로 혹은 고등학교의 일부 과목을 가르치는 설비로 이용되었다.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료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2) 컴퓨터 학습 보조 자료(CAI: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자료)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학교에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미국 CCC (Computer Curriculum Cooperation) 회사의 코스웨어를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와는 달리 교사나 학생들이 만든 CAI제품을 지원하거나 모아서 보급하는 것과 같은 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주로 학교 단위로 개발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각 주마다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3) 컴퓨터 통신 학습

호주의 모든 학교는 e-mail번호를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 주컴퓨터까지 연결되는 것은 대개 전화선(PSTN)을 이용하게 되는데 전화선이 안정되고 속도가 빨라 세계 어느 나라와도 통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작은 시골 고등학교에서 “국제 컴퓨터 통신 교실 21세기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프로젝트의 리더 역할을 해내고 있다. (본원이 현재 호주, 미국 등 아·태 지역의 5개국과 공동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임). 물리적으로는 작은 시골일지 몰라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역간 차이를 극복하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4) 쌍방향(Interactive) TV

Interactive Video는 비디오는 한방향, 오디오는 쌍방향인 상호작용적 교육 TV이다. 유선 방송 혹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보내는데 수신측의 장비는 인공 위성 접시와 TV를 위한 decoder와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신기 그 자체는 기존의 TV수상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Video Player를 운영하는 정도로 조작이 쉽다.

사용 목적은 주로 교사들의 연수와 학생들의 특정 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숙제를 지원(Homework hotline)하는 데 있다. 학교 생활 시간대에 실시간 방영하여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TV를 보면서 질문을 팩스로 혹은 컴퓨터 통신으로 보낼 수 있다. TV에 출연하는 강사는 교실과의 연대성을 갖기 위해 교실과 비슷한 검소한 무대를 꾸미게 되고 여러가지 카메라 기법이나 편집을 하지 않고 또 방송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을 강사로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설비의 사용상의 장점으로 사용 비용이 저렴하고 참석자나 강의자의 여행 경비 절감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정보가 검열되지 않으며, 수신 방식때문에 연수 참석자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또 귀중한 자원(교육과정 전문가, 컴퓨터 교육 전문가 등)을 효율적 활용할 수 있게 된다.

VI. 시사점

바야흐로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소비자의 구미를 만족시키고 따라서 교육 시장에서 좋은 상품으로 살아 남기 위한 학교 경영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학생들만을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로 소비자의 구미를 만

죽여주는 것은 경영자의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호주의 "미래의 학교"와 같은 학교 중심의 경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시카고 1988년부터 5개년 계획)과 영국 (1986, 1988), 뉴질랜드 등에서는 학습 혜택을 누구에게나 고르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평등한 교육권리와 예산의 자율권을 중심으로 교육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학교간에, 교사간에 좋은 교육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한 지원 체제도 과학 기술의 활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활용을 살펴볼 때 테크놀로지를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보급한 것은 행정이나 교육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활발하였다. 교실 수업에서 직접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교사 스스로 학습 자료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전문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추세이었다.

호주의 경우 하드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대여하여 보급하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이다. 하드웨어를 보급할 때 소프트웨어를 같이 장착하여 보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어 좋은 제도같다. ㉑



이 옥 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공학 박사)
- 본원 컴퓨터운영관리부장
- 「컴퓨터 통신 활용 교육」 「학교교육연구 정보데이터 베이스구축」의

기획처

- * 11월 2일~11월 8일까지 유현숙 교육행정연구부장은 유네스코 중국 위원회와 중국 국립교육발전연구소(NRCED)가 공동으로 개최한 "시장 경제와 교육개혁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였다.
- * 11월 6일~11월 19일까지 김주훈 연구조정부장은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무처 및 일본국립교육연구소(NIER)가 공동으로 개최한 "아태지역 과학기술교육 워킹"에 참가하였다.
- * 11월 15일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겸 교육개혁 자문위원인 Dr. Robert M. Morgan와 2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국제화 시대의 교육개혁의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11월 22일 95년도 연구과제 확정 심의회가 본원 제 1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교과서 제도와 체제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의 2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 * 11월 23일~12월 24일까지 홍영란 연구원은 프랑스(UNESCO/IIEP)에서 교육사회학 연수를 받기 위하여 직원 해외 단기연수를 실시하였다.
- * 11월 27일~12월 3일까지 한중하 원장은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에서 개최한 "OECD/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고위급 회의참가 및 주제 발표"를 위하여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 * 11월 20일~11월 28일까지 김영철 기획처장은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에서 개최한 "제51차 교육연구혁신센터회의와 제53 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다.
- * 12월 1일 러시아 사할린시 교육국장인 Tretykova Rita Vladimirovna 외 1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KEDI 현황 청취 및 상호 교육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12월 5일 방글라데시 교육부 초등교육관계자 12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초등교원 양성, 초등교과 과정개발, 초등학교 운영과 관리, 교수방법과 교수자료에 관한 교원 훈련"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12월 5일~12월 17일까지 광명선 컴퓨터 센터 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UNESCO 정부간 정보과학 프로그램(IIP)총회 참가 및 OECD 교육통계 기술 그룹회의와 학교의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의 참가를 위하여 해외출장을 실시하였다.
- *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95년도 수습행정관 연수가 정관수 사무관 외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기초연구본부

- * 중학교「환경」교과서 개발
제 6차 중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교과로서 「환경」교과를 신설하고 있다. 「환경」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서 2년(1993~1994)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환경교육연구부에서 연구·개발하였다.

발원 환경교육연구부에서 연구·개발하였다.

환경 교과서는 크라운판 200여쪽의 분량으로 개발되었으며, 1995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교과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기존의 교과서들과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 교육의 목적이 지식보다는 태도, 기능, 행동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 교육의 내용은 다학문적, 간학문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이 다양하여, 학생들 스스로 또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단별로 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한 탐구과 실천을 해 볼 수 있기도 하다.

교육정책연구본부

- * 11월 11~12일에 걸쳐 '94년도 연구 과제 수행 결과 분석과 '95년도 연구 과제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연구 과제 개발을 위한 워킹을 실시하였다.
- * 12월 16일에 교육시설연구부 박재윤 부장과 교육부에서 파견된 류우상 사무관은, 천안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에 참석하여 급년에 수행한 "미래 학교시설 계획 연구: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서울시 교육청의 수탁 과제로 수행해 온 "서울 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가 마무리되어 '95년 1월

중에 교육청에서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서울교육의 중·장기 발전 배경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제2부에서는 학교단계별 중·장기 발전 과제를, 제3부에서는 교육영역별 발전 과제를, 제4부에서는 중점 개혁 과제별 중·장기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제5부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교육센터

- * 방송통신고등학교 발족 20주년을 맞아 본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문집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 문집은 그동안 학생들이 써 놓은 수기들을 모아 발간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의지를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방통고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자료로도 활용하는데 그 발간 목적이 있다.
- * 1995학년도 방통고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로서 포스터 4만부, 팸플릿 6만부를 제작하여 방통고 학교, 유관 교육청, 중학교, 노동부 산하 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특히, 이번 포스터는 시대에 맞게 새롭고 눈에 잘 띄이도록 파스텔기법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의 호감을 받았다.

직업기술교육연구 특임본부

- * 공고 「2·1체제」에 적용할 교육과정 모형개발을 위해 기계과를 위시한 19개 학과별로 교육과정(안) 검토·확정 협의회가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에는 교육부 자연과학편수관, 대학의 관련 교수진, 산업체 인사, 그리고 공업고등학교 교사 등 원외 인사 약 190 명과, 원내의 관련 연구진, 공동 연구진, 자문교수진 등 약 130 명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토의를 거쳐 공고 「2·1체제」 교육과정 모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 * 공고 「2·1체제」 학생에게 보급될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해 기계과, 전기과, 토목과, 화공과의 4 개 전문 학과별로 이미 선정된 집필진과 연구진에 의해 학교에서 사용될 모듈식 교과서 및 이론 교과서와 산업체에서 사용될 응용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다.
- * 공고 「2·1체제」 홍보를 위한 영상자료 1편, 기계과, 전기과, 토목과에서 교육자료로 사용될 영상자료 각 1편씩을 공고 및 제작업체의 협조를 받아 제작 중에 있으며, 홍보용 영상자료 제 1차 시사회를 12월 15일에 개최하였다. 영상자료 개발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각 전문학과별로 3~4편을 1995년부터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 * 공고 「2·1체제」에 적용할 평가모형 개발연구는 워크숍 및 협의회를 거쳐 작성된 초안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모형에는 공고 「2·1체제」 교육에서 적용될 학교에서의 전문교과 이론 및 실기평가를 비롯하여 산업체 현장 교육평가, 자격검정 재고개선에 따른 자격검정방법, 그리고 생활기록부 양식개정안 중에 포함되어 있다.

- * 공고 「2·1체제」 교육과정 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10 개의 협력연구학교 교장단 협의회가 11월 14, 15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공고 「2·1체제」의 추진배경과 방향,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 효율적 공고 운영방안 등이 협의되었으며 특히 공고 「2·1체제」가 확고히 정착되기 위한 향후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 11월 14일부터 12월 10일 동안 한-유네스코 Fellowship 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직업기술교육 담당자 연수교육」이 본원과 유네스코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 중 8 개국에서 선발·구성된 직업기술교육분야의 정책 결정관련자,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직업기술교육기관의 부처장 및 교사 등의 8명이 연수자로 참가하였고, 본원 한종하 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연수교육강의를 담당하였다.

서울시교육연구원

□ 자료 개발 보급

'94 서울교육자료전 전시작품 중 우수작품을 1편 선정하여 학교현장에 일 반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료를 개발· 보급하였다.

12월 15일에 발간한 이 자료는 '그 러기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로 4·6배 판이며 서울시 국민학교에 1부씩 배포 할 예정이다.

□ 「서울교육 발간

계간지 「서울교육」 겨울호를 '94. 12. 15자로 발간하여 서울시내 각급학 교에 배포하였다.

동호에는 금번에 "건전한 인성 함양 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실제"를 특집으 로 다루고, "중학교 새교과서 어떻게 달라지나"를 특별기획으로 게재하고 있 다.

□ 상담자원 봉사자의 사례발표

11월 22일에 '94년도 학생상담자원 봉사 장기 유공자 40명에 대한 교육감 감사패 수여식을 갖고 아울러 상담자원 봉사자의 우수상담 사례 발표회도 가졌 다.

인천시교육연구원

□ 국·중·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책자 발간 배부

학교에서 인성교육 지도에 도움을 주 고자 국·중·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심성수련 중심) 책자 2,000부를 발간 하여 국·중·고교에 각 7부씩 배부하 였다.

□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상담사례집 발간 및 상담사례 발표회

'94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상담사례집 (제8집)과 '만남의 터' 신문(제7호) 이 각 500부씩 발간되어 국·중·고교 및 상담봉사자들에게 배부되었다. 상 담봉사자 상담사례 발표회가 12월 13 일(화)에 인천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국·중·고 진로담당교사 236명과 상 담봉사자 170명 참석한 가운데 '94년 도 상담활동보고와 개인 및 집단상담사 례, 상담협력학교 운영사례 등이 발표 되어 학생상담활동에 한층 도움을 주리 라 믿는다.

□ '94 초등교사 자연과 실험연수

12월 19일~30일까지 10일간 초등 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자연과 실험연 수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이론 및 과학정보 습득, 탐구학습에 따른 과학 실험 체험을 하게 하였다.

□ '94 중등교과별 일반연수 및 주임교사 직무연수

12월 19일~30일까지 10일간 국어 과 교사 40명, 영어과 교사 40명, 주 임교사 40명에 대하여 일반연수 및 직 무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학교현장에 유 익한 교직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 을 꾀하였다.

부산시교육연구원 소식

□ 「부산 교육지 교육 정기간행물 콘테스트 입상

부산교육청 정기 간행물 「부산 교육」 지가 교육부 주최 제2회 교육 정기간행 물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교원의 연구풍토 조성과 교육에 관한 세로운 이론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신국판, 계간으로 발간되는 「부산 교 육」지는 소지가 간편하고 이용에 편리 하며 종래의 판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에 레이아웃 설계의 융통성이 부족한 국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 산을 아껴 컬러 인쇄의 최소화 등 어려 운 여건에서도 입상하였다.

국판 간행물로는 전국 시·도 중 유 일하게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교육 실천 사례집 발간 배부

교육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 운 교육이론 및 교육방법을 연구·개발 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8개교의 연 구·실험·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28 개 연구·실험·시범학교 중 '94학년 도에 23개교가 중간 공개보고회를 가 졌으며 5개교는 '95학년도에까지 계속 운영된다.

특히 금년에는 제6차 교육과정 시행 에 대비하여 유치원·국민학교·중학 교·고등학교 각급별로 2개교씩 8개 교의 「학교교육과정」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공개보고회를 가짐으로써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큰 도움

을 주었다.

시범학교에서 펴낸 시범운영 보고서 별책 부록인 '학교교육과정'은 알차고 풍부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학교 운영 성과의 일반화를 위해 '교육 실천 사례집' 700부를 발간하여 12월에 교당 1부씩 배부했다.

94중학교 교사용 진로 교육 자료 발간 배부

개인의 활동무대를 세계인의 일원으로 계획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게 자신의 잠정적인 진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학생들에게 교사용 진로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부는 진로교육의 이해편에는 진로교육의 개념, 기본원리와 방향, 목적과 영역, 내용, 진로교육의 단계 등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제2 부에는 중학교에서의 각과 지도를 통한 진로교육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제3 부에는 중학교 1~3학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는 자료를 3,000부 발간하여 12월에 교당 20부씩 배부했다.

광주시교육연구원

교단선진화 모델 교실 및 자료 전시실 설치·운영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교단선진화 시책의 정착과 지속적인 구현을 위하여

본원에서는 교단 선진화 모델 교실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단선진화에 일반화를 촉진하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운동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모델 교실 및 자료 전시실을 설치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교육 관계자에게 공개했다.

교육부지정 교육과정 연구 기관 운영 보고회 완료

본원이 '94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연구 주제를 '광주직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에 관한 연구'로 정하여 추진했던 내용을 지난 10월 7일 충청북도 학생 교육원에서 약 400여명의 전국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보고회를 마쳤다.

충청북도 교육청, 대전직할시 교육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가진 이 보고회에서 본원에서는 광주의 특성에 맞고 학생, 교원,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목표와 본시 교육의 강조점이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한 광주직할시 지역 수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이 지침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충실한 길잡이가 되어 보다 질 높은 교육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실 종합 영상 시스템 설치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의 실험 연수 시 교육 공학적 접근을 통해 연수의 효

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본원 실험실에 종합 영상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컴퓨터, 카메라, VCR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하여 파워맥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제작 및 필름 복사기 등은 최첨단 학습 자료 제작 기법의 습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 개최

전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를 지난 9월 13일~14일(1박 2일)까지 광주직할시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상담활동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고학력 및 전문 인력을 학생 상담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국 상담자원봉사자 180명이 참석하였다.



이 연찬회에서는 상담기법 및 심성계발 프로그램, 전다실습, 국악의 이해, 광주권 유적지 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봉사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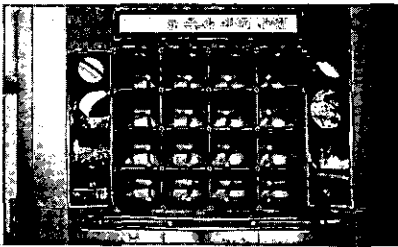
국악의 이해 시간은 온 가슴으로 느

끼는 즐거움과 우리 것에 대한 긍지를 한층 높였으며 전다실습을 통해서 다시와 다시 녹차에 대한 재조명의 시간이 없다고 더없이 흐뭇해 하여 이곳 예약에 대한 재인식을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한편 조별 심성프로그램 시간은 정보교환 및 많은 감동의 면담을 통해서 봉사 활동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재충전의 활력을 불어 넣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다.

멀티시스템 설치

본원의 방문객을 위해 원의 소개와 각종 안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현관에 멀티시스템을 설치, 지난 10월 10일부터 방영하고 있다.



이는 16 개의 TV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상단의 전광판은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입력 수정하여 상하 좌우로 마음대로 회전 또는 이동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본원 방문에 대한 환영, 주요 행사 등을 자막으로 안내하며, 멀티비전으로는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관람자 수준에 맞는 VIDEO, LD 또는 본원의 업무 내용을 상영하여 방문객이나 관람자들의 호기심이나 이해를 돕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고교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연구

창의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계발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으로 현장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교육부 지정 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추진 2차년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장 실태 조사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 국어과 영역별 교수-학습 모형 개발과 이에 따른 학습 과정안과 평가 목표 상세화에 의한 평가의 실제를 제시해 현장 교육의 개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학교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제6 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과 추구하는 목적을 살려,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교육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고등학교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발간했다.

새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와 성격, 목적, 방법, 평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교사 연수에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구체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제시는 현장교육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연구 논총 발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연구자의 정신적 무장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연구연찬에의 정진으로 교육연구원의 본질 추구 및 교육연구력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논총" 제3집을 발간하였다.

이는 현장교육 개선 및 현장교육 연구, 현직연수자료로 활용되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학생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12월 16일 「'94년도 학생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운영보고회는 상담 자원봉사자와 시·군 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330 명이 참가하여 일년동안의 학생 상담 활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 우수사례 발표 등의 학생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

「경기교육」시 우수상 수상

「경기교육」 가을호가 교육부 주최 전국 간행을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에 영예를 차지했다.

연 4회씩 발간되고 있는 「경기교육」은 금년 겨울로 125호의 지령을 자랑하는 기관지로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편집 발간하고 있으며 금년 봄호부터 변형 국판을 4×6배판으로 판형을 바꾸어 다양한 내용 뿐만 아니라 편집에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강원도교육연구원

94학년도 학부모 계도자료 및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발간 보급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을 강화,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계도 자료집인 '자녀교육을 위한 슬기로운 부모의 역할' 책자 7000부를 제작,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 강화와 심성개발, 인성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책자를 제작하여 초·중·고 교사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일선 교사들의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원

학교 찾아「진로교육」지원활동 전개

진로교육 추진을 위해 인쇄물, 영상매체 등의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외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강좌 프로그램을 마련, 일선학교를 직접 방문, 강의를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1. 고등학교 선택어떻게 할 것인가(중 3) 2. 바람직한 계열 선택 방법(고 1) 3. 학교보다 학과선택을 먼저 생각하자(고 3) 4. 자녀 진로지도의 지혜(학부모) 등으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실시하였고, 그간의 실적은 중학생(40회 6400명), 고등학생(42회 17000명), 학부모(25회 3180명), 계 107회 26580명에 이르고 있다.

진로지도 교육에 대한 성과는 일선학교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일선학교 및 학부모회로부터 많은 특강 요청을 받고 있으나 본 연구원의 인력자원 관계상 요청에 다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교육연구원

중학교 국어과 시 감상 수업 영상 자료 개발 보급

중학교 국어과 수업 영상자료를 개발하여 전국 교육연구원과 도내 중학교에 보급하였다.

이 자료는 중학교 2학년 국어과의 시 감상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소집단 토의학습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시 감상 학습활동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 전개의 절차는 전반부에 전시 학습의 정리 단계에서 시 감상 방법 선별을 위한 과제토의 장면 일부를 소개하였으며, 본시 학습에서는 시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보다 깊이있게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활용하여 개인 및 분담학습 활동을 통한 심층적인 시 감상 방법과 작품 이해의 폭을 넓혀 시를 통해 참다운 삶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 구성하였다.

경상남도교육연구원

인성교육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도덕적 행동 표출과 청소년들의 탈선, 쾌락, 추구, 즉흥적, 극단적인 생활 태도는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본원 진로교육부에서는 상담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인성교육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친구들과의 역동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각자의 감정, 태도, 생각 및 행동을 탐색, 이해하고 보다 성숙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진로상담, 심성개발, 성교육, 학습습관형성, 가치관 명료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자료를 카드화하여 복사, 활용하기 쉽게 만들고 교사용 지침과 학생용 자료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학습지도용 비디오 자료 개발 보급

교육현장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사의 학생지도 능력 제고를 도모하고 특히 실기위주의 교과지도를 위하여 학습지도용 비디오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본원 자료제작부에서는 「수채화 지도」 자료(50분), 수채화의 개관,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로 편성하고 「한국 무용지도자료」(70분)는 봉산탈춤, 소고, 강강술래로 편성하였으며 「과학실험기구 사용법 지도자료」는 초차류 취

급 및 실험 자료로 용해, 산소발생, 혼합물 등으로 편성하였다.

전라북도교육연구원

□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 개최

본 연구원에서는 12월 2일 전주 기린원 세미나실에서 학생상담자원 봉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봉사자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며, 금년도 활동을 반성하고 신년도 활동의 각오를 다짐은 물론, 1년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앙양기 위해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지역교육청 진로교육 담당장학사, 협력학교장 및 상담자원봉사자 전원이 참석한 연찬회에서는 원장님의 인사, 외래 강사의 특강, 봉사자 4명의 상담 사례 발표가 있었고, 다 함께 노래부르기 시간을 가진 후 상담자원 봉사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 연구직 1인 1 조사연구 추진

본원에서는 그동안 미흡했던 조사연구 분야에 역점을 두어 '95년부터 연구직 전원이(원장 포함) 1인 1조사연구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본 조사연구 추진은 교육의 현장, 교육자료, 현장연구와 진로교육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현장문제의 추출분석, 교육시책의 평가분석 그리고 교직원생활의 실상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원의 기능활성화는 물론 교육청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여건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조사연구 과제를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매주 2일 이상 연구직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라남도교육연구원

□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 지침서 발간

각급학교의 교육방송 시설(H/W, S/W)의 활용을 돕기 위하여 교육 방송 학습에 대한 일반이론을 안내하고 예시를 주로 한 실제적인 면과 기본 시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엮었다. 12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국, 중, 고, 유관기관에 보급하였다.

□ 대학진학지도자료 발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학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 진학 지도자료 600 부(260 쪽)를 재작하여 도내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다.

본 자료집은 미래 사회의 경제 및 직업의 동향을 예측하고, 이어 대학 전공선택, 학과의 특성 안내, 수험생의 학습안내, 수험생의 건강관리, 및 교사, 학생의 체험담 등으로 구성되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교사에게도 참고가 되도록 엮었다.

□ '외국어 대화 대회' 개최

국제화 시대의 인력 자원으로 유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91년부터 실시해 오는 외국어 대화 대회를 금년에도 성황리에 마쳤다.

중학교는 710개교 2, 547명 참가하여 260명에게 교육감상을 시상했고 고등학교(영어)는 51개교 191명이 참가하여 173명에게 시상했다. 제 2외국어(중어, 일어, 독어, 불어)는 85명 참가하여 전원에게 총 518명을 시상하였다.

본 '외국어 대화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율과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다.

□ '우리 고장의 전설' 발간

본원에서는 '93년에 발간한 재미있고 흥겨운 '우리 고장 전통민속과 놀이'의 후속으로 예부터 전해오는 우리 조상들의 충, 효와 권성징악의 내용을 담은 전설, 설화, 야화 등을 '우리 고장의 전설'이라는 책으로 발간하여 후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인쇄 중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행 출판 자료 목록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국민학교 특활영어	배움책(상)	6,000	대 한 교 과 사(주) (02)563 -8161 ~70)
	배움책(중)	6,000	
	배움책(하)	6,000	
	지도서(상)	2,500	
	지도서(중)	2,700	
	지도서(하)	2,800	
배우며 생각하며 (국민학교용)	배움책(1-2)	3,400	
	배움책(3-4)	2,400	
	배움책(5-6)	2,100	
	지도서(1-2)	3,100	
	지도서(3-4)	3,600	
	지도서(5-6)	3,000	
배우며 생각하며 (중학교용)	배움책	2,700	
	지도서	3,400	
생각하는 산수공부 (국민학교용)	1-2학년용	1,500	
	3-4학년용	2,900	
	5-6학년용	2,900	
생각하는 산수공부 (국민학교용)	(1-2학년) 상	1,300	
	중	1,100	
	하	1,400	
	(3-4학년) 상	1,800	
	중	1,600	
	하	1,700	
	(5-6학년) 상	1,700	
	중	1,900	
하	1,900		
생활경제 학습자료 (국민학교용)	지하미물의 전설	1,400	
	태호와 드송	1,500	
	내일은 아구왕	1,500	
	육망과 선택	1,500	
	동수의 병	1,400	
	화해	1,300	
	이루코부족과 무역선	1,500	
	장구의 물기비행	1,400	
	한지붕 두미음	1,300	
	물고기의 교환	1,400	
	지도서(상)	500	
	지도서(하)	4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학생용)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지도서)		3,300	
우리와 내(국민학교 1-2학 년 학생용)		1,300	
우리와 내(국민학교 1-2학 년 지도서)		2,2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민주시민 교육자료	우리와 내(국민학교 3-4학 년 학생용)	1,600	대 한 교 과 사(주) (02)563 -8161 ~70)
	우리와 내(국민학교 3-4학 년 지도서)	2,600	
	우리와 내(국민학교 5-6학 년 학생용)	1,600	
	우리와 내(국민학교 5-6학 년 지도서)	2,4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학생용)	1,6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지도서)	3,1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지도서)	4,0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민주적 학생지도서 민주적학 교운영(총지침서)	3,800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한국교육의 과제	4,500		
성교육자료	아직도 이기라고요 (국민학생용)	2,000	
	어른이 되나봐요(중학생용)	2,500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2,900	
우등생이 되기 위한 글읽기 (국민학생용)	중심내용 파악 학습전략	1,800	삼화출판사 (02)776 -6687~8
	자기점점 학습전략	1,200	
	관계짓기 학습전략	1,200	
	정교화 학습전략 I)	1,700	
	정교화 학습전략 II)	1,900	
읽기학습전략훈련지침서	1,200		
환경교육자료 (국민학교용)	즐거운 환경탐구 (1, 2학년용)	1,500	
	재미있는 환경탐구 (3, 4학년용)	1,700	
	보람찬 환경탐구 (5, 6학년용)	1,900	
	환경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3,200	
영재교육자료	이야기나라 (국교 3, 4학년용)	1,400	
	축정의 세계(")	1,200	
	사람들이 사는 곳(")	1,700	
	지식에 관한 연구(")	1,100	
	미술감상(")	1,6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영재교육자료	교사용 지도서(")	2,500	삼화출판사 (02)776 -6687~8
	신문기사(국교 5, 6학년용)	1,000	
	확률의 신비(")	1,100	
	우리나라의 풍습(")	1,400	
	깨끗한 물(")	1,100	
	동요만들기(")	1,800	
	교사용 지도서(")	3,300	
	에너지와 우리생활(중학생용)	1,400	
	전기와 그 이용(")	1,200	
	인간과 생태계(")	1,000	
	바다의 신비(")	1,100	
	우리가 사는 지구(")	1,300	
	교사용 지도서(")	2,800	
	수학과 학습자료 (중학생용)	수학 문제 해결의 지혜 (1학년용)	
(2학년용)		2,700	
(3학년용)		2,700	
영어능력신장자료 (중학생용)	영어 읽기	3,300	
	영어 쓰기(1)	2,700	
	영어 쓰기(2)	2,000	
	영어 쓰기(3)	2,1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KEDI집단 지능검사	검사지(초·중·고·대학생 용 8종)	각 750	한국직성 연구소 (02)515 -5722
	추가검사지(초·중·고용 3 종) 검사요강(5종)	각 750 각 1,200	
진로성숙도검사	검사지(중·고교용)	각 750	
	검사요강(")	각 1,000	
KEDI-WISC 개인지능검사도구 기초학습 기능검사도구		104,000	특수교육 (02)812 -0348
		184,000	
언어교육학습자료	자료A(색막대놀이외2종)	231,000	국민서관 (02)710 -7751
	자료B(곰돌이 도미노 외 10 종)	132,000	
	자료C(그림수찾기 외9종)	110,000	
	자료D(바둑판게임 외7종)	187,000	
언어교육 활동자료		165,000	
한국교육 영인본		150,000	하우기획 출판 (02)268 -4417

[KEDI 도서회원] 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 배부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하고자 '87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 회), '한국교육'(연 1 회) 우송
- (2) 당해년도 '연구보고서' 20 종~25 종(발간 즉시 우송)

2. 연도별 회원제

회원자격은 1년간 주어지며, 가입년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매년 3월중 발송)와 정기 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4. 연회비(1구좌당)

- 가입 년회비 : 60,000 원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입금.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정보센터 출판부(대표전화 572~5121, 교환 408)

◎ 가입신청서는 이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복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재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KEDI 도서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 NO. _____

구독자(기관) 주소		우편번호 _____	
개인의 경우	구독자 성명	전화번호 _____	
	근무처	직 위 _____	
단체 의 경우	구독 단체명	전화번호 _____	
대표자명()			
구독구좌수		구좌 (신규, 재가입 : _____ 년도회원)	
회비 ■ 가입년회비 (1구좌당) : 60,000 원	○ 납입처 :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 ○ 송금액 : _____ 원 ○ 송금년월일 : 199 ____ 년 ____ 월 ____ 일 ○ 송금자명 : _____		
본인은 상기와 같이 귀원의 도서회원으로 가입코자 합니다. 199 신 청 자 (개인, 단체) (인)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장 귀하			



이달의 명상



'95년 乙亥年 새해가 밝았다. 영원한 우주의 시간에는 구획과 단절이 없건 만, 인간의 시간에는 구획과 단절이 존재한다. 이는 우주의 생명체 중 유일하게 인고와 노력을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알차고 의미있게 살도록 반성하고 노력해 보라는 뜻에서이리라.

올해도 우리 앞에는 가정과 직장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놓여 있다. 또 노력했지만 지난 해에는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일들도 놓여 있다.

'욕심없이 神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일하는 耨는 연잎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그 일의 결과에 물들지 않는다.' 어느 책에서 본 가끔 생각하는 文句이다. 올 한 해라도 이런 마음을 유지하며 생활해 보리라고 다짐한다.

새해에는 未完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完成된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 홍 원 (본원 연구원)



“교육의 미래를 여는 한국교육개발원”